

ISSN 1226-2838

叢論學調時

第 52 輯

2020. 1. 31.

韓國學調時會

제 67차 한국시조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 기획논문 : 한국시조가 나아갈 길의 모색 3: 글로벌 시대, 시조와 스토리텔링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강혜정 · 7

□ 일반논문

물명(物名)으로 본 근대계몽기 시조 연구

- 『대한민보(大韓民報)』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김형태 · 33

기녀시조에 형상화된 절의와 언어적 인식고승관 · 69

기생의 유교적 가치관 연구

- 시조를 중심으로 -이경민 · 93

근대 매체를 통해 본 고시조 선별 방식과 특성(2)

- 『별건곤』 소재 고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 김태웅 · 117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 147

한국시조학회 제67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148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 150

韓國時調學會 會則 / 153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 157

한국시조학회 출판·편집 규정 / 173

한국시조학회 투고논문 심사조서 / 183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 184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 196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의 창작 향유 양상

강혜정*

〈국문초록〉

본고는 최근 배은희에 의해 소개된 『양춘집』의 편찬자를 규명하고, 가집의 특성을 밝혀, 1910년대 시조의 향유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양춘집』 말미에는 ‘海東樵夫’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신소설 <추월색>의 작가인 최찬식의 號이다. 그리고 『양춘집』 표지의 ‘丙辰 五月 端陽’이라는 기록은 이 가집의 편찬 시기(1916년 5월 단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양춘집』은 최찬식이 1916년의 단오를 맞아 양기 왕성한 계절의 흥취를 즐기기 위해 편찬한 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양춘집』에 수록된 시조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시조 사설과 부대 기록, 그리고 함께 배치된 다른 장르의 작품들의 특성을 살폈다. 『양춘집』에는 30수의 시조가 들어 있는데 이 중 29수는 종장의 마지막 구가 생략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시조 창 사설의 특성으로, 『양춘집』 소재 시조 작품이 시조창을 전제로 창작된 사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작품 옆에는 ‘男唱, 詩調, 平調, 춘난 詩調’와 같은 음악 용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 용어들은 모두 시조창과 관련된 것들로 『양춘집』이 시조창을 전제로 한 가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조와 함께 수록된 긴 노래 <老圃寒香>, <阜臯天邊>, <道德歌>도 모두 가창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양춘집』 소재 시조의 작가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어 각 인물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반 기록을 통해 볼 때, 최찬식, 최영년, 천동호 등 『신문계』에 기사를 제공하던 근대 지식인들로 추정된다. 최찬식과 최영년은 부자지간이며, 천동호는 잡지에 영문법을 강의하던 인물이었다. 최찬식은 신소설은 물론 신지식을 담은 과학 기사를 쓰던 인물이었으며, 기생을 중심으로 한 화류계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양춘집』은 1910년대 근대적 지식인들이 가장 문화로서 시조를 즐기는 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양춘집』은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조빙교수

시조가 낭송 문학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집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래 문화에 견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10년대 시조는 노래 문화에서 시 문화로 옮겨가는 도정에 있었지만, 『양춘집』은 그 양상이 결코 단선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 양춘집, 최찬식, 최영년, 천동호, 천소자, 신문계, 1910년대, 시조창, 단오

I. 서론

신경숙은 잘 짜인 대형 가집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학계의 관행을 반성하며, 작은 규모의, 엉성한 체제의 가집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 나아가 가집들은 ‘문학적, 음악적 사건들’의 기록이며 모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가집이라고 하였다.²⁾ 이후 작은 가집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최근에는 다양한 가집을 통해 당대의 노래 문화를 읽어 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소개된 『양춘집』은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자료이다.³⁾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규모의 신자료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을 넘어 이 가집을 통해 20세기 초반 시조의 향유 양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양춘집』의 편찬시기(1916년)를 밝히고, 『양춘집』 소재 시조들이 당대의 잡지 『신문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하였다. 20세기 초반에 편찬된 가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양춘집』은 조선 후기와 근대를 잇는 중요한 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수록된 모든 작품의 출처가 당대의 잡지라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흥미롭다. 이로써 『양춘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토대

1) 신경숙, 「고전시가연구와 가집문헌」, 『고전과 해석』 18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5, 17쪽.

2) 신경숙, 같은 글, 29쪽.

3) 배은희, 「단국대 소장본 『양춘집』 소재 시조 연구」, 『어문논집』 77, 중앙어문학회, 2019, 75-94쪽.

가 충분히 마련되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양춘집』이 담고 있는 음악적 사건의 의미에 대해 탐색할 차례이다.

배은희는 『양춘집』에 대해 “노래로 향유되었던 시조가 문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함의한다”고 보고⁴⁾ “이 작품들을 가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적으로 음영 낭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⁵⁾ 이는 20세기 초반 시조의 창작, 향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다 섬세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양춘집』의 편제를 다시 살피고, 시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 가집의 성격을 살펴 『양춘집』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1910년대 시조의 향유 양상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陽春集』의 편제 및 특성

1. 『양춘집』의 편제 및 편찬자

1) 『양춘집』의 편제

『양춘집』에는 가사와 같은 긴 노래 3편과 시조 30수가 혼재되어 있다.⁶⁾ 19세기 이후에 편찬된 가집에는 시조와 가사, 혹은 시조와 잡가가 하나의 가집 속에 수록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체로 시조와 긴 노래는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⁷⁾, 『양춘집』의 경우에는 시조가 먼저 나온 후 두 편의

4) 배은희, 위의 글, 79쪽.

5) 배은희, 위의 글, 87쪽.

6) 선행 연구에서는 『양춘집』에 2편의 가사만이 들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편이 들어 있다. <노포한향> 뒤에 놓인 <고고천변>을 계수하지 않았다. 시조의 경우 <강호락>은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선행연구는 이를 1편으로 계수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각 편으로 보고 8수로 계수한다.

7)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고금가곡』의 경우 시조 앞에 <관동별곡>을 위시한 11편의 가사가 놓여 있으며,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청구영언』육당본은 시조 뒤에 <상사곡>을 위시한 16편

긴 노래가 나오고 다시 29수의 시조가 나오고, 그 뒤에 다시 긴 노래를 수록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첫 작품인 시조 〈만정황엽〉은 초, 중장이 누락된 채 중장부터 나오고 있다. 아쉽지만, 가집의 앞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 (1) 시조 : 〈滿庭黃葉〉 1수(중장만)
- (2) 긴 노래 : 〈老圃寒香〉, 〈皐皐天邊〉 : 2편
- (3) 시조 : 〈管鮑交〉 외 : 29수
- (4) 긴 노래 : 〈道德歌〉 : 1편

선행연구를 통해 『양춘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이 『신문계』에 게재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둘 사이의 관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⁸⁾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고고천변〉이 전체 목록에서 누락되었고, 〈도덕가〉의 『신문계』 게재 연도가 누락되었기에 이를 추가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2번, 3번, 33번이 긴 노래이다. 시조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모두 제목이 있다.

표 1 〈『양춘집』 소재 작품〉

순서	제목	작가	평자	음악용어	신문계 수록	신문계 표제
1	滿庭黃葉	(紫霞山人)	天嘯子		1913.11	朝鮮歌曲
2	老圃寒香	一狂者		타령	1913.11	朝鮮歌曲
3	皐皐天邊	없음			미수록	
4	管鮑交	天嘯子	評曰		1913.7.	歌曲

의 가사가 배치되어 있다. 『남훈태평가』도 시조 뒤에 잡가편에 3편, 가사편에 4편을 수록하고 있다.

8) 배은희, 앞의 논문, 80쪽에는 『양춘집』 소재 시조의 수록 순서 도표가 있고, 82쪽에는 『신문계』 게재 연도와 비교한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5	一寸心	(天嘯子)	評曰		1913.7.	歌曲
6	玉蘭干	(天嘯子)	評曰	男唱	1913.7.	歌曲
7	歸去來	惺庵生	評曰		1913.7.	歌曲
8	別憶萬愁	(惺庵生)	評曰		1913.7.	歌曲
9	綠陰	00生	海史生	詩調	1913.6.	歌曲(詩調)
10	田家	東樵生	雲外子		1913.6.	歌曲(詩調)
11	黃鶯	(惺庵生)	海翁		1913.6.	歌曲(詩調)
12	惜春	(惺庵生)	觀風生		1913.6.	歌曲(詩調)
13	種菊		老圃生		1913.6.	歌曲(詩調)
14	行樂		晚松生		1913.6.	歌曲(詩調)
15	佳色		天嘯子	平調	1913.10	
16	菊花		天嘯子		1913.10	
17	秋風		天嘯子	춘난時調	1913.10	
18	芭蕉		天嘯子	平調	1913.10	
19	秋懷		天嘯子	(平調)	1913.10	
20	秋聲		天嘯子	(平調)	1913.10	
21	江湖樂1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2	江湖樂2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3	江湖樂3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4	江湖樂4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5	江湖樂5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6	江湖樂6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7	江湖樂7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8	江湖樂8	一嘯生	記者		1913.11	朝鮮歌曲
29	長生術	天嘯子	評曰		1913.8.	歌曲
30	是神仙	天嘯子	評曰		1913.8.	歌曲
31	閒事業	(天嘯子)	없음		1913.8.	歌曲
32	好八字	(天嘯子)	評曰		1913.8.	歌曲
33	道德歌	許眉叟	없음		1913.5.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록된 30수의 시조 작품 중 일부에만 작가 정보나 악곡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수록 작품의 배열 원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종래의 가집처럼 악곡이나 작가명에 따라 작품을 배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전이 되는 『신문계』의 수록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도 아니다. 악곡별, 주제별 분류 가집에 익숙한 시선으로 보면, 『양춘집』은 정연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다소 혼란스러운 가집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훈태평가』를 위시한 시조창 계열의 가집들도 목차에만 악곡명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작품은 하나의

악곡 아래에 수백 수가 모여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양춘집』 역시 별난 가집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⁹⁾ 따라서 “『양춘집』은 서두 부분이 없고 곡조 별로 노래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작품에 따라 곡조를 따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문집은 가창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¹⁰⁾는 추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양춘집』의 무질서함은 시조창 계열 가집의 느슨한 체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양춘집』의 편찬자 및 편찬 시기



그림1 『양춘집』 마지막 장

『양춘집』의 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춘집』의 편찬자와 편찬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춘집』을 편찬자 미상으로 보았다.¹¹⁾ 하지만 가집의 말미에 편찬자로 보이는 인물의 정보가 들어 있다. 『양춘집』은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옆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장에 가사 〈도덕가〉를 기록한 후 ‘海東樵夫’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동초부’는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의 호이다. 신소설의

9) 『남훈태평가』의 경우 권두에 낙시조, 룡, 편 등 다수의 악곡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사설에서는 악곡 구분이 없고, ‘낙시요’ 항목 아래 224수가 배열되어 있다.

10) 배은희, 앞의 논문, 85쪽.

11) 배은희, 앞의 논문, 77쪽.

작가로 잘 알려진 최찬식은 ‘海東樵人’, ‘東樵’라는 호를 즐겨 사용하였다. 최찬식은 『추월색』(1912), 『해안』(1914), 『금강문』(1914), 『안의 성』(1914), 『능라도』(1919) 등 신소설을 발표하였고, 잡지 『신문계(新文界)』와 『반도시론(半島時論)』의 기자로도 활동하였다. 최찬식이 『신문계』의 기자로 활동하였고, 『양춘집』이 『신문계』에서 발표했던 고시조를 모아 편찬한 가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해동초부’가 최찬식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양춘집』에는 ‘東樵’라는 필명의 작품 〈田家〉가 전하고 있는데, ‘동초’ 역시 ‘해동초부’ 최찬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춘집』은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진 최찬식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자작시도 수록한 가집이다.

『양춘집』의 편찬 시기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1916년 5월이라고 밝



힌 바 있다.¹²⁾ 이는 가집의 맨 뒤에 놓인 겉표지의 ‘丙辰 五月 端陽’이라는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병진년이 1916년에 해당하기에 이 가집의 편찬연도를 1916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편찬자 최찬식의 활동 시기와의 부합한다. 하지만 그 이하에 있는 ‘오월 단양’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단양’에 대해 “의미는 정확하지 않지만 편찬자가 머무르는 장소”¹³⁾라고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의 ‘端陽’은 장소가 아니라¹⁴⁾ 오월 단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端陽’은 ‘端午’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¹⁵⁾ 그렇다면 ‘병

12) 배은희, 앞의 논문, 79쪽.

13) 배은희, 앞의 논문, 79쪽.

14) 지명으로서의 단양, 즉 충청북도에 위치한 단양은 ‘丹陽’으로 표기한다.

15) 단오(端午) : 일명 수릿날[戊衣日·水瀨日]·중오절(重午節)·천중절(天中節)·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진 오월 단양은 1916년 음력 5월 5일이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916년 6월 5일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양수가 겹치는 날에는 사람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명일로 삼아 왔는데, 그중에서도 단오는 일 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기에 ‘天中佳節’이라 하며 남녀노소가 함께 즐겼던 날이다.¹⁶⁾ 최찬식은 碧鍾居士라는 필명으로 『신문계』에 〈端陽天氣〉라는 제목의 창가를 발표한 바 있다.¹⁷⁾ 아래는 그 중 1절이다.

端陽天氣

黃梅天 지나가고 石榴花 발서핀다

蘭湯에 沐浴하고 菖樽에 술익으니

林園에 端陽天氣 詩人의 淸興致

柳池에 푸른 물결 槐陌에 맑은 그늘 『신문계』 1권 4호(1913년 7월호)

이 작품을 통해 볼 때, 최찬식에게 단오란, 빨간 석류꽃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향기로운 난초향의 목욕물에 몸을 씻고, 창포주는 맛있게 익어 시인들의 흥취를 한껏 고조시키는 매우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인에게 단오는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모두 자극하여 예사로 넘길 수 없기에 시를 짓고 향유하였던 것이다. 당시 평양에서 단오를 맞아 춤과 노래로 즐기는 유원회를 개설하여 즐기기도 하였다.¹⁸⁾ 당대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단오’를 맞아 이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16) 최남선, 『조선의 상식』, 최상진 해제, 두리미디어, 2007, 115-117쪽.

17) 김홍련은 ‘벽중거사’가 최찬식의 또 다른 필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8쪽.

18) 화류사회에 갇힌 풍류랑과 부인여자까지 취흥이 도도하야 후주의 자락과 치맛자락을 놓히 들고 춤도 춤머 노리도 부르는 「평양의 단양가절-평양의 단오노리 일경이 환락세계」, 『매일 신보』(1915.6.19.)

즐기기 위해 가집을 엮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춘집』은 최찬식이 위의 창가를 짓고 3년이 지나 다시 찾아온 1916년의 단소를 맞이하여, 양기 왕성한 아름다운 계절의 흥취를 즐기기 위해 편찬한 가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어를 통해 본 『양춘집』의 특성

『양춘집』 소재 시조는 단형시조조차도 모두 제목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고시조보다는 근대시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작품에 사용된 어휘는 한자어가 지배적이며, 한시에 전고를 두고 있는 어휘들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고시조의 관습어구를 그대로 가져와 고시조와 구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양춘집』 소재 시조들은 근대시조보다는 고시조와 더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선행연구는 “고전적 시의를 나타내기 위¹⁹⁾한 것으로 보았는데 매우 적절한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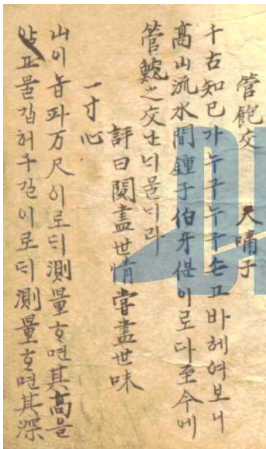


그림3 『양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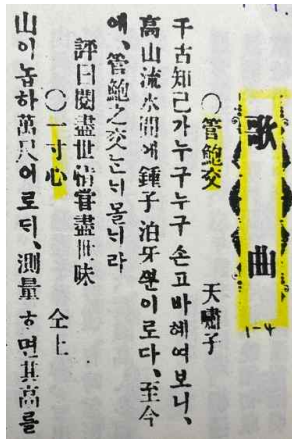


그림4 『신문계』 1913. 7.



그림5 『청춘』(1914.1)
내마음 버혀내여...

19) 배은희, 앞의 논문, 92쪽.

『양춘집』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어 가운데 한자어가 많다는 점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시어의 배치에 주목해 보자. 『양춘집』이나 『신문계』나 모두 시조를 소개할 때에 행갈이를 하지 않고 줄글 형태로 배치하고 있다. 아니 『신문계』에서는 십표를 찍어 절이나 행, 혹은 종장 첫 머리를 강조했지만, 『양춘집』에서는 그러한 구분조차 사라졌다. 낭송을 위해 수록한 것이라면 낭송에 적합하도록 십표를 활용하거나 아예 행을 바꾸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양춘집』처럼 줄글 형태로 이어 적는 것은 가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이 역시 『양춘집』이 노래 문화에 견인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청춘』에서는 창간호에서 고시조를 소개할 때, 그림과 더불어 행을 바꾸어 기록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양춘집』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시조의 종장이다. 이 가집에 수록된 시조는 모두 30수이며, 이들은 평시조와 사설시조, 단형시조와 연시조로 다채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중 9번째로 실린 〈黃鶯〉을 제외한 29수는 한결같이 종장의 마지막 구가 생략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0수의 종장은 다음과 같다.

표2 〈『양춘집』 소재 시조의 종장〉

순서	시조제목	종장
1	滿庭黃葉	술잡고 慇懃이 勸한 친구의 마음을 보면 人人不變
4	管鮑交	至今에 管鮑之交난 니 물너라
5	一寸心	엇지타 一寸에 不過한 人心은 測量키 어려
6	玉蘭干	그중에 鶴氅衣입고 臥龍冠쓰고 一張綠綺琴 무릅우에 빗기 안고 줄고로난 소리
7	歸去來	至今에 東籬採菊하니 白衣送酒
8	別億萬愁	시름곳 가량이면 洗盞更酌
9	綠陰	우리는 술먹기 조코 글짓기 좃코 第一날기 조흔 썩는 綠陰時節
10	田家	아마도 太平한 百姓은 田家인가
11	黃鶯	엇지타 霜凜雪寒제홀 넌들 짐작 못홀리

12	惜春	至今에 綠陰芳草勝花時라 다시 이어
13	種菊	淵明이 九月 九日 東籬下에 케고 케야 忘憂物에 등등 띄우던 菊花만 모종
14	行樂	아마도 우리 行樂한 好時節은 無窮無盡
15	佳色	아마도 千古의 陶淵明은 나의 知己
16	菊花	아마도 凌霜高節은 菊花인가
17	秋風	우리난 秋夜長 殊未央을 利用하야 靑灯을 可親
18	芭蕉	우리는 中心이 日日新함을 못느껴
19	秋懷	아마도 秋人의 秋懷난 秋天인가
20	秋聲	아마도 聲在樹間하니 秋聲인가
21	江湖樂1	아마도 三公不換此江山 이를 즐겨
22	江湖樂2	至今에 風月不用一錢買하니 이를 즐겨
23	江湖樂3	夕陽에 隨意高飛隨意躍하니 이를 즐겨
24	江湖樂4	밤중만 只在蘆花淺水邊하니 이를 즐겨
25	江湖樂5	우리는 家在江南黃葉村하니 이를 즐겨
26	江湖樂6	손들어 笑指蘆花月一般하니 이를 즐겨
27	江湖樂7	두어라 巖上無心雲相逐하니 이를 즐겨
28	江湖樂8	나홀노 綠萍身世白鷗心이니 이를 즐겨
29	長生術	아마도 金丹消息은 心工인가
30	是神仙	自古로 長生不死는 虛言이라 無病코 健康홀 써가 神仙인가
31	閒事業	아마도 山中處士의 한가흔 事業은 이 썬인가
32	好八字	술취코 海棠花下에 戲兒孫하니 그를 즐겨

위의 표는 『양춘집』에 실린 시조의 종장만 모은 것이다. 1번 〈만정환엽〉이 경우 “술잡고 慇懃이 勸하난 친구의 마음을 보면 人人不變”으로 끝나고 있다. 서술어를 누락한 채 마치고 있는 다소 어색한 형태이다. 우리말의 어법상 말미에 ‘하노라’와 같은 표현이 덧붙어야 한 편의 시로서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양춘집』에서는 11번 성암생 천동호의 〈황앵〉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있어서 독서물로 향유하기에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들이 모두 시조창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조창은 가곡창과 같은 시조시를 노랫말로 하지만 흔히 종장 마지막 구를 생략

한다.²⁰⁾ 이는 시조창의 음악적 형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어의 어법상 종장의 마지막 구에는 흔히 그 문장을 마무리하는 서술어가 놓이는데, 시조창 사설은 이를 생략하기에 그 문장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불안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 1922년 선교사 제임스 게일은 시조창 가집 『남훈태평가』를 번역하며 종장 말구가 생략된 것에 대해 “마지막 부분에서는 끝맺지 않고, 다 표현하지 않고, 그 생각을 마치 허공에 매단 듯이 남겨 둔다. 이것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형식”²¹⁾이라고 한 바 있다. 게일은 당대 조선의 문화에 상당한 정도로 식견이 있었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위와 같은 표현으로라도 시조창 사설의 어색한 시 형식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종장 말구가 생략된 시조창은 노래로 감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사설만을 떼어 내어 한 편의 시로 감상하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형태이다. 『양춘집』 소재 시조들 중 종장 마지막구가 생략된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 작품들이 시조창을 전제로 창작, 향유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음악 용어와 장가를 통해 본 『양춘집』의 특성

1) 음악 용어를 통해 본 『양춘집』의 특성

『양춘집』 소재 시조가 낭송을 위한 것인지, 가창을 위한 것인지 그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병기되어 있는 음악 용어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양춘집』에 수록된 시조 중에는 ‘男唱, 詩調, 平調, 畵南 詩

20)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212쪽.

『남훈태평가』에 수록된 작품들도 대부분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있으며, 김호성의 『시조창 백선』(수서원, 2002)에 수록된 100수 중 85수의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있다.

21) (In such a verse as this we have neither rhyme nor assonance, but we have a regular succession of ups and downs of intonation, while the end, unfinished, unexpressed, leaves the thought as though hanging in mid air. This is a favorite form of Korean composition. J.S. Gale, “Korean Songs”, *The Korea Bookman*,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2, p.14.

調'와 같은 용어가 함께 제시된 작품들이 있다.²²⁾ 선행연구에서는 “시조창의 곡조명을 나타냄과 동시에 시를 창작하는데 필요한 형식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이 작품을 노래를 부르겠다는 의도보다는 시조 작품을 곡조에 맞추어 창작”²³⁾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음악 용어들이 창작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연행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들은 한결같이 음악으로 연창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男唱’이란 ‘남성 가객이 부르는 창’으로 현행 시조창 중에 ‘남창지름시조, 편지름남창시조’ 등이 있다. ‘詩調’는 ‘시조창’으로 부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平調’는 향악 악조 중 하나로 ‘높은 조’인 ‘羽調’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낮은 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²⁴⁾ 또는 『양춘집』에서 이 ‘평조’가 사용된 것은 15번부터 20번 사이의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은 『신문계』 1913년 10월호에 연속으로 실렸던 것들이다. 이 5수는 모두 천소자의 작품인데 이 중 17번 작품 〈추풍〉에만 ‘죽난시조’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평조’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평조’는 악조로서의 평조가 아니라, ‘죽난시조’와 구별되는 ‘평시조’ 곡조를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죽난시조’는 시조창에서 사설시조창을 말하기 때문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촘촘한 가락으로 주위 섬기듯이 노래하기에 주음시조, 주심시조, 죽는시조라고도 한다. 어느 쪽이든 ‘남창, 시조, 평조, 죽난시조’는 모두 시조창을 부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음악 용어로서 『양춘집』이 시조창을 전제로 한 가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 시조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신문계』의 기록이다. 앞의 표1 〈『양춘집』 소재 작품〉에서 제시한 『신문계』의 표제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계』에서는 시조를 소개할 때 그 표제어로 ‘朝鮮歌曲’, ‘歌曲’, ‘歌

22) 이에 관해서는 앞의 표1 〈『양춘집』 소재 작품〉에서 밝혔다.

23) 배은희, 앞의 논문, 86쪽.

24) 김영운, 앞의 책, 37쪽.

曲(詩調)’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잡지의 편집진이 시조를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일관되게 ‘가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가곡이 가곡창의 줄임말인 것은 자명하다.

‘시조’가 아니라 ‘가곡’이라고 명한 것은 이들이 시조와 가곡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춘집』의 편찬자인 최찬식은 太華山人이라는 필명으로 1917년 4월 『조선문예』 1호에 「고금가요의 연혁」을 발표하였다.²⁵⁾ 여기서 그는 가곡에 대해 “시조와 동일한 腔調이로되 단 가곡은 우조 계면의 장단이 太緩하야 唱調가 不同함으로 왈 가곡이라 함이오”라고 하였다. 즉, 가곡과 시조는 동일한 강조이되 다만, 장단이 느리고 빠른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편집진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조선가곡’이라는 제목 아래 시조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신문계』 편집진에게 있어 시조는 가곡창 혹은 시조창으로 부르기 위한 시조시였다고 할 수 있다.

2) 수록 장가를 통해 본 『양춘집』의 특성

『양춘집』의 성격은 시조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긴 노래들의 성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춘집』에는 30수의 시조 외에도 긴 노래〈老圃寒香〉, 〈皐皐天邊〉, 〈道德歌〉가 들어 있다. 〈노포한향〉은 가집의 맨 앞〈만정황엽〉뒤에 바로 놓여 있고, 〈고고천변〉은 〈노포한향〉의 뒤에 연달아 놓여 있다. 그리고 〈도덕가〉는 가집의 말미에 놓여 있다. 현재의 체제로 본다면 가집의 서두와 말미에 긴 노래를 둔 것이다.

〈노포한향〉은 작품 서두에 ‘打令’, ‘一狂者’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작가가 누구

25) 태화산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학계의 입장이 나뉘어 있다. 진동혁과 이상원은 최영년이라고 보았는데 최원식, 한기형, 김홍련은 최찬식으로 본다. 김홍련은 『신문계』 1913년 9월호의 목차에는 ‘신작창가 : 근·해동초인’이라고 적고, 본문에서는 ‘신작창가: 근·태화산인’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태화산인은 최찬식의 필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9-20쪽 참조.

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 작품은 “에라 두어라 에라 두어라 老圃寒鄉이 菊花로구나”라는 구절이 후렴구로 반복되는 분장체 형식의 긴 노래이다. 후렴구가 있다는 점과 노래 서두에 ‘타령’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창을 전제로 한 노랫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천변〉은 본래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인데 판소리 단가로도 부르고 가사, 잡가, 민요는 물론, 가야금 병창으로도 연주되었다. 현재 유성기 음반으로도 남아 있을 만큼 당대에는 인기가 높았던 노래이다. 널리 유통되다 보니 판소리 단가의 경우에도 창자마다 사설이 조금씩 다르다. 이 중 『양춘집』에 수록된 노랫말과 일치하는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도 후렴구가 발견되고, “호호냥 호호냥 노닌다”로 마치는 것으로 볼 때 가창의 성격이 강한 노랫말임은 분명하다.²⁶⁾ 따라서 『양춘집』의 〈고고천변〉이 어느 장르의 노래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고천변〉 역시 당대의 가창되던 인기 있는 레파토리를 기반으로 한 노랫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도덕가〉는 이본이 무려 67편이나 될 만큼 널리 향유되어 온 노래로, 〈권선가〉, 〈지로가〉, 〈유학지로가〉, 〈권의지로사〉, 〈공부자궐리가〉, 〈퇴계선생 도덕가〉, 〈인택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작가도 이황, 주세붕, 조식, 이이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²⁷⁾ 작품의 이본이 많다 보니 이 가운데에는 독서물로 전승된 것도 있다. 독서물로 전승된 경우는 기존의 〈도덕가〉에 사설을 더해 작품의 길이가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길어진 것이다.²⁸⁾ 하지만 『양춘집』에 수록된 〈도덕가〉는 『창악대강』 소재 〈궁장가〉와 그 길이가 유사하여

26) 『양춘집』의 〈고고천변〉에는 “---가 이 안니냐”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노랫말은 찾지 못했다.

27) 손대현, 「궁장가의 작자 및 명칭 문제와 변이의 양상」, 『국어국문학』 188, 국어국문학회, 2019, 187-189쪽. 박연호, 「퇴계가사의 퇴계소작 여부 재검토」,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8-18쪽.

28) 손대현, 앞의 논문, 207-208쪽.

가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양춘집』에 시조와 같이 수록된 〈노포한향〉, 〈고고천변〉, 〈도덕가〉는 그 문학적 장르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 노래 모두 가창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수록된 30수의 시조 역시 가창을 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陽春集』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 향유 양상 및 그 의미

1. 최찬식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지식인들의 시조 향유 양상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양춘집』은 최찬식이 1916년 단오를 맞이하여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그와 친분이 있는 이들의 작품을 모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제시했던 표1 〈『양춘집』 소재 시조〉에서 『양춘집』 시조 30수의 작가로 명시된 이들은 ①紫霞山人(1수), ②天嘯子(7수), ③性庵生(6수), ④○○生(1수), ⑤東樵生(1수), ⑥一嘯生(8수), ⑦작자미상(6수)로 작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6명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하고 있어 각 인물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중 ①‘紫霞山人’은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號라고 알려져 있다. 최영년은 편찬자인 최찬식의 부친으로 『신문계』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니, 『양춘집』 맨 앞에 수록된 〈만정황엽〉은 최영년의 작품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영년은 『신문계』 1913년 11월호에 〈만정황엽〉외에 〈靑天月〉과 〈陶淵明〉이라는 제목의 시조도 발표하였다. 최영년은 설화집 『실사총담』과 악부시집 『해동죽지』를 편찬하였다.

③‘性庵生’은 천동호(千東嶠)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계』 1914년 1월호에

는 「朝鮮語原因及變化」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그 저자가 ‘惺庵 千東嶠’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성암’은 천동호의 호 또는 필명이라고 추정된다. 천동호는 『신문계』 1권 2호(1913년 5월호)에 ‘성암’이라는 필명으로 〈春風條〉라는 시조를 발표했다. 이것은 『신문계』에 수록된 최초의 시조이다. 그는 천동호, 혹은 성암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계』에 영어를 가르치는 글을 상당수 발표하였다. 1913년 6월호에는 ‘英語’라는 제목으로 大字와 小字를 소개하는데 바로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이다. 7월호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고 간단한 문장과 읽는 법(아이 시 유—I see you.)을 소개한다. 뒤이어 간단한 영문법을 꾸준히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천동호라는 인물은 시조 창작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잡지에 영문법을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신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東樵生’은 앞서 서술한 대로 ‘海東樵夫’로 알려진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일 것으로 추정된다. ④○○生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의 경우 『신문계』에서는 CS生으로 되어 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찬식(Chan Shik)’의 첫 글자로 최찬식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최찬식은 『신문계』와 『반도시론』에 약 110여 편의 기사를 발표하였고, 그의 기사는 주로 기행문, 자연과학 기사, 문예작품, 시사 기사 등이다.²⁹⁾ 『신문계』에 「천연와스(天然瓦斯)」, 「기묘한 식충식물의 일종」, 「白蟻는 可畏의 小動物」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지식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다.

②天嘯子와 ⑥一嘯生은 누구의 호인지 찾지 못했다. 다만 두 인물 모두 ‘嘯’라는 공통된 글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천소자는 자하산인과 작자미상 작품(6수)의 말미에 비평도 남기고 있어 『양춘집』 소재 시조의 창작과 향유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천소자는 『조선문예』 2호(1918.10)에 〈포곡성〉 외 12편의 시조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즉 천소자가

29)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7쪽.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1910년대 활발하게 시조를 창작했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양춘집』 소재 시조 작가는 본명을 밝히지 않아 정확하게 그 면면을 찾기는 어렵지만, 제반 기록을 통해 볼 때, 최찬식, 최영년, 천동호 등 『신문계』에 기사를 제공하던 근대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특히 최영년과 최찬식은 공과 사로 단단하게 엮힌 관계였다. 이들은 부자지간이면서 『신문계』 잡지의 기자로 함께 활동하였다. 최찬식은 신소설은 물론, 신지식을 담은 과학 기사를 쓰던 인물이었고, 천동호는 영문법을 강의하던 지식인이었다. 천동호 역시 『신문계』의 필진으로 최찬식, 최영년과 교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양춘집』에는 『신문계』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지식인들이 창작하고 향유하던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다. 천소자나 일소생 역시 『신문계』에 꾸준히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볼 때, 최찬식과 가까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신문계』에서 문학 관련 부분을 맡아 집필하던 근대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시조는 여전히 노래로서 향유되는 것이었다. 종장 말구를 생략한 것을 볼 때 이는 시조창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악곡, 악조명을 부기하며 그 음악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양춘집』은 잡지에 게재되었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지만, “근대시조론이 형성되기 이전의 작품으로서 노래로 향유되었던 시조가 문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함의”³⁰⁾하고 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음악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전근대적 문화였던 시조를 향유하고 있던 소위 근대 지식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집이다.

이 지점에서 신소설 작가 최찬식에 대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신소설 작가로 잘 알려져 왔지만, 신소설뿐만이 아니라 창가와 가사의 작가이며, 시조를 창작 향유했던 인물이다. 그의 신소설에는 기생이 자주 등장한다. 『농라도』의 여주인공 도영의 부모는 도영을 기생으로 만들어 남의 집 부실이 되기를 바

30) 배은희, 앞의 논문, 79쪽.

랐고, 삼각관계의 한 축인 남정린은 동경에 유명한 기생이었다. 『강명화전』의 주인공 강명화는 당대 실존인물이었던 강명화라는 기생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계』에 발표한 「경성 유람기」에서는 기생조합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화류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 곳곳에 기생을 배치시킬 수 있을 만큼 기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0세기초 기생은 가무를 담당하던 연예인과 같은 존재로 대체로 전근대 문화의 계승자였다. 신소설 작가로서 선두에서 근대문학을 이끌어 갔던 최찬식조차도 전근대적 문화에 두 발을 딛고 있었던 것이다.

2. 1910년대 시조 향유의 의미 : 노래 문화에서 시 문화로의 도정

1926년 최남선의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가 발표되며 시조의 위상 및 향유 방식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부터 1910년대 시조는 대중들에게 노래에서 문학으로 인식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³¹⁾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이는 시조사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며, 실제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1910년대 연구는 1920년대를 도래할 수 있도록 한 징조 찾기에만 지나치게 몰두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즉,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 과정의 역동성을 놓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신문계』와 유사한 시기에 출간된 『청춘』에는 외배(이광수)와 한샘(최남선)의 작품이 다수 들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우리말을 잘 활용하였고, 종장 말구가 생략되지 않은 작품이 대부분이기에 20년대 시조문학론의 전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춘』을 제외하고 1910년대 출간된 잡지 대부분(『조선불교월보』, 『학지광』, 『신문세계』, 『신문계』, 『조선문예』)에 수록된 시조들은 대체로

31) 배은희, 앞의 논문, 92쪽.

종장 말구가 생략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1907년 현존 한국 최초의 음반에는 시조와 가사가 녹음되었고, 1911년 처음 발매된 일축 음반에도 시조가 들어 있었고 20년대 초반에 녹음한 음반에도 기생이 부르는 시조 8곡이 취입되었다. 1918년에 제작된 『조선미인보감』에는 611명의 기생 정보가 들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시조’를 자신의 기예로 내세우고 있다. 이 기생들은 극장에서 요리점에서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자신의 기예를 선보였다.³²⁾ 시조나 가곡이 극장과 요리점의 무대에서 빈번하게 공연되었던 기록은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폐막에 즈음해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가곡경쟁’ 행사를 통해 관객을 모으기도 했다.³³⁾ 1914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잡가집에는 가곡, 가사, 잡가가 두루 실려 있었다. 1926년 7월 첫 ‘조선어의 라디오’에는 ‘조선가곡’이 방송되었다.³⁴⁾ 물론 극장에서나 라디오에서나 잡가가 더 많이 불렸지만, 시조나 가곡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게다가 시조창 가집인 『남훈태평가』는 20세기 초반 외국인들에게 조선을 대표하는 노래책으로 간주되었다. 1900 러시아 재무성에서 발간한 『한국지(Description of Korea)』에 『남훈태평가』가 소개되어 있으며,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 소속 동양고문서연구소에는 『남훈태평가』가 소장되어 있다.³⁵⁾ 1908년 창간된 일본 잡지 『朝鮮』에도 세 차례에 걸쳐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가 일역되었다.³⁶⁾ 그리고 1922년 제임스 게일은 『남훈태평가』를 소개하며 전반부

32) 1907년 서울에 연흥사가 설립되고 이어서 단성사(1907), 단흥사(1908), 장안사(1908), 원각사(1908)이 설립되었다. 1912년 원각사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1914년 연흥사와 장안사가 폐관하였지만 1914년 단성사는 1천 석 규모로 극장을 신축하였다. 단성사와 광무대에서는 여러 갈래의 음악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쇼를 기획하여 공연했다. 권도희, 『한국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115-116쪽.

33) 『매일신보』, 1915. 10. 29.

34) 『시대일보』 1926.7.8.

35)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 「조선후기의 대화구성법 시조: 『남훈태평가』 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334쪽.

를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렇듯 20세기가 되고 나서도 시조창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시조창 노랫말을 모은 가집은 한국의 대표 주자로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종장 마지막 구를 생략하는 창작 방식이 관습적으로 익숙한 형태를 반복했을 따름이지 실제로 불려지기 위해 창작한 것은 아니”³⁷⁾라고 선부르게 단정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춘집』의 경우 수록 작품이 거의 대부분 『신문계』에서 온 것이며, 기존의 가집과는 매우 다른 체제를 갖추었기에 노래하기 위한 가집이 아니라 낭송 문학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집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아니, 1920년대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선입견이 되어 변화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양춘집』이 보여주는 실상은 뜻밖에도 여전히 시조가 노래 문화에 전인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1926년 최남선의 ‘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가 등장할 때까지 시조는 노래 문화에서 시 문화로 옮겨가는 도정에 있었지만, 『양춘집』은 그 양상이 결코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양춘집』의 특성을 논하고 1910년대 시조의 향유 양상 및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양춘집』은 『신문계』 잡지에 수록되었던 창작 시조를 모은 것인데 악곡별 혹은 작가별로 작품을 배치하지 않아 가창을 전제로 하지 않은 문집이라고 소개되었다. 하지만, 수록 작품의 종장 마지막구가 생략되어 있으며, 작품 옆에 ‘남창, 시조, 평조, 줍난시조’등 시조창과 관련된 음악 용어

36) 식민지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공역, 『완역 일본어 잡지 『조선』 문예란』, 문, 2010, 120쪽.

37) 최진희, 「1910년대 시조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6쪽.

가 기록된 것을 볼 때, 또 함께 수록된 장가들이 가창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춘집』은 시조창을 전제로 한 가집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작품 배열의 원리를 찾기 어려운 점 역시, 시조창 계열 가집의 성격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가집의 말미에 있는 ‘海東樵夫’라는 기록을 통해 신소설을 이끌었던 최찬식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가집 뒷장에 있는 ‘丙辰 五月 端陽’이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1916년 5월 단오를 즐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보았다. 『양춘집』 소재 시조의 작가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모든 인물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반 기록을 통해 볼 때, 최찬식, 최영년, 천동호 등 『신문계』에 과학이나 영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했던 근대적 지식인들로 추정된다. 즉 『양춘집』은 1910년대의 근대적 지식인들조차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노래 문화로서 시조를 즐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양춘집』은 1910년대 시조가 낭송 문학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문집’으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래 문화에 견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집’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1910년대는 1920년대 시조부흥론을 준비하는 시기로, 시조가 노래 문화에서 시문학으로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춘집』은 이러한 변화 양상이 균질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다 입체적으로 이 시기를 다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양춘집』 (단국대 도서관 소장)

『매일신보』

『시대일보』

권도희, 『한국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김홍련, 「최찬식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박연호, 「퇴계가사의 퇴계소작 여부 재검토」,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2010.

배은희, 「단국대 소장본 『양춘집』 소재 시조 연구」, 『어문논집』 77, 중앙어문학회, 2019.

손대현, 「궁장가의 작가 및 명칭 문제와 변이의 양상」, 『국어국문학』 188, 국어국문학회, 2019.

식민지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공역, 『완역 일본어 잡지 『조선』 문예란』, 문, 2010,

신경숙, 「고전시가연구와 가집문헌」, 『고전과 해석』 18,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5

아나스타시아 구리예바, 「조선후기의 대화구성법 시조: 『남훈태평가』 가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최남선, 『조선의 상식』, 최상진 해제, 두리미디어, 2007.

최진희, 「1910년대 시조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Analyzing 1910' s Sijo appreciation trends through *YangChoonJip* (『陽春集』)

Kang, Hye-Jung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compiler of the *YangChoonJip* (『陽春集』) as first introduced by Bae Eunhee (배은희) and illustrate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ultimately determining how the general audience appreciated the book's Sijo. By doing this, the paper reveals the impact of the book, deriving it from the method of appreciation. At the very end of *YangChoonJip*, there is a record of Hedongchoboo (海東樵夫); this is Choi Chansik's (崔瓚植) alternate name. Choi was a principal and progressive author in modern fiction during this era. The cover of the book notes the date of compilation, May 5, 1916 (丙辰 五月 端陽); this day is known as Dano (端午), and is Korea's national holiday celebrating the commencement of spring. Therefore, such evidences direct the reader to the fact that the father of modern fiction, Choi, compiled *YangChoonJip* to celebrate Dano (端午).

The determining factor behind the debate of whether a text is a lyrical work or a poem is simply the text itself. The general form of Sijo consists of three condensed lines; however, Sijos in *YangChoonJip* show an absence of a verb in the final sentence. It is appropriate to note that at this time, Sijos that were sung as songs had a general inclination toward omitting the final verb. This key grammatical and textual element contradicts those who choose to view this text as a poem. Furthermore, at the beginning of the text, the author includes musical signals and instructions on how the song should be sung.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mpilation was to enjoy it as a song.

The authors of the poems were considered to be enlightened people in their designated fields, including science and English. It can be seen that even the most progressive and westernized minds still sang songs (Sijo) as a form of entertainment. Considering this, *YangChoonJip* is not evidence proving the transition of songs to poems, but rather evidence showing the retainment of song culture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a fact that Sijos of the early 20th century were at a turning point from being appreciated as songs to poems. Though this is acknowledged, it is invalid to say that all Sijos simultaneously experienced such a shift.

Key Words : *YangChoonJip* (陽春集), Sijo (時調), ChoiChanSik (崔瓚植), ShinMoongye (新文界)

이 논문은 2020년 1월 4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물명(物名)으로 본 근대계몽기 시조 연구*

- 『대한민보(大韓民報)』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

김 형 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대한민보』 소재 시조를 대상으로 사용된 물명을 유형별 분석하여 근대계몽기 시조가 문명개화와 애국계몽 및 자주독립을 주제의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경로를 고찰한 글이다.

『대한민보』는 물명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백과사전적 내용을 지면상에 게재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신래성어문답」, 「이훈각비」, 「명사집요」, 「사전연구초」 등이다. 이들을 통해 『대한민보』가 물명에 많은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시조에 활용된 물명의 분석을 통해 근대계몽기 시조의 주제의식을 파악해야 하는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활용된 물명 분석의 결과로 ‘공간’, ‘기상현상’, ‘인물’, ‘동식물’, ‘기기’, ‘집물’이라는 큰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주제의식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공간과 기상현상’, ‘인물과 동식물’, ‘기기과 집물’군으로 묶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공간’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회복의지를 다지는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당시의 엄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낸다. 결국 ‘공간’과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근대계몽기 ‘자주독립’의 주제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현실을 인식한 자아를 반영하고, 궁·부정의 인물을 돌아보며,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애국계몽’의 의지를 고양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관련 물명들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 상징 기능을 담보하고,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애국계몽’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다.

‘기기’ 및 ‘집물’ 관련 물명들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신문물과 전통적 물명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근대계몽기의 풍속과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권상실의 현실을 타개하고, 자주독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문명개화’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물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주제어 : 『대한민보』, 시조, 근대계몽기, ‘물명’, ‘공간’, ‘기상현상’, ‘인물’, ‘동식물’, ‘기기’, ‘집물’

I. 서론

근대계몽기 문학 작품의 대부분은 시기적 특성상 ‘문명개화’와 ‘애국계몽’ 및 ‘자주독립’을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시기 시조 갈래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그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보』도 이와 같은 내용의 시조를 게재하였던 대표적 매체의 하나이다.

『대한민보』는 발행주체가 ‘대한협회’인 신문이다. 1909년 6월 2일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31일까지 총 357호에 걸쳐 발행되었다. 『대한민보』는 그 발간 시기가 다른 신문에 비해 늦었던 만큼 이전에 발간된 여러 매체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고, 창간부터 폐간 시기까지 소설 란과 언어정리사업 란을 고정하여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시사만화」나 「풍림」과 같은 시사비평 란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¹⁾

『대한민보』 소재 시조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율격적 변이를 다룬 연구²⁾

1) 全誠奎, 『대한민보(大韓民報)의 언어정리사업과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쪽.

2) 권순희는 『대한민보』 소재 시조 종장의 변주를 ‘내적 휴지로 연결되어 있던 종장의 둘째 음보가 점차 독립된 음보로 확장되어 가는 양상’으로 해석하였다. “『대한민보』 소재 시조들의 종장이 이와 같이 율격으로 변주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종장의 율격 통어력이 상당히 약화되

와 그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연구³⁾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시조들에 사용된 물명을 통해서 그 주제의식이 표출되는 양상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없다. 『대한민보』 소재 시조가 근대계몽기 우리 문학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작품에 쓰인 물명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주제의식이 표출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보』 수록 시조를 대상으로 작품에 사용된 물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근대계몽기 시조가 문명개화와 애국계몽 및 자주독립을 주제의식으로 삼게 된 경로를 고찰하는 데 있다. 근대계몽기 문학 작품의 주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논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대한민보』 수록 시조 작품에 사용된 물명을 유형별로 범주화시킴으로써 주제의식에 통하는 경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대한민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먼저, 역사적 대격변기였던 1909년과 1910년을 장식했던 일간지이면서 창간부터 폐간까지 시조 작품을 270여 수나 게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조의 형식과 내용에 한시 등에서 차용한 부분이 있어서 근대계몽기 시조의 우리 전통 계승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보』에는 국주한중체를 비롯해 근대계몽기에 새롭게 시도한 창작 방법과 게재 란 등 흥미로운 대목을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權純會, 「근대계몽기 시조의 율격 변주 양상」,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종장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회, 2012, 560쪽. / 한편, 조해숙은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종장 제2음보는 고시조에 비해 반으로 음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 결과 제1음보와 제2음보 사이의 비대칭에서 야기되는 시조 일반의 시적 긴장은 한층 완화되었으며, 종장 구성 방식에서 어순 도치에 의한 의미 완결이라는 요소도 그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결국 「『대한민보』 「歌謠」란에 발표되었던 시조들은 형식 특징 면에서도 시조의 갈래 특성을 여전히 노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조해숙, 「『大韓民報』 시조에 나타난 계몽기 시가의 전환과 대응 양상(2)」-종장의 형식 변화와 그 의미-, 『韓國詩歌研究』 36, 한국시가학회, 2014, 208쪽.

3) 김승우, 「근대계몽기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위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학회, 2006.

있기 때문이다.

물명의 유형 분류 기준은 『대한민보』 「가요」와 「청구신요」란 소재 시조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시어를 분석하여 유사한 물명들을 모아 범주화하였다. 다만 본 논문에서 언급한 물명과 시어의 차이는 ‘구체’와 ‘추상’으로 규정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추상적 시어들은 되도록 배제하고, 동양 전통 유서류(類書類)의 일반적 항목 분류 기준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에 입각⁴⁾하여 해당 물명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간’, ‘기상현상’, ‘인물’, ‘동식물’, ‘기기(機器)’, ‘집물(什物)’이라는 큰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주제의식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공간과 기상현상’, ‘인물과 동식물’, ‘기기(機器)와 집물(什物)’군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각각의 물명 유형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물명과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상관성

『대한민보』 「가요」란에 시조가 처음 실린 것은 1909년 9월 17일 81호부터이다. 그리고 1909년 12월 12일 150호까지는 「가요」란에 실렸지만, 1910년 1월

4) 동양의 전통 백과사전인 ‘유서’는 일반적으로 ‘천지인 삼재’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한다. 중국 최대의 유서인 『홍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1725)도 천문을 기록한 ‘역상회’편(건상·세공·역법·서경), 지리·풍속의 ‘방여회’편(건여·직방·산천·변예), 제왕·백관의 기록인 ‘명륜회’편(황국·궁위·관상·가법·교의·씨족·인사·규원), 의학·종교 등의 ‘박물회’편(예술·신이·금충·초목), 문학 등의 ‘이학회’편(경직·학행·문학·자학), 과거·음악·군사 등의 기록인 ‘경제회’편(선거·전형·식화·예의·악률·음정·상형·고공)의 6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민구 외, 『세계의 백과사전』, 한국문화사, 2016, 50쪽.

5) 본 연구자는 물명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문명’, ‘독립’, ‘자유’, ‘민족’, ‘동포’, ‘국가’, ‘조선’, ‘대한제국’, ‘한반도’, ‘삼천리’ 등 근대계몽기 문학 작품에 구현된 주제의식을 확연히 노출하는 시어들은 물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강산’, ‘금수(禽獸)’, ‘조목’ 등 자연과 연관된 광범위한 추상적 시어들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5일 165호부터는 수록된 란의 제목이 「청구신요(靑邱新謠)」로 바뀌었고, 이는 『대한민보』 폐간 때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시조 작품들의 제목이 1910년 6월 8일까지는 한자 일색⁶⁾이었지만, 6월 9일자 작품 〈백설도 百舌鳥〉부터는 국주한중체(國主漢從體)가 사용되었다.

『대한민보』는 신문의 본령인 보도와 논설 이외에도 물명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백과사전적 내용을 지면상에 게재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한자어 위주의 신생어를 소개하고, 그 용법을 문답체로 설명한 「신래성어문답(新來成語問答)」⁷⁾이다.

問, 免許의意義는如何

答, 免許(日語메ㄴ교)는官許又는公認의意義니例如免許水先人이라云흠은海上航路의難易遠近을 知悉하야官廳試驗에及第하야官許를得호는水上引導者를稱흠이라⁸⁾

이상과 같이 「신래성어문답」에서는 한자어 ‘면허’의 뜻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해 답하면서 일본어까지 예로 들며, 적당한 용례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란이다. 「신래성어문답」은 1909년 6월 13일 제2호부터 1909년 11월 28일 138호까지 꾸준히 게재하였는데,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1면에 배치하였던 거개의 근대계몽기 신문과 마찬가지로 이를 1면에 배치할 만큼 『대한민보』에서

6) 이례적으로 1910년 4월 21일자 작품 제목 〈눈물〉에는 한글, 1910년 5월 14일자 작품 제목 〈하레星〉과 1910년 5월 22일자 작품 제목 〈決斷코〉에는 국한문혼용체가 사용되었다.

7) 「신래성어문답」 란은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었던 법률 규칙을 번역·소개한 난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용어는 법, 행정, 경제, 문화, 학문 등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중략) … 민중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용어들을 각각의 영역에서 선별해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각 영역의 소통구조를 이해하고 여기에 적극 가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신래성어문답」 란은 계몽 사업의 일환이었다. 全誠奎, 앞의 논문, 18쪽.

8) 『大韓民報』 1909년 10월 15일, 1면.

그 중요도가 높았던 란이다. 물론 여기에 실린 어휘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유입되어 사용된 것들이지만, 그 형식은 동양의 전통적 물명 해설방식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이훈각비(俚訓覺非)」란이다. 여기에서는 한자의 잘못된 뜻과 훈을 바르게 설명하고, 잘못된 용례도 함께 설명⁹⁾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羔…양삿기고라흠이(正)

▲字義가洋子 | 니염소고라흠은(訛)

德…덕행덕이라흠이(正)

▲字義가行道有得이니큰덕이라흠은(訛)

璧…둥근옥벽이라흠이(正)

▲字義가 瑞玉이라圓以象天이니구슬벽이라흠은(訛)¹⁰⁾

「이훈각비」란 역시 주로 1면에 게재되었으며, 『이아(爾雅)』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인 물명과 관련 유서류 저술과 더불어 그 목적과 효용성을 함께한다. 「이훈각비」는 창간호부터 1909년 9월 16일 80호까지 연재되었다.

셋째, 우리말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유도한 「명사집요(名詞輯要)」이다.

▲ 김치	(醃菜)
▲ 기와ㅅ골	(瓦壟溝)
▲ 그리마	(蠅嫂)
▲ 것겹질	(硬皮)
▲ 가자	(食興) ¹¹⁾

9) 김승우, 앞의 논문, 191쪽.

10) 『大韓民報』1909년 6월 2일, 1면.

11) 『大韓民報』1909년 10월 1일, 1면.

이상과 같이 「명사집요」에는 음식물, 장소, 곤충, 식물, 도구 등을 일컫는 우리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제시함으로써 지식 확산은 물론 바른 언어생활의 정착에 힘썼다. 이처럼 한글 자모순으로 매회 서너 개의 어휘를 연재한 「명사집요」는 앞서 언급하였던 「이훈각비」의 성격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사집요」 역시 1면에 게재되었고, 1909년 9월 28일 90호부터 1910년 1월 5일 165호까지 연재되었다. 이상의 「이훈각비」와 「명사집요」는 물명의 설명방식을 상호 보완하면서 조선후기 유서의 전통과 그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연(蚰蜒)>은 『아사소』에 이르기를 ‘지네’와 닮았고, 누런색이면서 가늘며 길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땅지네”이고, 『본경』에 말하기를 남쪽 지방의 여름철에 습지에서 자라는데, 발이 없고, 길이는 두세 치[寸]이며, 크기는 마치 비너만 하고, 다리와 등은 검은 갈색이다. 돌아다니는 곳에 흰 침을 토하는데, ‘지네’와 ‘달팽이’를 만나되, 침으로 땅에 경계선을 그으면,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사람 머리의 기름 냄새를 맡으면, 사람 귓속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그 다른 이름인 ‘토연’이나 ‘입이(그리마)’ 등과 더불어 서로 들어맞는다. 그러나 발이 없고 침을 토하는 놈이 어떻게 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또 정강성이 이른바 ‘인연(蟬衍)’은 뒷걸음질 친다고 한 것과 또 ‘노래기’의 무리 중에서 마디가 가늘면서 냄새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토연’, ‘입이’, ‘인연’, ‘령궁(그리마)’, ‘부우(그리마)’, ‘늑니(그리마)’, ‘육지(그리마)’와 같다.¹²⁾

이상은 유희(柳僖, 1773~1837)의 『물명고』 중 ‘그리마’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마’의 모양, 생태, 습성 등을 설명하고, 끝부분에 유의어를 실었다. 『대한민

12) 蚰蜒 爾雅疏云 象蜈蚣 黃色細長 然則是罔진의 而本經則曰 南方夏月濕生 無足 長二三寸 大如釵 股背黃黑 行處吐白涎 遇蜈蚣及蝸 以涎畫地 則不敢動 聞人髮脂油香 入人耳中 此與其別名吐涎入耳等相符 然無足而吐涎者 顧安能入耳? 又鄭康成所謂蟬虫+行郤行者 又以蜉蝣之節細不臭者 摠之不可曉 吐涎 入耳 蟬虫+行 蜉蝣 蚱蜢 蚯蛄 蛸蛄 全. 유희 지음/ 김형태 옮김, 『물명고』(상), 소명출판, 2019, 277~278쪽.

보』의 「이훈각비」가 설명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명사집요」는 물명의 유의어를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보』의 물명 관련란들은 우리 물명 유서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전연구초(辭典研究草)」이다. 이 란은 한글 ‘가’부터 시작해서 각 글자의 음과 한글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어와 뜻풀이를 정리해둔 것이다. 1910년 1월 16일 175호부터 1910년 5월 10일까지 1면 상단에 연재하였다.

가字部 (그아슴품)

가가 가	往이니現在詞 △往을命호는略詞
가가	家家 니집집
가가	假家는헛집 △小商店의俗稱
가가대소	呵呵大笑 니크게웃는것
가거 가거라	往을命호
가거지단	可據之端이니可히證據호는事端
	

하호 하호리니와 大濁이니심히호리기로

本事典研究草를 讀者僉彦에게供覽호이已於焉間四個月에我正音中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等音과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等音의頭辭는業已研
究掲載인바나以下諸音은現今間姑히休掲호았다가從後續載호것사오니愛讀 諸位
는照諒爲要¹³⁾

이상은 「사전연구초」 첫 연재분 서두와 마지막 연재분 말미 부분이다. 첫 연재분을 통해서는 「사전연구초」가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관련 란의 물명서적 성격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재분을 살펴보면, 4개월간의 사전 편찬 준비 작업을 잠시 쉬었다가 속개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실현되

13) 『大韓民報』 1909년 10월 1일, 1면.

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상의 예들은 『대한민보』가 사전 편찬 작업 등을 통해 물명 정리 작업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또한 1909년 7월 10일 25호부터는 물명과 연관 있는 란들이 모여서 1면에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이 점도 그러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보』에서 한시를 수록한 「염(艷)」과 「사조(詞藻)」란 등에 물명 관련 5언시나 7언시를 적지 않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물명에 대한 관심과 시조에 사용된 물명이 상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심지어 시조가 게재된 같은 일자에 「염」과 「사조」란의 제목이나 소재가 일치하는 경우¹⁴⁾도 있다. 아울러 학이 등장하는 1면의 시사만화에 학을 소재로 삼은 시조¹⁵⁾를 수록한 경우도 있어서 『대한민보』가 사물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물명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후 시사만화에도 각종 동식물이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훈각비」의 게재 중단 시점과 시조를 수록한 「가요(歌謠)」란이 1909년 9월 15일부터 등장함으로써 서로 맞물려 있고, 이후에 「가요」란이 「명사집요」란 등 물명 소개란과 같은 지면에 거의 연결되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보』 소재 시조들도 작품의 시상을 전개하고, 독자에게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물명을 적극 활용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는 매우 다양한 물명이 등장하며, 이들은 근대계몽기 시조가 지닌 주제의식의 전달 통로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이러한 예로 1910년 6월 5일자 ‘청구신요’에 실린 시조 〈喜雨〉와 ‘사조’에 실린 5언시 〈甘雨〉 등이 있다.

15) 『대한민보』 「가요」란에 첫 시조 〈大團結〉이 게재된 것은 1909년 9월 15일이므로 아래의 시사만화 소재 시조가 『대한민보』에 게재된 최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萬里長天 멀고먼 뜻 野草中에 어이홀노 / 九阜秋風 憂然聲을知音 홀자 바이업서 / 아희야 함부로 嘲弄마라 風聲草木에 너먼저 놀라” 『大韓民報』 1909년 8월 24일, 1면.

따라서 이러한 물명과 시조의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분석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공간과 기상현상: 자주독립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구현된 ‘공간’은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기상현상’은 그 빈도수에 따라 ‘바람’, ‘비’, ‘달’, ‘눈’, ‘구름’, ‘해’, ‘파도’, ‘안개’, ‘우레’, ‘서리’, ‘이슬’, ‘번개’, ‘얼음’, ‘헬리혜성’, ‘흰 무지개’ 등이 등장한다.

항목	유형	내용
공간 ¹⁶⁾	현실	산(1·11·27·29·31·41·61·73·83·102·117·134·135·147·156·157·159·166·169·174·176·179·188·196·198·206·225·230·238·242·246·253·255), 강(1·27·53·129·146·162·166·179·186·212·230·231·248·253·255·266), 바다(1·7·15·68·73·98·99·114·156·206·215·218·222·233·239), 집(4·16·79·100·102·119·236), 동서대주(1·14·97·99·195), 청구(89·121·132·139·191), 무덤(134·169·198), 밭(205·232·254), 사찰(54·249·258), 한양성(29·135·146), 연못(33·242·244), 백제성(272·273), 선농단(182·183), 샘물(203·209), 시냇물(239·249), 압초(98·256), 주가(158·162), 한단(111·117), 강촌(250), 구미(206), 궁궐(135), 들판(242), 만리장성(127), 모래벌(79), 무이9곡(203), 비원(204), 삼선평(191), 섬(53), 세검정(268), 장안(6), 장원(97), 전원(259), 창의문(268), 청량사(242), 초월(99), 칠원(111), 한산도(217), 호수(222)
	가상	6국(7·210·231), 마굴(78), 무릉도원(186), 발설지옥(138), 복두(22), 수라장(4), 오작교(263), 우주(134), 은하수(263)
기상현상 ¹⁷⁾	바람	3·10·16·21·23·25·28·32·41·47·58·62·72·79·94·97·99·102·105·106·108·111·115·117·126·132·141·145·149·150·154·158·160·165·174·178·179·183·184·186·187·190·194·201·213·226·232·234·242·245·247·249·254·259·261·268·269

비	16·23·32·58·79·102·126·135·143·150·155·158·165·168·176·178·179·187·193·194·196·201·203·205·207·220·223·226·231·232·234·238·239·243·244·245·246·247·250·254
달	12·34·35·56·61·62·80·90·101·123·124·125·149·174·187·214·229·246·249·263
눈	59·60·61·76·80·91·93·94·96·101·102·106·108·115·145·193·199
구름	25·41·98·126·135·155·187·193·194·223·244·246·251·271
해	13·21·34·41·85·106·126·141·161·229·255·272·273
파도	7·8·21·25·73·98·99·161·239·248
안개	41·98·220·244·245·248
우레	49·58·68·85·161
서리	21·41·102
이슬	143·186·265
번개	27·49
얼음	66
헬리헬성	190·195
원무지개	161

- 16) '공간'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산'은 태산(1·166), 삼각산(11·230), 태백산(31·102·238), 구의산(41), 서산(61·255), 동령(61), 비로봉(73), 남산(83·147·196), 북악산(135·196), 청산(159·174·188·198), 북망산(169), 백악산(179), 염산(206), 종남산(29·253) / '강'은 물(27), 오강(53·129), 역수(117·156·225), 한강(146·162·166·179·230·253), 금산(157), 위수(176), 청강(186), 역라수(212), 동류수(255), 황하수(266) / '바다'는 창해(7), 해외(15), 동해(73·218), 대해(98), 오양(99), 탕해(206), 칠산바다(215), 대해양(233) '동서대주'는 오대주(97), 동서양(195), 육대주(1·99·195) / '집'은 초당(4·102), 큰집(100·236) / '사찰'은 영소보전(54), 범당(258) 등이다.
- 17) '기상현상'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한 범주이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바람'은 추풍(3·10·21·261·269), 청풍(218·245·259·261), 광풍(108·190·194), 동풍(115·158·165), 춘풍(28·183·184), 삭풍(62·268), 서북풍(47·105), 남풍(232), 표풍(186), 양풍(247) / '비'는 요우(246·250), 장맛비(244·254), 폭우(196·232), 가을비(32), 봄비(165), 가랑비(176), 꽃은비(238) / '달'은 초승달(80·90·214), 명월(56), 새벽달(62), 중추월(12) / '해'는 일로(13·106·255), 낙일(272·273), 사일(21), 일출(126) / '파도'는 박랑(7·21·161), 풍랑(8·73·98) / '눈'은 싸락눈(193) 등이다.

‘공간’과 관련하여 『대한민보』 소재 시조들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공간이 가상공간보다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현실 공간 중에서 ‘산’, ‘강’, ‘바다’ 등의 물명 출현 빈도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셋째, ‘한강’, ‘한양성’ 등 서울 관련 구체적 지명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기상현상’과 관련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작품에서 ‘바람’과 ‘비’가 ‘풍우’의 형태로 함께 쓰여 20세기 초 우리 민족의 수난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는 〈기우(祈雨)〉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 상황을 거슬러 민족적 갈망의 대상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이다. 셋째, ‘헬리헬성’ 등 과학에 입각한 근대계몽기의 소재가 우리 전통 문학 형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공간’과 관련하여 현실 공간이 우세를 보이는 것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했던 근대계몽기 문학이 짙어진 소명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만곡萬萬曲

종남산終南山이, 디려砥礪되고, 한강수漢江水가, 여대如帶토록

▲산만세山萬歲, 슈만세水萬歲에, 만만세지萬萬歲之, 황기皇基로다

▲그중간中間, 이천만二千萬 우리만성萬姓, 려국만만세與國萬萬歲¹⁸⁾

『대한민보』 소재 초기 시조에서 ‘산’은 화자가 현실을 피해 조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등장하는데, 이상의 작품처럼 1910년 작품으로 갈수록 의지를 다지거나 국권상실을 실감케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강’과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화자가 위치한 곳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통로 또는 목표를 의미한다.

‘기상현상’과 연관하여 ‘추풍’과 ‘삭풍’ 및 ‘서북풍’은 당시의 삼엄한 분위기를 드

18) 『大韓民報』 1910년 7월 30일, 1면.

러내는 데 사용된 반면, ‘동풍’과 ‘춘풍’ 및 ‘남풍’은 전통 시조에서 볼 수 있는 춘심지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거나 희망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된 물명이다. 또한 맑은 바람을 의미하는 ‘청풍’과 ‘남풍’이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1910년 작품에 주로 수록된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오히려 국권상실에서 오는 체념의 태도에서 기인한 역설이자, 우리 전통 시조의 시적 구성을 반영한 물명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비’와 관련해서 1910년 말미에 장맛비나 큰비가 물명으로 사용된 것은 실제 계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물명 선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양의 비를 의미하는 물명을 사용함으로써 고통스러운 당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를 기다리는 기우(祈雨)를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는 실제 비나 민중의 자유를 염원하는 물명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하겠다. ‘비’와 관련하여 ‘구름’은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서 민족적 수난을 상징하는 비를 몰고 오는 존재로서 기능한다. 또한 ‘파도’와 함께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서는 온건한 장애물로 등장하여 ‘바람’이나 ‘비’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다만 ‘우레’는 커다란 소리로 인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자각의 계기로 작동할 뿐이다.

‘해’와 관련해서는 지는 해를 의미하는 ‘일몰’, ‘낙일’, ‘사일’ 등을 통해 국운의 쇠함과 쓸쓸한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달’은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존재이자, 악기나 술과 함께 등장하여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으로 기능한다.

●하례星

하례星, 무려보자, 네가丁寧, 오라느나

▲이世上이, 다쳐가도, 나느홀노, 歡迎일다

▲千古에, 弱肉强食하든恨을, 한번풀어

●大審判

東西球, 六大洲에, 圓方趾, 저人類야

▲道德心은 업슬망정 殘忍薄行, 참아홀가

▲차라리 할너星君, 巡廻時에, 一大審判¹⁹⁾

실제 1910년에 지구에서 관측되었던 ‘헬리혜성’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다. 〈하레星〉에서는 혜성을 의인화하여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세상에 응징을, 〈大審判〉에서는 도덕심 없는 잔인한 이기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기원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신문과 잡지 등에 의해 서구의 과학 기술이 소개되고 있었고, 특히 『사민필지(士民必知)』²⁰⁾ 등에 의해 기상 현상의 과학적 원리가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였으므로 근대계몽기 문학의 소재 취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사용된 ‘공간’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회복의지를 다지는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당시의 엄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낸다. 결국 ‘공간’과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근대계몽기 ‘자주독립’의 주제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 『大韓民報』 1910년 5월 14일, 1면 / 20일, 1면.

20) 『사민필지』는 19세기 말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이자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사였던 헐버트(Horner Bezaleel Hulbert, 紇法, 1863~1949)가 지은 세계지리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 교과서이다. 이 책은 1889~1893년 사이에 초판인 한글본이 출간되었고, 1906년에는 수정판, 1909년에는 제3판이 출간되었다. 특이한 점은 1895년에 조선 의정부주사 백남규(白南奎)와 이명상(李明翔)이 한역(漢譯)하고, 김택영(金澤榮)이 찬(撰)하여 조선의정부편사국(朝鮮議政府編史局)에서 한역본(漢譯本)이 간행되었다. 張會見, 「漢譯本『士民必知』의 飜譯 樣相에 한 연구」, 『한국문화』 76,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105쪽.

IV. 인물과 동식물: 애국계몽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구현된 ‘인물’은 ‘현실계’, ‘역사계’, ‘신계(新界)’, ‘가상계’의 인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동식물’은 다시 ‘동물’과 ‘식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빈도수에 따라 ‘동물’에는 ‘날짐승’, ‘곤충’, ‘길짐승’, ‘상상수(想像獸)’, ‘양서류’, ‘어류’, ‘과충류’가 등장하고, ‘식물’에는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이 포함된다.

항목	유형	내용
인물21)	현실계	동자(40·52·74·83·88·102·137·147·160·202·246·265), 천자(45·89·90·124·135·148·183·207·268), 농부(139·200·221·223·232), 국민(25·95·110·149), 난신적자(3·63·66·92), 노예(57·92·137), 대장부(32·49·77), 매국노(120), 임(115·166·252), 선비(50·125·157), 흉도(67·70·95), 목동(72·158), 목수(16·79), 사공(98·99), 어부(146·176), 지기(40·96), 청년(144·209), 충신(59·92), 한족(31·65), 공자왕손(214), 국수(116), 광부(104), 귀머거리(85), 노승(251), 맹인(85), 병어리(71), 사령(18), 사우(87), 산림처사(28), 소소배(7), 수전노(22), 역사(68), 역적(65), 의원(131), 초동(72), 필부(45), 함장(248·256)
	역사계	단군(23·31·109·206·229), 초패왕(53·129·227·228), 기자(23·206·229), 진시황(7·21·129), 석가모니(192·258), 편작(131·260), 화타(131·260), 굴원(107), 관운장(228), 나폴레옹(53), 남곤(136), 노균(117), 노련(73), 도연명(259), 마경(241), 마치니(32), 사명당(258), 소동파(56), 소진(210), 수양제(21), 심정(136), 양만춘(1), 오자서(227), 왕개지(22), 원탈탈(22), 이백(241), 이성계(109), 이세황제(129), 을지문덕(1), 장의(210), 죽림칠현(107), 진병(117), 충무공(217), 조자룡(228), 코슈트(32), 한무제(47)
	신계	하느님(44·54·86·193·205·220), 망량(51·64·70), 악마(60·69·114·138), 조화웅(60·80·150), 이매(51·64), 갈천민(200), 뇌공(13), 우녀(263), 전백(13), 하나님(5), 향아(263), 회황인(259)
	가상계	영웅(17·38·46·102·134·170·224·235), 지사(40·57·119·140·198·199·210·269), 호결(35·38·46·57·170), 열사(38·59·92·134), 충명한 자(85)

동물22)	날짐승	두견새(160·164·168·174·198·238), 기러기(15·21·38·47·133), 학(50·56·102·265), 제비(163·167·173), 비둘기(223·243), 까마귀(67·142), 피꼬리(167·202), 닭(8), 박쥐(123), 백로(223), 사냥매(20), 지빠귀(210), 까치(243), 딱따구리(104), 뜰부기(223), 뺨꾸기(188)
	곤충	나비(35·54·76·97·110·145·160·171), 귀뚜라미(6·265·273), 벌(67·76·171), 매미(246·247), 거미(237), 개미(67), 송충이(196), 전갈(141)
	길짐승	말(27·47·228), 소(142·158·223), 두더지(63), 행호(204), 사냥개(20), 원숭이(225), 쥐(123), 토끼(18)
	상상수	봉새(42·50·135·262·271), 용(42·271), 구미호(66), 어룡(215)
	양서류	두꺼비(244), 개구리(223)
	어류	고래(241), 송사리(146)
	파충류	뱀(141)
식물23)	목본	버들(91·115·143·148·149·158·166·167·185·186·259), 소나무(59·61·72·83·93·108·147·196·251), 복숭아꽃(28·143·150·168·171·186·189), 매화(76·80·88·115·188), 오얏꽃(28·143·150·168), 무궁화(132·155·189), 살구꽃(158·168·171), 오동(149·262·265), 느릅나무(18), 단목(102), 두견화(171·174), 뽕나무(18), 측백나무(59), 황감(202)
	초본	국화(28·40), 가라지(105), 기장(137), 대(93), 벼(137), 신이(171), 연(33), 차조(137), 피(105), 혼유(66), 화이화(147)

‘인물’과 관련하여 『대한민보』 소재 시조들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 21) ‘인물’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한 범주이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천자’는 성상(135·148), 임금(90·124), 성주(183), 선왕(268) / ‘하느님’은 상제(44·54), 상천(86·205), 황천(193·220) / ‘노예’는 간노(92), 용노(137) / ‘동자’는 아해(74), 아희(246) / ‘악마’는 마적(69), 마귀(114) / ‘홍도’는 홍역(70), 홍적(95) / ‘호걸’은 인걸(38·57) / ‘초패왕’은 항우(53) / ‘난신적자’는 적자(92) / ‘지기’는 지음(94) / ‘선비’는 사녀(125) / ‘석가모니’는 석가여래(258) 등이다.
- 22) 동물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말’은 천리마(27), 용총(228) / ‘두견새’는 자귀(174) 등이다.
- 23) 식물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버들’은 버드나무(143·148·158·166·167·185·259) / ‘소나무’는 장송(251) / ‘매화’는 황매(188) / ‘무궁화’는 근화(130) / ‘오동’은 벽오동(262) 등이다.

‘신계’와 ‘가상계’보다는, ‘공간’의 경우와 유사하게 ‘현실계’와 ‘역사계’의 실제 인물명이 소재로 많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인물 중에서 ‘동자(童子)’, ‘천자’, ‘단군’과 ‘하느님’, ‘영웅’ 등의 물명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셋째, 마치니, 코슈트 등 서양 인물명이 근대계몽기의 특징 중 하나인 음역어 명칭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동식물’과 관련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짐승’, ‘곤충’, ‘길짐승’과 ‘목본식물’의 물명 출현 빈도가 높고, 작품 속에서 각각 그 전통적 상징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봉새’나 ‘용’처럼 시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던 상상수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개미’와 ‘벌’의 예처럼 긍정적 기능을 지닌 곤충이 부정적 기능의 상징으로 역전된 현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신계’ 인물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물명에서 종교적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미약하나마 근대적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구 혁명가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외국의 예를 빌어 당시 급선무의 하나였던 애국계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秋雨孤燈

風窓은冷冷하고, 雨簷은 蕭蕭한데

▲孤燈一點 짜글지어, 泰西史 朗讀하니

▲아마도 瑪志利 葛蘇士는, 千古에 大丈夫 | ㄴ가²⁴⁾

‘마지리(瑪志利)’는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통일 운동 지도자인 주세페 마치니(Giuseppe Mazzini, 1805~1872)이고, ‘갈소사(葛蘇士)’는 헝가리의 대표적 민족주의자이자 헝가리 혁명의 지도자였던 코슈트 리요시(Kossuth Lajos, 1802~1894)이다. 이와 같은 흔적을 통해 서구 지식인의 예를 들어 애

24) 『大韓民報』 1909년 10월 27일, 1면. 우리말 발음 ‘코슈트’를 참조할 때, 원문 ‘葛蘇士’의 ‘士’는 ‘士’의 오키(誤記)인 듯하다.

국제몽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부족하나마 근대계몽기 언어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음역어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전반부에서는 배의 운행을 책임지는 인물이 ‘사공’으로 등장할 뿐이지만, 후반부에는 군함 등 큰 배의 운항을 책임지는 ‘함장’이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서구 문물 유입에 의한 현상의 일단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그 기원과 유래에 더 천착해볼 필요가 있으나, ‘국민’ 등 일본을 통해 유입된 근대 신조어의 출현도 앞서 2장에서 언급했던 『대한민보』 소재 물명 자료를 통해 앞으로 규명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 밖에 주요 인물들 중 ‘천군’과 ‘단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계’와 ‘가상계’의 인물 중 ‘하느님’, ‘영웅’ 등은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서 구원을 희구해야 할 대상으로 기능한다. 즉, ‘가상계’의 인물은 불특정 인물로서 당시 민중이 염원하고 갈망하던 인물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신계’의 인물들은 근대계몽기라는 특정 시기와 관련하여 긍정적 역할의 인물과 부정적 역할의 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느 시대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시대적 상황에 견주어 ‘가상계’의 영웅이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물명으로 제법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현상이지만, 이는 우리 고전소설에서도 군담계 영웅이 많이 등장하며, 조선후기에 이를 다룬 소설들이 유행하였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흥미로운 점은 ‘동자’의 출현 빈도이다. ‘동자’는 주로 내 마음을 헤아려 술이나 악기를 준비해주는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전통 시조에서 영향을 받아 주로 종장 첫 구에서 감탄사의 구실도 함께 수행한다.

●梅花發

梅花야 너는어이, 雪中和羹 水論하고

▲百花頭上 몬져푸여, 爭春하기 일삼노고

▲아마도, 狂蜂亂蝶 보기슬어, 매양홀노²⁵⁾

동식물의 경우, 이상의 시조에서 ‘매화’는 온갖 풍상을 견뎌내는 사군자의 하나로 묘사되었지만, ‘벌’과 ‘나비’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이미지와 사뭇 다르게 군자의 절개를 방해하는 부정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벌’은 “하루 두 번씩 사는 곳에서 아침저녁으로 밀려들었다 나가는 바닷물처럼 때에 응해 드나들”²⁶⁾ 만큼 성실한 곤충의 이미지를 지녔으나, 이상의 시조에서는 기능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날짐승 가운데 ‘두견새’가 물명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세에 얽힌 중국 촉나라 망제(望帝)의 전설과 이 당시의 상황이 적절히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버드나무’는 봄이 되면 생명력을 되찾는 대표적 계절 식물로서 그 고유한 물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넉넉히 드러내는 물명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사용된 ‘인물’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현실을 인식한 자아를 반영하고, 궁·부정의 인물을 돌아보며,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애국계몽’의 의지를 고양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관련 물명들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 상징 기능을 담보하고,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애국계몽’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5) 『大韓民報』 1909년 12월 23일, 1면.

26) “一日兩衙 應潮汐候”. 이를 ‘봉아(蜂衙)’라 하고, 꿀벌이 벌집을 드나들을 벼슬아치가 아침저녁으로 관아에 드나들에 비유한 말로 쓰며, ‘벌집’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희 지음/김형태 옮김, 앞의 책, 240쪽.

V. 기기(機器)와 집물(什物): 문명개화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구현된 ‘기기’에는 그 빈도수에 따라 ‘교통수단’, ‘병장기’, ‘악기’, ‘계산기’, ‘농기구’ 등이 포함된다. ‘집물’은 ‘식생활’ 관련 물명, ‘주생활’ 관련 물명, ‘의생활’ 관련 물명, ‘종교’, ‘귀중품’, ‘의료’, ‘음악’, ‘취미’, ‘의장(儀裝)’, ‘교육’ 등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항목	유형	내용
기기 ²⁷⁾	교통수단	배(98·99·146·172·186·215·248·256), 화륜선(114·233新), 비행기(14新), 어선(162), 차(211新)
	병장기	칼(3·40·49·51·64·117·128·268), 몽치(7·68·161), 속사포(233新), 포탄(18)
	악기	거문고(61·95·102·149·259·262), 피리(8·158·268)
	계산기	아주(22), 지남철(248)
	농기구	쟁기(200), 솥돌(253)
집물 ²⁸⁾	식(食)	술(52·80·88·94·107·121·127·149·160·172·185·202·241·242·246), 술잔(30·52·88·121·127·166), 인삼(131·137), 녹용(131), 대황(131), 망초(131), 밥(270), 떡(270)
	주(住)	등불(17·32·264), 자명종(9·151新), 솥(66), 솥발(90), 화로(250)
	의(衣)	거울(19·90·199), 대(帶: 253), 부채(213·250), 비단모자(211新)
	종교	가사(251), 경쇠(251), 고깔(251), 목탁(251), 육환장(251), 향(54·192·231·258)
	귀중품	백옥(60·128·137), 황금(22·137), 돈(57), 여의주(271), 은(137)
	의료	백골(159), 백비탕(270), 여기(65), 침(260), 콜레라(13新)
	음악	역수가(161), 영문곡(96), 아양곡(262), 이양가(220), 추풍가(47)
	취미	바둑(116), 바람개비(63), 낚싯대(249)
	의장	태극기(82·98·240)
	교육	서적(22·259·264), 백룡화(33)

27) 기기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배’는 주(舟: 99·146·172), 선(船: 98·186·215), 함(艦: 248·256) / ‘칼’은 보검(3), 참마검(51) / ‘피리’는 만파식적·옥소(8,158) / ‘거문고’는 봉금(262) 등이다.

28) 집물 관련 물명 중에서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나 구체적 물명이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서적’은 교과서(264) / ‘거울’은 조요경(19) / ‘부채’는 청풍선(250) / ‘태극기’는 태극(82·240) 등이다.

‘기기’ 및 ‘집물’과 관련하여 『대한민보』 소재 시조들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륜선’, ‘비행기’, ‘차’ 등 당시의 신문물 명칭이 출현한다는 점이다. 둘째, ‘칼’, ‘몽치’ 등 다소 과격한 물명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염병인 외래어 ‘콜레라’가 사용되었고, 약재 명칭 등의 나열을 활용한 전통 〈약성가(藥性歌)〉 풍의 작품들이 창작·수록되었다는 점이다.

‘기기’ 및 ‘집물’ 관련 물명에는 그 기물의 성격상 의식주 등 주로 현실생활에 쓰이는 물명이 등장한다. 따라서 다른 물명 유형에 비해 특히 ‘기기’에는 근대계몽기 당시의 문물 유입 상황을 잘 보여주는 ‘화륜선’, ‘비행기’, ‘차’, ‘속사포’, ‘자명종’, ‘비단모자(실크햇)’ 등 신문물의 물명이 비교적 많이 등장한다.

●대선大船

대해양大海洋을, 바라보니, 써드러오는, 화륜선火輪船아

▲문명기계文明機械를, 실었나나 速射砲■ ■■■■

▲문노니, 어서밧비 하륙下陸하면 물품物品조사²⁹⁾

이상의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화륜선’, ‘속사포’ 등 ‘기기’와 관련해서는 근대계몽기의 신문물 유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물명들이 등장한다. 한편, 중장의 ‘속사포’ 이하의 생략된 부분을 통해서도 당시 일제 검열의 파급이 도달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한민보』 시조 소재 ‘기기’ 및 ‘집물’ 관련 물명 중에는 근대계몽기에 유입된 신문물과 풍속을 알 수 있는 물명들도 있지만, 우리 전통 시가에 등장하는 물명을 활용한 기법의 시조들도 확인할 수 있다.

●逐虎經

고레라야 말듯거라, 너는 久麼微虫으로

29) 『大韓民報』 1910년 7월 6일, 1면.

▲무삼妖얼 禍胎호야, 無辜生靈 害호는다

▲至今에, 雷公電伯 썰리불너, 一聲霹靂³⁰⁾

●庸醫

人蔘鹿茸이 쫓타해도, 잘못쓰면 傷命호고

▲大黃芒硝가 毒호야도, 바로쓰면 得效로세

▲至今에, 華陀扁鵲 어대가고, 庸醫덜만³¹⁾

●병인病因

복심腹心에, 갑히든병病, 치료治療 할길 바이읍다

▲동의약東醫藥은, 진재陳材되고 서양술西洋術도 무효無效호니

▲원전대, 편작화타扁鵲華陀 다시만나 정문일침頂門一針³²⁾

이상의 시들은 모두 의료와 연관된 물명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이다. 〈逐虎經〉은 전염병 ‘콜레라’의 근대적 물명을 사용하면서도 그 치료법은 구습에 얽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庸醫〉는 의술이 변변치 못한 의원을 비판하면서 약명과 약효 등을 열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만든 〈약성가〉의 전통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 〈병인(病因)〉은 동서양의 처방과 의료가 아무런 효험이 없는 병에 빗대어 국권을 상실한 근대계몽기의 병폐를 던지시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기기’와 ‘집물’에 해당하는 물명을 사용한 시조들은 그 해당 사물의 수효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창작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병장기에 해당하는 ‘칼’과 ‘몽치’ 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상징의 전통적 계승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의 타개내지는 친일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응징을 다짐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30) 『大韓民報』 1909년 9월 30일, 1면.

31) 『大韓民報』 1910년 3월 5일, 1면.

32) 『大韓民報』 1910년 8월 7일, 1면.

●세검정洗劍亭

창의문彰義門, 너머들어, 세검정, 올라가니

▲선왕先王의, 깃치신자취, 산천山川만 울창鬱蒼하다

▲지금至今에, 북풍北風이 취불도吹不到하니, 무검장소撫劍長嘯³³⁾

이상에서 살펴본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사용된 ‘기기’ 및 ‘집물’ 관련 물명들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신문물과 전통적 물명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근대계몽기의 풍속과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권상실의 현실을 타개하고, 자주독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문명개화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물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1909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대한민보』 소재 시조 270여수를 대상으로 작품에 사용된 물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근대계몽기 시조가 문명개화와 애국계몽 및 자주독립을 주제의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경로를 고찰하였다.

『대한민보』는 물명과 연관된 매우 다양한 백과사전적 내용을 지면상에 게재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한자어 위주의 신생어를 소개하고, 그 용법을 문답체로 설명한 「신래성어문답」, 둘째, 한자의 잘못된 뜻과 훈을 바르게 설명한 「이훈각비」, 우리말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유도한 「명사집요」, 넷째, 한글 ‘가’부터 시작해서 각 글자의 음과 한글 어휘에 대응하는 한자어와 뜻풀이를 정리해둔 「사전연구초」이다. 이들을 통해 『대한민보』가 사물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려주는 물명에 시대

33) 『大韓民報』 1910년 8월 17일, 1면.

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조에 활용된 물명의 분석을 통해 근대계몽기 시조의 주제의식을 파악해야하는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한민보』 소재 시조에 활용된 물명 분석의 결과로 ‘공간’, ‘기상현상’, ‘인물’, ‘동식물’, ‘기기’, ‘집물’이라는 큰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다시 주제의식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공간과 기상현상’, ‘인물과 동식물’, ‘기기와 집물’군으로 묶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간’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회복의지를 다지는 목적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당시의 엄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낸다. 결국 ‘공간’과 ‘기상현상’ 관련 물명들은 근대계몽기 ‘자주독립’의 주제 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 관련 물명들은 국권상실의 현실을 인식하고, 궁·부정의 인물을 돌아보며, 과거를 반추함으로써 애국계몽의 의지를 고양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관련 물명들은 우리 문학의 전통적 상징 기능을 담보하고, 암울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애국계몽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기’ 및 ‘집물’ 관련 물명들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신문물과 전통적 물명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근대계몽기의 풍속과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권상실의 현실을 타개하고, 자주독립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문명개화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제의식을 물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다.

(부록) 대한인보 소재 시조 작품명과 물명 일람표

연번	계재란	연도	월	일	호차	작품명	물명 및 비고
1	歌謠	1909	9	15	79	大團結	대산, 하해(河海)
2				16	80	誕英雄	육대주(六大洲), 을지문덕, 양만춘
3				17	81	寶劍鳴	보검, 추풍, 난신, 적자(賊子)
4				18	82	修羅場	수라장, 초당
5				19	83	貴自由	하나님
6				21	84	蟋 ³⁴ 蟀鳴	귀뚜라미, 장안(長安)
7				22	85	滄海維	창해(滄海), 몽치, 박랑(博浪), 육국(六國), 진시황, 소소배(宵小輩)
8				23	86	萬波息笛	피리, 계명(鷄鳴), 옥소(玉簫), 풍랑
9				24	87	自鳴鐘	자명종
10				25	88	秋風蘇	추풍(秋風)
11				26	89	三角山	삼각산
12				28	90	仲秋月	중추월, 축배
13				30	91	逐虎經	콜레라, 뇌공(雷公), 전백(電伯)
14			10	1	92	飛行視察	비행기, 동서대주
15				2	93	秋天一雁	기러기, 해외, 임, 일모(日暮)
16				3	94	新建築	집, 바람, 비, 목수
17				6	96	秋燈閱史	등불, 영웅
18				7	97	一片情神	영웅, 뽕나무, 느릅나무, 포탄
19				8	98	照妖鏡	조요경
20				9	99	鷹犬	사냥매, 사냥개, 사령(使令), 교토(狡兔)
21				10	100	霜令	서리, 박랑(博浪), 사일(斜日), 기러기, 진시황, 추풍, 수양제
22				12	101	守錢虜	수전노, 아주(牙簫), 왕개지(王凱之), 황금, 북두(北斗), 원탈탈(元脫脫), 서적
23				14	102	死中求生	단군, 기자, 바람, 비
24				15	103	彈光陰	
25				17	105	大韓國民	바람, 구름, 파도, 국민
26				19	106	寧死寧死	
27				20	107	千里馬	천리마, 산, 물, 번개
28				22	108	晚節香	국화, 복숭아꽃, 오얏꽃, 춘풍, 산림 처사
29				23	109	登南山	종남산, 한양성
30				24	110	抑阿心	
31				26	111	獨一無二	태백산, 단조(檀祖), 한족(韓族)
32				27	112	秋雨孤燈	바람, 비, 등불, 마차니(Mazzini),

						코슈트(Kossuth), 대장부
33			28	113	無香何	연못, 백룡화, 연(蓮)
34			29	114	收穫去	해, 달
35			30	115	夢豪傑	달, 나비, 호걸
36			2	117	清斯濁斯	
37			3	118	勞勞人生	
38			4	119	英雄產出	백두산, 영웅, 열사, 인걸
39			6	120	美候偶	기러기
40			7	121	痛飲一哭	지사(志士), 칼, 국화, 동자(童子), 지기(知己)
41			9	122	復見天日	서리, 바람, 구의산, 구름, 안개, 해
42			10	123	自由의 價値	봉새, 용(龍)
43			11	124	決心	
44			12	125	因果	상제(上帝)
45			13	126	魂兮魂兮	필부(匹夫), 천자(天子)
46			14	127	國家事業	영웅, 호걸
47			16	128	鎗馬奔騰	말, 기러기, 한무제, 추풍가, 서복풍
48			17	129	生耶否耶	
49			18	130	雷聲電光	우레, 번개, 대장부, 칼
50			20	131	鳳兮鳳兮	봉새, 학(鶴), 선비
51			21	132	斬魔劍	참마검, 이매(魑魅), 망랑(魍魎)
52			23	133	知心青衣	술, 동자, 술잔
53			24	134	勢力勢力	항우, 오강, 나폴레옹, 고도(孤島)
54			25	135	大夢	나비, 영소보전, 옥황상제, 향(香)
55			26	136	情神發揮	
56			27	137	明月依舊	명월, 소동파, 학(鶴)
57			28	138	責錢神	돈, 지사, 노예, 인걸
58			30	139	十月雷	우레, 바람, 비
59			1	140	松耶陌耶	송백(松栢), 열사, 충신, 눈(雪)
60			2	141	初雪	눈(雪), 조화옹, 백옥, 악마
61			3	142	調琴待月	거문고, 달, 동령(東嶺), 소나무, 눈(雪), 서산
62			4	143	萬事歸一	삭풍, 새벽달
63			5	144	頂針	바람개비, 두더지, 난적배
64			7	145	劍	칼, 서리, 이매, 망랑
65			8	146	討逆	역적, 한종(韓種), 여기(厲氣)
66			9	147	人皆誅之	훈유(薰蕕), 빙탄(氷炭), 구미호, 난신, 적자
67			10	148	禽獸不若	벌, 개미, 까마귀, 흉도(凶徒)
68			11	149	鍊椎	쇠몽치, 창해, 역사(力士), 우레
69			12	150	魔賊	마적

70				16	153	無法天地	망랑, 연곡(輦轂), 흉역(凶逆)
71				17	154	啞子自由	벙어리
72				18	155	絶壁松	소나무, 바람, 초동(樵童), 목수(牧豎)
73				19	156	望東海	동해, 비로봉, 노련(魯連), 파도
74				21	157	斫下病枝	신단수, 아해(兒孩)
75				22	158	一陽生	
76				23	159	梅花發	매화, 눈[雪], 벌, 나비
77				24	160	丈夫事業	대장부
78				25	161	何意思	마굴(魔窟)
79				26	162	沙上建築	목수, 모래벌, 집, 바람, 비
80				28	163	梅下煮酒	매화, 달, 눈[雪], 조화옹, 술
81				1	164	椒杯	
82	靑丘新謠	1910	1	5	165	重人道	태극
83				6	166	種松	남산, 소나무, 아해
84				7	167	進進不已	
85				8	168	譬兮譬兮	태양, 맹인, 우레, 귀머거리, 총명자
86				9	169	新國家	상천(上天)
87				11	170	吾不取	사우(師友)
88				12	171	春消息	매화, 동자, 술잔, 술
89				13	172	靑邱春	청구, 천자
90				14	173	初月	초승달, 임금, 겨울, 촛불
91				15	174	梅柳	눈[雪], 매화, 버들
92				16	175	大罵	열사, 충신, 간노(奸奴), 적자(賊子)
93				18	176	松竹	눈[雪], 소나무, 대[竹]
94				19	177	大夢	술, 바람, 눈[雪]
95				20	178	琴	거문고, 국민, 흥적
96				21	179	陽春有脚	눈[雪], 영문곡(郢門曲), 지음(知音)
97				22	180	大和風	바람, 장원(莊園), 나비, 오대주
98				23	181	太極旗	태극기, 대해(大海), 배(船), 풍랑, 압초, 사공, 운무(雲霧)
99				25	182	江船	육주, 파도, 오양, 바람, 초월(楚越), 배[舟], 사공
100				26	183	大廈	집
101				27	184	一大白	달, 눈[雪]
102				28	185	風入松	초당, 학(鶴), 바람, 눈[雪], 동자, 거문고, 영웅
103				29	186	壽民香	태백산, 단목(檀木), 서리, 비
104				30	187	啄木鳥	딱따구리
105			2	1	188	眞天理	괴[稗], 가라지[莠], 서복풍
106				2	189	風雪	바람, 눈[雪], 일모(日暮), 광부(狂夫)

107			3	190	酒中憂	술, 죽림칠현, 굴원
108			4	191	簾風	광풍(狂風), 눈[雪], 소나무
109			5	192	立春	단군, 이성계
110			6	193	惜年	국민
111			8	194	夢中夢	한단(邯鄲), 바람, 칠원(漆園), 나비
112			9	195	一新又新	
113			10	196	舊曆元朝	
114			13	197	驅魔船	화륜선, 마귀, 바다
115			15	198	東風	동풍, 눈[雪], 버들, 매화
116			16	199	對棋	바둑, 국수(國手)
117			17	200	慨世	갈, 진병(秦兵), 역수(易水), 노군(魯軍), 한단(邯鄲)
118			18	201	曠感	
119			19	202	憂世	바람, 집, 지사(志士)
120			20	203	痛罵	매국노
121			22	204	東君歡迎	청구, 술잔, 술
122			23	205	勸學	
123			24	206	蝙蝠	박쥐, 쥐, 달
124			25	207	感君恩	임금, 달
125			26	208	昇平氣像	달, 사녀(士女)
126			27	209	風雲變態	바람, 구름, 일출, 비
127		3	1	210	忘憂物	술, 술잔
128			2	211	琢之磨之	옥, 칼
129			3	212	무제	진시황, 만리장성, 이세(二世), 초패왕, 오강(烏江)
130			4	213	國憂	
131			5	214	庸醫	의원, 인삼, 녹용, 대황, 망초, 화타, 편작
132			6	215	番風	바람, 청구, 무궁화[槿花]
133			8	216	鴈信	기러기
134			9	217	曠感	봉우리, 우주, 무덤, 영웅, 열사
135			10	218	北岳	북악산, 한양성, 구름, 궁궐, 봉새, 비, 성상(聖上)
136			11	219	抑下心情	남곤, 심정
137			12	220	罵倒反奴	금, 은, 옥, 비, 기장, 인삼, 차조, 용노(庸奴), 잠동(蠶童)
138			13	221	魔筆	마귀, 발설(拔舌)지옥
139			15	222	播種	청구, 농부
140			16	223	白髮歎	지사(志士)
141			17	224	毒滅	해, 바람, 뱀, 전갈
142			18	225	世變	까마귀, 소
143			19	226	上天恩澤	버드나무, 도리(桃李), 비, 이슬

144			20	227	青年	청년
145			22	228	早蝶	나비, 바람, 눈[雪]
146			23	229	漁父	어부, 한성, 한강, 배[舟], 송사리
147			24	230	南山鸞頭	남산, 소나무, 화이화(華莢花), 동자
148			25	231	獻壽	버드나무, 성상(聖上)
149			27	232	國民	국민, 오동, 달, 버들, 바람, 거문고, 술
150			29	233	花開結子	바람, 비, 도리(桃李), 조화옹
151			30	234	自鳴鐘	자명종
152			31	235	觀劇	
153			1	236	獨立樹	
154			2	237	春日陰	바람
155			3	238	無窮花	무궁화, 구름, 비
156			5	239	痛哭古人	창해(滄海), 역수(易水)
157			6	240	寒食	금산(錦山), 선비
158			7	241	問酒家	주가(酒家), 비, 동풍, 버드나무, 피리, 소, 목동, 살구꽃
159			8	242	吊忠烈	청산(靑山), 백골
160			9	243	登臨	바람, 두견새, 나비, 동자, 술
161			10	244	白日雷霆	해, 우레, 역수가(易水歌), 백홍(白虹), 박랑, 몽치
162			12	245	打魚換酒	한강, 어선, 주가(막걸리 집)
163			13	246	新燕	제비
164			14	247	杜鵑	두견새
165			15	248	勿絕望	동풍, 봄비
166			16	249	惜別	술, 한수, 임, 태산, 버드나무, 술잔
167			17	250	春愁	제비, 피꼬리, 버드나무
168			19	251	文明氣像	비, 도리(桃李), 살구꽃, 두견새
169			20	252	北邙山	북망산, 무덤
170			21	253	눈물	영웅, 호걸 [한글 작품명]
171			22	254	時乎時乎	도행(桃杏), 신이(莘荑), 두견화(진달래), 벌, 나비
172			23	255	春景	배[舟], 술
173			24	256	燕巢	제비
174			26	257	春愁	바람, 두견화, 산, 달, 자규(子規)
175			27	258	勸人信	
176			28	259	釣翁	가랑비, 어부, 위수(渭水)
177			29	260	무제	
178			30	261	春眠	바람, 비
179			1	262	於余何傷	백악산, 한강, 바람, 비
180			3	263	流芳百世	
181			4	264	판독불가	전체 삭제

182				5	265	親耕歌	선농단, [일장(一章), 후렴, 이장(二章)]?
183				6	266	親耕	봄바람, 선농단, 성주(聖主)
184				7	267	怨東風	동풍, 광풍
185				8	268	錢春曲	전별주, 버드나무
186				10	269	船遊	배(船), 청강(淸江), 복숭아꽃, 이슬, 버들, 표풍(飄風), 무릉도원
187				11	270	半天風雨	달, 구름, 바람, 비
188				12	271	布穀鳥	푸른산, 뽕꾸기, 황매(黃梅)
189				13	272	鋤草	복숭아꽃, 무궁화, 부분 삭제
190				14	273	하례星	헬리혜성, [국한문혼용 작품명]
191				15	274	孰能御之	삼선평(三仙坪), 청구
192				17	275	浴佛日	향(香), 석가(釋迦)
193				18	276	望雨	구름, 싸락눈(霽), 황천(皇天), 비
194				19	277	悶旱	비, 광풍, 구름
195				20	278	大審判	동서양, 육대주, 헬리혜성
196				21	279	松虫	송충이, 남산, 소나무, 북악산, 폭우
197				22	280	決斷코	[국한문혼용 작품명]
198				24	281	啼鳥	청산, 두견새, 지사, 무덤
199				25	282	白髮	거울, 눈(雪), 지사
200				26	283	農夫	농부, 쟁기, 갈천민(葛天民)
201				27	284	禱雨	비, 바람
202				28	285	聽鶯	황감(黃柑), 술, 피꼬리, 동자
203				29	286	憫旱	무이구국, 한천(寒泉), 비
204				31	287	祕苑	비원, 맹호(猛虎)
205				1	288	祈雨	밭, 상천(上天), 비
206				2	289	前進歌	단군, 기자, 구미(歐美), 탕해(湯海), 염산(炎山), [제1장~제3장, 후렴]?
207				5	290	喜雨	비, 천자
208				7	291	관독불가	
209				8	292	勸學	세천(細泉), 청년
210				9	293	백설도 百舌鳥	지빠귀, 소진, 장의, 육국(六國), 지사, [국주한중체 시작]
211			6	10	294	관독불가	비단모자, 차(車)
212				11	295	초흔 招魂	먹리수
213				12	296	선 扇	부채, 청풍
214				14	297	공자왕손 公子王孫	공자, 왕손
215				15	298	구마선 驅魔船	배(船), 칠산(七山)바다, 어룡(魚龍)
216				16	299	초월 初月	초승달
217				17	300	회고 懷古	한산도, 충무공

218			18	301	관독불가	동해
219			19	302	관독불가	
220			21	303	이양 移陽	황천(皇天), 비, 안개, 이양가
221			22	304	전부 田夫	농부, 비
222			23	305	녁행 力行	호수, 바다, 배[船]
223			24	306	농가락사 農家樂事	소, 농부, 개구리, 비둘기, 뚝부기, 구름, 비, 백로
224			25	307	영웅누 英雄淚	영웅
225			26	308	방황 彷徨	역수(易水), 원숭이
226			28	309	턴리 天理	바람, 비
227			29	310	대한자 大韓子	초패왕, 오자서
228			30	311	용충 龍	용충(龍聽), 조자룡, 관운장, 초패왕
229			1	312	상심 傷心	단군, 기자, 해, 달
230			2	313	웅회 雄懷	삼각산, 한강
231			3	314	소향독사 燒香讀史	향(香), 강, 비, 육조(六朝)
232			5	315	룽부단 農夫歎	농부, 남풍, 폭우, 양전(良田)
233			6	316	대선 大船	화륜선, 대해양(大海洋), 속사포
234			7	317	우 雨	비, 바람
235			8	318	조영웅 弔英雄	영웅
236			9	319	대하 大廈	큰 집
237			12	321	지주 蜘蛛	거미
238			13	322	소회 所懷	태백산, 두견새, 굿은비
239			14	323	세류 細流	시냇물, 창해, 비, 파도
240			15	324	태극 太極	태극기
241			16	325	계주 戒酒	술, 이백, 고래, 마경(馬卿)
242			17	326	납당 納涼	술, 청량사, 연못, 바람, 산, 들판
243			19	327	작소 鵲巢	까치, 바람, 비, 비둘기
244			20	328	하 마 ³⁵⁾ 蝦蟆	두꺼비, 장마비, 운무, 지당(池塘)
245			21	329	민우 悶雨	비, 청풍, 안개
246			22	330	제경 霽景	요우(潦雨), 구름, 봉우리, 매미, 아회, 술, 달
247			23	331	선 蟬	매미, 비, 양풍(涼風)
248			24	332	항행 航行	강, 파도, 배[艦], 함장, 지남철, 안개
249			26	333	조선 釣船	강촌, 달, 낚시대, 창계(蒼溪), 바람
250			27	334	고열 苦熱	요우(潦雨), 화로, 청풍선(淸風扇)

251				28	335	방산사 訪山寺	산사(山寺), 고갈, 육관장(六觀丈), 가사, 목탁, 노승, 장승, 구름, 경쇠
252				29	336	회인 懷人	임
253				30	337	만만곡 萬萬曲	중남산, 지러(砥礪), 한강, 대(帶)
254				31	338	민릉 閔農	밭, 장마, 바람
255				2	339	외로 畏老	서산, 일모(日暮), 동류수(東流水)
256				3	340	암초 暗	암초, 배[鑑], 함장
257				4	341	슈화 水火	
258				5	342	공불 供佛	법당, 향, 석가여래, 사명당
259				6	343	귀전원 歸田園	전원, 거문고, 책, 오류(五柳), 청풍, 회황인(羲皇人), 도연명
260				7	344	병인 病人	편작, 화타, 침(針)
261				9	345	입추 立秋	청풍, 추풍
262				10	346	오동 梧桐	벽오동, 봉금(鳳琴), 봉새, 아양조(娥洋調)
263				11	347	칠석 七夕	은하수, 오작교, 우녀(牛女), 달, 향아
264				12	348	권학 勸學	등불, 교과서
265			8	13	349	신추 新秋	벽오동, 이슬, 학(鶴), 귀뚜라미, 동자
266				14	350	축 ³⁶⁾ 성 祝聖	황하수
267				16	351	송별 送別	
268				17	352	세검정 洗劍亭	세검정, 창의원, 선왕(先王), 북풍, 칼, 피리
269				18	353	추감 秋感	추풍, 지사
270				26	354	위생 衛生	떡, 밥, 백비탕
271				27	355	동락대평 同樂太平	구름, 용(龍), 여의주, 봉새
272				29	356	도의 搗衣	백제성, 낙일(落日)
273				31	357	도의 搗衣	백제성, 낙일(落日), 귀뚜라미,

34) 원문에는 ‘蟠(서릴 반)’이지만, ‘蟋(귀뚜라미 실)’의 오기(誤記)이므로 바로잡았음.

35) 원문에는 ‘막’이지만, ‘마’의 오기(誤記)이므로 바로잡았음.

36) 원문에는 ‘죽’이지만, ‘축’의 오기(誤記)이므로 바로잡았음.

<참고문헌>

- 강민국 외, 『세계의 백과사전』, 한국문화사, 2016.
- 權純會, 「근대계몽기 시조의 율격 변주 양상」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종장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46, 청람어문교육회, 2012.
- 김승우, 「근대계몽기 『대한민보』 소재 시조의 위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학회, 2006.
- 『大韓民報』上·中, 亞細亞文化社, 1985.
- 『大韓民報』, 연세대학교 소장본.
- 유희 지음/ 김형태 옮김, 『물명고』(상), 소명출판, 2019.
- 張會見, 「漢譯本『土民必知』의 飜譯 樣相에 한 연구」, 『한국문화』 76,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全誠奎, 『대한민보(大韓民報)의 언어정리사업과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조해숙, 「『大韓民報』 시조에 나타난 계몽기 시가의 전환과 대응 양상(2)」 -종장의 형식 변화와 그 의미-, 『韓國詩歌研究』 36, 한국시가학회,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Shijo(時調)” of modern enlightenment analyzed by “the name of things(物名)”

— Focusing on the “Shijo” in the newspaper of 『Daehanminbo(大韓民報)』 —

Kim, Hyung-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ath wherein modern enlightenment could lead to civilization's enlightenment, patriotic enlightenment, and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consciousness by analyzing the types of objects used in the “Shijo” in 『Daehanminbo』.

『Daehanminbo』 has published a wide variety of encyclopedia-related content on the paper. This shows that 『Daehanminbo』 was very interested in the named. By analyzing the names of objects used in “Shijo”, we can obtain justification for understanding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Shijo” regarding the modern enlightenment. Names for items such as “space”, “weather phenomena”, “people”, “animals and plants”, “machinery”, and “household good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The names related to “space” and “weather phenomena” reflect the negative reality of modern enlightenment and contribute to solidifying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independence”.

The names of objects related to “people” and “animals and plants” reflect the self-awareness of the realities of the nation's deprivation. In addition, by looking back at the positive and negative figures, we can see how the people raised the will of “patriotic enlightenment” by reflecting on the past.

The names of objects related to “machinery” and “household goods” clearly show the importance of the topic of civilization's enlightenment, as they show the customs and life of modern enlightenment by utilizing both western and traditional cultures.

Key Words : 『Daehanminbo(大韓民報)』, Shijo(時調), modern enlightenment, the name of things(物名), space, weather phenomena, people, animals and plants, machinery, household goods

이 논문은 2020년 1월 4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기녀시조에 형상화된 절의와 언어적 인식

고 승 관 *

〈국문초록〉

인간은 주변 환경과의 교유를 통해 의미를 언어에 저장하고 또 타인에게 전달하며 순간의 감정을 여러 언어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때의 언어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보편적 매개체와 인간 사고를 통한 의미전달과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기녀시조에 등장하는 산수경물이나 인공건조물, 그리고 사회적 공간 등이 모두 기녀의 문화적 배경과 당시 사회적 환경의 반영에 의한 의미구조를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관념을 의미망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관점을 시조장르 특히 기녀시조에 적용해 보면 조선조 시대 기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구체적으로 문학 안에 의미존재로서 형상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기녀시조에 등장하는 인간관계나 사회계층적 특징과 구분 등은 단순한 존재적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기녀시조라는 문학작품의 전체적 의미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며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기녀라는 신분계층을 둘러싼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문학작품에서의 의미는 단순히 대상의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존재로서 문예적 가치를 혹은 이념을 표상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절의(節義)’라는 관념은 당시 기녀라는 특수계층의 사고와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언어와 의미, 언어와 관념, 문화적 배경과 의미존재 등이 기녀시조라는 문학 장르 속에서 의상화(意像化)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기녀들이 ‘절의’를 은유적 상징을 통해 이념으로 사유하였으며 문학적 상징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美)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밝혔다.

주제어 : 기녀시조, 절의, 은유, 미적 인식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I. 서론

인간은 언어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 교유를 통해 의미를 언어 속에 저장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며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여러 언어형식으로 표현하곤 한다. 곧 환경과 그 환경을 구성하는 자연물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고 언어 속에 개념이나 관념으로 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언어란 언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존재의 대치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대치를 통해서만 존재는 의미로 변화한다. 즉 의미화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관념이 기호, 넓은 의미로서의 언어로 대체될 때 발생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만 사물이나 사태 혹은 관념은 의미를 갖게 된다.¹⁾ 우리가 어떤 의미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더불어 공유하는 언어를 매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때의 언어는 어떤 국가나 민족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보편적 매개체로서의 언어이며, 이때 형성된 의미는 언어와 인간 사고를 통한 의미전달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사고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발견되거나 형성된 의미는 그 형성 배경에 의하여 다양성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그를 둘러싼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생성된 문학작품에서의 의미는 단순히 대상의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존재로서 문예적 가치를 혹은 이념을 표상한다.

이상의 관점을 시조장르 특히 기녀시조에 적용해 보면 조선조 기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구체적으로 문학 속에 의미존재로서 형상화되어 있음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대상이 의미존재로서 의상화(意像化)되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녀시조에 등장하는 산수정물이나 인공건조물, 그리고 사회적 공간 등이 모두 기녀의 문화적 배경과 당시 사

1) 박이문, 『시와 과학』, 일조각, 1990, 11쪽.

회적 환경의 반영에 의해 의미구조를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관념을 의미망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기녀시조에 등장하는 인간관계나 사회계층적 특징과 구분 등도 단순한 존재적 의미로 서만이 아니라 기녀시조라는 문학작품의 전체적 의미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하며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절의(節義)’라는 관념은 당시 기녀라는 특수계층의 사고와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언어와 의미, 언어와 관념, 문화적 배경과 의미존재 등이 기녀시조라는 문학 장르 속에서 의상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선 그 의상이 표상하는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자 한다. 또한 기녀계층의 생활 속에서 경험지각과 절의라고 하는 관념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로 기녀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특수계층의 기녀라고 하는 특수계층의 문화적·사회적·역사적 환경 속에서 절의를 어떻게 사유하였으며, 특히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문학적으로 상징화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기녀시조에 나타난 이념성과 그 방향성이 어떤 미의식을 형성하여 계층적 보편성을 획득하였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경험지각과 개념적 관념

실천적 경험을 언어적으로 인식할 때 이 경험은 개념으로 정의되며 주관적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기녀들의 생활 속의 실천적 경험은 ‘절의’라는 언어적 개념을 통하여 관념이라는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기녀들의 절의는 당시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일반적

개념을 벗어나 그들만의 계층적·문화적 특수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나이 겨우 열 다섯 얹전하고도 고운 아가씨
 그 이름 장안에서도 으뜸이라오,
 탕아들의 은정은 바다처럼 깊고
 행수기생의 명령은 서리처럼 엄하다오.
 창가에 해가 들면 아침 화장이 급하고
 술고개에 바람 불 제면 저녁 발걸음이 바쁘지만,
 헤어지는 적은 많아도 다시 만나는 이는 드물어
 운우의 꿈만이 님을 괴롭히지요.
 年纔十五窈窕娘 名聞長安第一場
 蕩子恩情深似海 花長威令嚴如霜
 蘭窓日晏朝粧急 松峴風高夕履忙
 相別每多相見少 陽臺雲雨惱襄王²⁾

부안 기생 매창(梅窓, 1573~1610)은 한양으로 상경하였을 때, 선비 유도와 김씨·최씨와 함께 자리를 하였는데, 세 사람이 술에 취해 매창에게 눈길을 돌리자 그녀가 웃으면서 풍류장의 시를 읊으라고 하였다. 위 시는 세 사람이 차례로 시를 짓고 나자 매창이 치졸하고 숨씨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개한 칠언 율시이다.³⁾ 작품을 살펴보면 당시 기녀의 생활과 환경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수 있다. 특히 열다섯이란 어린 나이, 탕아들의 은정, 행수기생의 서릿발 같은 명령 등은 어린 기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며, 이러한 기녀의 삶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적 고뇌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아침이면 화장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손님을 맞이하여야 하는 바쁜 생활과 원하지

2)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259쪽.

3) 한국시조학회 편, 위의 책, 1986, 257~258쪽.

않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 고뇌를 화자는 “운우의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은 기녀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요 삶의 조건으로, 화자는 그 고통을 자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녀들은 현실적 고통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현실적 고통을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⁴⁾ 그것은 아마도 현실의 상황에 대한 긍정과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적 성찰, 의지의 관철이라는 정신적 경계의 개척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곧 절의를 통한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작품을 통해 표현되었으니, 이것은 절의를 사전적 의미의 개념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의에 대한 언어적 인식을 거쳐 내적 성찰과 지각의 확대를 통한 윤리의식으로서의 관념화(觀念化)로 승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면 절의라는 윤리적 요소가 관념적 행위로 나타나 있다.

梨花雨 훗날일 제 울며 잡고 離別호 임
추풍낙엽에 임도 나을 생각는가
철이에 임 離別호고 짐 못 일워 호노라⁵⁾ (梅窓)

위 시조는 매창(梅窓)의 작품으로 그와 애정 관계에 있던 유희경(劉希慶, 1545~1636)과의 이별을 노래한 것이다. 초장에서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면서도 이별의 날을 배꽃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묘사한다. 중장에서는 훗날 시간이 흘러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어도 임이 나를 생각할까

4) 이화형은 그의 연구에서 기녀시조를 통해 기녀들이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통해 인간성의 실존에 맞서 개탄하고 이 부정적 존재상황을 극복코자 노력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화형, 「기녀들의 조소와 신뢰회복 의지」, 『국어국문학』 151, 2009, 280쪽 참조)

5) 김홍규 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902.2, 829쪽.

그리워하며 종장에서는 임과 자신과의 거리를 천리(千里)라는 아주 먼 거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 거리는 시조에서의 문학적 수사⁶⁾로 현실적 공간의 거리이기 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거리(Distance)”⁷⁾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분제도 하에 있던 기녀들에게 사랑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기녀들의 사회적 소외자의 위치에서 오는 부정적 정향은 그녀들에게 행복을 약속했던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 순간 그녀들은 정동 소외자(affect aliens) 혹은 이방인(stranger)이 되었을 것이다.⁸⁾ 그러나 위 시조에서처럼 기녀들은 현실적 고통에 매몰되어 사회에 저항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적 고통을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곧 자신의 선택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끝까지 임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절의(節義)’라는 관념적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를 살펴보자.

漢陽서 떠온 셔은 나뭇 白花叢에 들거고나
銀河月에 잠간 쉬여 松臺에 올라안저
잇다감 梅花春色에 흥을 계워호노라⁹⁾ (松臺春)

위 시조는 기녀 송대춘(松臺春, 18~19세기)의 작품이다. 초장의 한양서 날아온 나비는 남성을 비유하며, 백화총은 기녀들이 모여 있는 기방을 비유한 것이다. 이 꽃 저 꽃 찾아 날아다니는 ‘탐화랑(探花郎)’과 같은 나비의 속성을 빌려

6) 김상진은 기녀시조에서 ‘千’이라는 시어를 문학적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으로 백(百)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면 천(千)은 天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상당히 먼 거리이면서도 아득하고도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숫자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밤의 의미 고찰」, 『한양어문』 17, 한양어문학회, 1999, 391쪽 참조.)

7) 김준오, 『시론』, 문장, 1984, 215~218쪽.

8) 델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웨스 편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72쪽.

9)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5316.1. 1153쪽.

기방에 여러 기녀들을 찾아다니는 남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중장에서 은하월에 잠깐 쉬었다가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송대에 올라앉은 나비가 비유하는 것은 지조 없이 이리 저리 옮겨다니는 남성의 가벼운 사랑의 행각이다. 중장에서는 이따금 느끼는 남성의 사랑의 감정을 비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위 시조는 한양에서 온 한량의 지조 없는 사랑과 가벼운 흥을 노래함으로써 오히려 신분이 천한 기생이지만 양반의 신의 없는 사랑과 가벼운 남녀관계를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다.

따라서 위 시의 시적 화자인 기녀 송대춘은 자신의 절의라는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변화무쌍하고 신의 없는 양반풍류객의 비천한 행동을 비웃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송대춘이 비록 기녀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행위의 윤리의식은 절의라는 개념적 인식을 넘어 타자의 행위를 통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이해를 통해 관념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관념의 상황은 사랑의 순수성이란 서정으로 작품에 형상화된다. 다음 시도 마찬가지다.

柴門에 물을 먹고 님과 分手홀 제
玉顔珠淚가 놀노 ㅎ야 흘넛는고
아마도 못 니즐슨 님이신가 ㅎ노라¹⁰⁾ (立里月)

이 시는 기녀 입리월(立里月, 18~19세기)의 작품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사립문에 말을 매고 임의 손을 잡고 이별하려 한다. 중장에서는 보내기 힘든 임과 눈물을 흘리며 이별한다. 그러나 임을 잊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괴로움이 고독의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인간의 외로움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2895.1. 609~610쪽.

또한 종장에서는 고독에 의해 더욱 더 그리운 서정과 절의에 대한 의지가 심화되고 있다. 슬픔의 서정 속에 절의의 시경(詩境)이 더 높게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순수성은 단순히 순진한 감정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로 개념화된 윤리의식 속에서 나온 순수한 사랑의 서정이라 할 것이다.

내 언제 無信하여 님을 언제 소곶관디
 月沈三更에 온 뜻이 전혀 업니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¹¹⁾ (黃眞伊)

위 시조는 황진이(黃眞伊, 미상)가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시조에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황진이와 서경덕은 비록 사제(師弟)간이었지만, 표현론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 시조는 애정시조로 볼 수 있다.¹²⁾ 초장에서 임은 무신하지만 나는 무신하지 않다. 달이 지는 삼경에도 무신한 임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화자는 무신한 임을 탓하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서 그 유신한 임이 혹시나 올까 하고 추풍이 지는 잎소리가 혹여 임의 발자국일까 생각한다. 시에서 화자는 비록 임은 무신하지만 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순수성을 노래할 뿐이다.

이 순수성은 언어화되어 개념화된 윤리의식 속에서 나온 순수한 사랑의 서정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기녀시조는 절의라는 개념화된 윤리의식을 통해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순수서정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기녀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신분적 환경을 경험지각으로 받아들여지며,

11)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0970.1, 204쪽.

12) 김성문은 그의 연구에서 위 시조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자연의 이치로 여기며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시조의 상황을 애정상황으로 해석하였다. 화자의 상태를 애정상황으로 본 것은, 황진이와 서경덕의 개인적 관계를 떠나 작품을 표현론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김성문, 「황진이 시조의 이별 형상화와 대응양상」, 『시조학논총』 30, 2009, 332~333쪽 참조.)

유교적 관념의 수용을 통해 ‘절의’라고 하는 개념적 관념을 형식적 규범으로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신분적 한계를 분노나 불만으로 표출하는 대신 시조창작을 통해 낭만적 순수서정의 세계로 풀어낸 것이다.

이것이 곧 시조에서 절의라는 윤리의식의 관념화가 빚어내는 기녀시조의 특징적 요소이며, 기녀시조가 가진 절의의 윤리의식은 시조작품 속에서 사랑의 영원성과 순수서정의 시경(詩境)을 개척하였다고 할 것이다.

Ⅲ. 형상사유와 은유적 상징

은유(metaphor)는 동일(identity)의 형식¹³⁾으로 표현된다. 상징이란 문학에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의미하면서도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일정한 범위의 지시 내용을 갖는다.¹⁴⁾ 우선 은유를 비유와 비교해보면 동일한 형식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비유는 유사성에 기반한 것으로 경험적 사실에 비춘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면, 은유는 언어적 사고에 의한 개념적 인식의 면이 좀 더 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유적 상징이란 언어적 사고에 의한 동일화의 개념이나 관념을 어떤 대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곧 은유적 상징은 대상에 대한 언어적 사고와 그 결과를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된 개념이나 서정의 영역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조에서 은유적 상징은 주로 사물이나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였을 때 그 의미가 좀 더 뚜렷해지니 이는 다음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13) M.H.아브람스 저,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1, 101쪽.

14) M.H.아브람스 저, 최상규 역, 위의 책, 1991, 303쪽.

솔이라 솔이라 흐니 무슨 솔만 너이느냐
 千尋絶壁에 落落長松 내 괴로라
 길 앞에 樵童의 접댓이야 거리볼 쏘 이시랴¹⁵⁾ (松伊)

위 시는 기녀 송이(松伊, 18~19세기)의 작품이다. 한자의 송이(松伊)는 송(松)이라는 의미소에 이(伊)라는 호격조사가 붙어있다. 따라서 이를 고유어로 풀면 솔이가 된다. 중장의 “천심절벽(千尋絶壁)”은 솔이 서 있는 지리적 위치로 세속을 초월한 높은 경지를 은유적으로 상징한다. 따라서 세속에 물든 천박한 양반들이 함부로 다다를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이것은 솔이의 사회적 신분이 기녀라는 기층민 계급에 속하지만, 그 정신적 경계는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종장에서 “초동(樵童)”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오직 양반이라는 신분만을 내세워 솔이를 희롱하는 무리에 대한 조소적 표현이며, “접댓이야 거리볼 쏘 이시랴”에서 그 조소는 비웃음과 야유로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조에서 솔이는 자신을 천심절벽의 낙락장송이라 표현함으로써 시조 전체에서 양반을 조소하고 비웃는 주제의식을 은유적 상징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제의식은 기녀시조의 절의라는 단어로 표상되었으며, 기녀계층의 보편적 가치로서 일반성을 획득하였으니, 이것은 함축적 은유(im-plicit metaphor)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함축적 은유(im-plicit metaphor)에서는 취지어가 밝혀져 있지 않고, 문맥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갈대는 너무도 연약했기 때문에 자체의 슬픔의 폭풍우를 견디어낼 수 없었다”(That reed was too frail to survive the storm of its sorrows)라고 말한다면, 이 “갈대”는 진술되지 않은 취지어(즉 인간)의 매체어라

15)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2763.1. 583쪽.

는 것을 문맥에 의해서 알 수 있다.¹⁶⁾

위의 글을 살펴볼 때 문맥 속에서 취지어로서 “갈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갈대의 이미지로서 갈대의 원관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취지어가 문학사에서 보편성을 얻어 일반적 의미를 함축하고 구체적 지시를 암시할 때, 그 취지어는 이미지로서의 문학사적 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의상은 곧 이미지이니 “이미지는 시적 상황과의 관련 아래서만 의미화된다”¹⁷⁾는 말은 시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위 시조의 초장에서 양반들에게, 기녀라는 존재는 절의라는 개념과는 관련이 없는 희롱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녀를 인간으로서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송이 자신만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 비웃는다. 화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은 그들과는 다른 고고한 절의를 지닌 낙락장송이며 오히려 그들이 천박한 관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천심절벽의 낙락장송과 초동의 접нат에 대비하여 말하고 있다.

곧 이 시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양반에 대한 조소가 아니라 자신의 절의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솔이의 천심절벽 위 소나무는 함축적 은유의 취지어로서 문학사적으로 절의를 형상화하는 보편적 의상(意像)으로 굳어졌다. 이 절의의 의상은 우선 구체적 작품 속에서 계층적 신분의 초월과 자신에 대한 자부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 황진이의 시를 살펴보자.

靑山裏 碧溪水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一到滄海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수이 간들 엇더리¹⁸⁾ (黃眞伊)

16) M.H.아브람스 저, 최상규 역, 앞의 책, 1991, 102쪽.

17)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9, 560쪽.

18)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4755.1, 1030쪽.

시적 화자는 푸른 산속의 맑은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다. 곧 자연의 현상을 감각적으로 자각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랑마라”라고 말한다. 따라서 “벽계수(碧溪水)”는 중의적 표현이니, 위 시조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어 극적 구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화자는 벽계수에게 “자랑마라”라고 말하면서 “수이 간들 엇더리”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도라오기 어려오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근거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 꿰뚫은 자연의 이법(理法)에 대한 통찰의 결과로, 화자는 이를 인생살이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위 시조에서는 화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계층 등을 암시하는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벽계수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어른스러운 충고를 하는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의 화자는 분명히 기녀라는 사회계층적 신분을 초월한 존재적 가치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자각하고 있다.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ㅣ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저 우리 네어 가느고¹⁹⁾ (黃眞伊)

시의 화자는 초장에서 청산을 자신의 뜻에, 녹수를 님의 정에 대비시켜 비유하고 있다. 또한 중장에서는 녹수를 흘러가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청산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표현하며 청산과 녹수의 이미지를 더욱 심화하며 대비하고 있다. 종장에서 흘러가는 녹수조차도 변하지 않는 청산을 못 잊는다고 표현하며 청산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뜻, 곧 변하지 않는 절의의 가치를 더욱 높여 표현한다.

작품의 주된 주제의식은 흘러가는 속성을 지닌 녹수, 즉 쉽게 변하고 신의 없

19)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0922.1, 196쪽.

는 양반 남성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치 않는 자신의 뜻, 즉 절의를 더욱 가치 있게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시조의 주된 주제의식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적 만남과 헤어짐에 대하여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청산은 단순히 산이라는 자연물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해 낸 것으로, 주관적 정신화를 거친 형상물로서 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미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함축적 은유는 구체적 문학작품에서는 사물에 대한 의인화(personification)의 경향을 보이며, 무생물이나 추상적 관념이 마치 인간적인 속성이나 감정 및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면서²⁰⁾ 정신화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다.

기녀들은 이처럼 형상사유라는 정신화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관을 자각하고 시를 통해 형상화하였다. 또한 정신화를 통한 가치관은 직접적인 화법이 아니라 시어를 통한 상징의 형식으로 함유된다.

상징은 상상의 언어에서 비롯한다. 달리 말하면 언어로서 상상된 세계이다. 그것은 곧 인간 개인이 지향하는 이상(理想)에 대한 하나의 설정이며 동경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기녀가 절의를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지향하는 은유적 상징으로서 상상의 세계는 절의로 표상된다.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설정되며,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다. 미학의 입장에서 이것은 미적 인식에 의한 이념으로서의 미라 할 것이니, 절의는 기녀들의 매우 높은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20) M.H.아브람스 저, 최상규 역, 앞의 책, 1991, 104쪽.

IV. 이념지향과 미적 인식

미(美)를 존재(存在)의 현상(現象)으로 보게 될 때, 미학(美學)은 현상적(現象的) 존재(存在)로서의 미의 현상을 해명하기 위한 〈현상-존재론적 미학(pheno-ontological calonology)〉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나아가 미가 만인의 이상으로 삼아 추구해 마지않는 가치이념이라고 할 때, 미학은 〈가치론적 미학(catholic axiological calonology)〉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²¹⁾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치론적 미학의 입장에서 기녀의 절의는 기녀들이 추구하는 가치이념이며 또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미의 현상으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녀들의 절의는 기녀들의 가치이념의 표상이며 인간존재로서 기녀들이 갖는 행위의 내적 기준이자 인격적 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대상에 대한 미적 인식은 내용미(內容美)를 확충시켜 의상을 형성하는 근원적 기반이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우선 자연물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다.

어이 얼어 자리 므스 일노 얼어 자리

鴛鴦枕 翡翠衾을 어드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춘비 마자시니 더욱 덥게 자리라²²⁾ (寒雨)

위 시조는 기녀 한우(寒雨, 미상)의 작품이다. 종장의 “춘비”가 시의 화자인 한우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위 시조는 떠나려는 임을 붙잡으려 하는 한우의 애절한 심정이 표현된 작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춘비”와 “원앙침 비취금”을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가진 의상(意像)으로 해석해 보면, 두 시어는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의상화된 내용미를 표상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어

21)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20쪽.

22)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3245.1, 683쪽.

모두 사랑을 암시하고 있지만, 찬비는 사랑의 거부를 상징하며 원앙금 비취금은 사랑의 수용을 상징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덥게 자리라”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두 사물은 내재적으로 주관화를 이루면서 사랑의 양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찬비와 원앙침 비취금은 사물로서 지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이해에 의한 미적 인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찬비와 원앙침 비취금으로 상징되는 사랑의 거부와 수용이란, 현상에 대한 해명으로서의 미적 인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위 시조에서 기녀의 절의는 사랑의 수용과 포용이라는 현상으로 의상화되어 나타난다.

원행패(袁行霈)는 중국 고전시가의 다의성(多義性)을 “쌍관의(雙關義), 정운의(情韻義), 상징의(象徵義), 심층의(深層義), 언외의(言外義)”²³⁾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적 인식과 의상에 적용해 볼 때 기녀시조의 의상은 정운의와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고전시가의 언어는 무수한 시인의 제련, 가공과 창조를 거쳐 많은 시의(詩意)와 풍부한 사어(詞語)를 지니게 되었다. 이 사어들은 본래의 뜻 이외에, 시화(詩化)되도록 하는 여러 감정과 운미(韻味)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감정과 운미를 나는 정운의라고 부른다. 정운의는 선시의에 대한 수식이다.²⁴⁾

위 글을 참고로 한우의 시조를 고찰하면 “찬비”는 사랑을 거부당한 남성의 슬픔과 실망, 고독 등의 내적 정서를 함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鴛鴦枕 翡翠衾”은 사랑을 수용하고 포용한 한우의 따뜻한 인정과 은화함 그리고 공감을 그 운미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찬비와 원앙침 비취금이 사물로서 객관적 대상이나 작품에서 시화(詩化)되어 시적 의미를 표상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두 사람

23) 袁行霈 著, 姜英順 외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아세아문화사, 1990, 19쪽.

24) 袁行霈 著, 姜英順 외 共譯, 위의 책, 1990, 22쪽.

의 감정을 함유한 정운의로서의 의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시조를 살펴보자.

꽃 보고 춤추는 나비와 나비 보고 당짓 웃는 꽃과
저 들의 思郎은 節節이 오건마는
엇더타 우리의 思郎은 가고 아니 오느니²⁵⁾ (松伊)

위 시조를 살펴보면 나비와 꽃은 대단히 상징의(象徵義)에 해당하는 시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우의 찬비와 원앙침 비취금은 차다와 따뜻함이라는 감각적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나비와 꽃은 유사성 보다는 일정한 개념과의 동일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시의 초장에서 나비는 꽃을 보고 춤추고 꽃은 나비를 보며 방짓 웃고 있다. 중장에서는 그 꽃과 나비의 관계처럼 우리의 사랑은 절절하지 않는가 하는 한탄이 이어진다. 이것은 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화자인 송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개념은 신뢰의 바탕을 둔 변치 않는 영원성을 지닌 존재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쳐 가는 순간적인 사랑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선한 것도, 윤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송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절의와 상통되는 이념적인 것이며 문학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美)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나비와 꽃이 화자와 님과 동일성을 떠는 이유는 둘의 절절한 사랑 때문이다. 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화자의 사랑은 오히려 가고 오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현되며 나비와 꽃의 사랑과 대비되고 있다. 쓸쓸한 고독을 대비적으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상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녀의 시조 또한 절의의 한 변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5)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0645.1, 134쪽.

이념의 세계에서 사물을 대할 때 해석의 관점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감각적인 쾌의 감정의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자연의 우주적 진리, 근원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동경과 추구이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관점이 다음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못노라 汨羅水야 屈原이 어이 죽단 말고
 讒訴에 덜어인 몸이 죽어 못칠 디 업서
 骨髓를 碧波에 씻어 魚腹으로 가니라²⁶⁾ (松伊)

위 시는 송이(松伊)의 작품으로 독백의 형식인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²⁷⁾ 초장에서 “못노라”는 단순한 호격일 뿐이며 실제로 묻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초장에서 송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에 관한 개념, 사대부의 충절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이상적 지향점을 비유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인물로는 굴원이며 산수공간으로는 먹라수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위 시에서 “먹라수”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충신의 절의를 의미하는 높은 은유적 상징성을 지닌 하나의 개념이며, 이것이 최고 가치로서의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위 시는 유교적인 심충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미적 인식에 의한 의상화는 유교적인 의식과 결합됨으로써 이 의상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문학적 장치로서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개념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개념화된 절의는 유교 이념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적 가치기준이자, 윤리적 모습으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었을

26) 김홍규 외 편저, 앞의 책, 2012, 1719.1, 370쪽

27) 김성문은 그의 연구에서 기녀시조가 담화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독백을 청자가 부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화자=청자’의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성문, 「妓女時調의 話者와 作品의 性格 研究」, 『어문론집』 54, 2013, 259쪽 참조)

때, 이들은 신분을 초월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서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상은 기본적으로 비덕(比德)의 의상화(意像化)로 수렴된다. 비덕은 사물의 내면성을 인간의 덕성, 윤리적 의식과 가치기준에 비추어 봄으로써, 사물의 내용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시적 방법을 말한다.

비덕은 사물을 인륜감식(人倫鑑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감상하여, 그 내용미를 부여하는 시적 기법이니, 동양문학의 전통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위물(爲物)’이다. 이것은 ‘위인(爲人)’이라는 말과 문법적 구성이 동일하다. ‘爲人’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으로 人性을 말하는 것이다.²⁸⁾

앞서 살펴본 기녀시조에서도 사물감상이 상당히 이념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절의는 도덕적 가치로서 볼 때 비덕으로서의 인륜감식에 해당한다. 이는 유교적 이념과 결합되어 보편성과 일반성을 얻게 되었고, 기녀들이 지향하는 이상가치로서의 실재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녀들은 자신의 계층적·사회적 신분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유교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와 이념에 편입하고 동참하고자 하였다.

결국 비덕은 유교적 이념과 결합된다. 유교적 이념은 윤리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을 규범화하고 행위의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이념지향이란,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자 이상적 목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산수경물의 비덕은 결국 자연철학에 입각한 윤리적 해석으로 인륜감식(人倫鑑識)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선조 성리학은 광의의 의미로 자연철학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윤리적 행위의 근원을 대자연의 원리와 이법에서 찾으려고 하고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시에서 절의는 윤리적 차원이나 단순한

28) 손오규, 「퇴계 墨竹題畫詩의 전통성과 意境」, 『시조학논총』 41, 한국시조학회, 70쪽.

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의 가치로서의 이념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상징을 통해 확보한 기녀들만의 이념은 하나의 아름다운 것(美)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적 인식에 의한 이념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 논의한 ‘절의’라는 관념은 당시 기녀라는 특수계층의 사고와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와 사고 그리고 언어와 의미, 언어와 관념, 문화적 배경과 의미존재 등이 기녀시조라는 문학 장르 속에서 의상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의상이 표상하는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기녀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고통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것은 현실의 상황에 대한 긍정과 현실적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적 성찰, 의지의 관철이라는 정신적 경계의 개척이었다. 따라서 기녀시조에서는 절의를 통한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였으니, 이것은 절의를 사전적 의미의 개념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절의에 대한 언어적 인식을 거쳐 내적 성찰의 자기반성과 지각의 확대를 통한 윤리의식으로서의 관념화(觀念化)로 승화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녀시조에서 화자는 입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순수성을 노래하였다. 이 순수성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언어화되어 개념화된 윤리의식 속에서 나온 순수한 사랑의 서정이다. 이처럼 기녀시조는 절의라는 개념화된 윤리의식을 통해

매우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순수서정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것이 기녀시조에서 절의라는 윤리의식의 관념화가 빚어내는 특징적 요소이며, 기녀시조가 가진 절의의 윤리의식은 시조작품 속에서 사랑의 영원성과 순수서정의 시경을 개척하였다.

셋째, 구체적 시조작품에서 절의는 사물에 대한 의인화의 경향을 띄며 자신의 가치를 언어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의인화(personification)는 무생물이나 추상적 관념이 마치 인간적인 속성이나 감정 및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면서 정신화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한다. 기녀시조에서도 대상을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의인화하였다. 은유와 의인화라는 언어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절의의 관점에서 상대의 변절과 신의 없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더욱 가치 있게 인지하는 것이다.

넷째, 술이의 시조작품에서 친심절벽 위 소나무는 함축적 은유의 취지이로서 문학사적으로 절의를 형상화하는 보편적 의상(意像)으로 굳어졌다. 이 절의의 의상은 구체적 작품 속에서는 계층적 신분의 초월과 자신에 대한 자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소나무는 단순히 자연물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자신의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주관적 정신화를 거친 형상물로서 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기녀가 절의를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지향하는 은유적 상징으로서 상상의 세계는 절의로 표상된다.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서 설정되며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다. 미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미적 인식에 의한 이념으로서의 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절의는 매우 높은 기녀들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여섯째, 기녀시조에서 비덕은 유교적 이념과 결합된다. 유교적 이념은 윤리의

이념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을 규범화하고 행위의 목표로 삼는다. 이때 산수 경물의 비덕은 결국 자연철학에 입각한 윤리적 해석으로 인륜감식(人倫鑑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녀시조에서 절의는 윤리적 차원이나 단순한 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의 가치로서 기녀시조에 형상화된 이념화를 지향하고 있다. 곧 미적 인식에 의한 이념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김홍규 외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논저

M.H.아브람스 저, 최상규 역,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1.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9.
김준오, 『시론』, 문장, 1984.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밤의 의미 고찰」, 『한양어문』 17, 한양어문학회, 1999.
김성문, 「妓女時調의 話者と 作品의 性格 研究」, 『어문론집』 54, 2013.
김성문, 「황진이 시조의 이별 형상화와 대응양상」, 『시조학논총』 30, 2009.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웨스 편저,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박이문, 『시와 과학』, 일조각, 1990.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손오규, 「퇴계 墨竹題畫詩의 전통성과 意境」, 『시조학논총』 41, 한국시조학회, 2014
袁行霈 著, 姜英順 외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아세아문화사, 1990.
이화형, 「기녀들의 조소와 신회회복 의지」, 『국어국문학』 151, 2009.
한국시조학회 편,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Abstract〉

Fidelity and Linguistic Perception Expressed in Ginyeo Sijo

Go, Seung-Gwan

Through exchanges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people save meanings in language, deliver these meanings to others, and express momentary feelings using many linguistic forms. The language at this time does not refer to the language of a certain country or ethnic group, but instead pays attention to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language as a universal medium and semantic delivery through human thinking. Likewise, all of the natural landscape, artificial structure, and social space shown in Ginyeo Sijo compose the semantic network of concepts or ideas that were aimed to be expressed by writers; they did so by forming a semantic structure through the reflection of Ginyeos' cultural background and social environment of the time. Applying the perspective above to the genre of Sijo, in particular Ginyeo Sijo, it is possible to fully infer that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Ginyeos in the Joseon Dynasty was concretely expressed as a semantic being in the literatur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r socio-hierarchical characteristics and divisions shown in Ginyeo Sijo not only have existential meanings, but also maintain an organic relationship by working as important elements forming an overall semantic network of literary work entitled Ginyeo Sijo. In particular, the meanings in literary work formed by the cultural background surrounding the social class of Ginyeos do not simply have an existential meaning of an object, but represent a literary value or ideology as semantic beings. The concept of "fidelity" as used in this thesis is based on the thinking, cultural background, and social background of Ginyeos as a special class of the time, and their roles and position as female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this thesis attends to the fact that the language and thinking, language and meaning, language and ideas, cultural background, and semantic beings were represented as images in the literary genre of Ginyeo Sijo. In such literary works, Ginyeos thought of "fidelity" as an ideology through metaphorical symbolism, and they eventually perceived it as "something beautiful" through literary symbolization.

Key Words : Ginyeo Sijo, Fidelity, Metaphor, Aesthetic Perception

이 논문은 2020년 1월 4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기생의 유교적 가치관 연구*

- 시조를 중심으로 -

이 경 민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생이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지녔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생의 가치를 논해보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함에 있어 기생의 시조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해지는 수는 적지만 기생은 조선시대 시조 작가 층의 한 축을 담당했고, 시조는 우리말로 쓴 국문문학이었기 때문에 정서와 사상을 가장 잘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시조에 나타난 기생들의 삶의 환경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통해 표현한 기생들의 가치관과 진정성을 살폈다.

8천에 속하는 천민인 기생들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당 시대의 사조 이거니와 그 시대의 지식인층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들이나 여성들의 유교적 인식과 차이를 두는 점은 경전을 비롯한 교리에 충실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현실에서 얻는 경험에 바탕을 두는 유교적 인식을 보여준다. 기생들이 이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얻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내재된 본질을 말하는 사덕이나 오상보다는 유교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오륜 중에서 벗에게 요구되는 오륜의 가치인 믿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대부 남성들의 배신과 위선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가의 위난이나 왕조의 교체 등 특수상황에 나타난 기생들의 회생정신의 가치를 충으로 보고 이를 사대부들의 변심과 엮어 풀어낸 기생들의 유교적인 가치관은 열녀적 태도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대부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모습을 드러내며 위선적이고 거짓된 인사를 일삼는 남성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사대부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주체적인 태도를 통해 보여주며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남성이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자

*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12월 14일 제 67차 학술대회에서 자유주제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수료.

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주체적인 기생들의 모습을 밝혔다.

기생들은 자유와 억압, 양반의 머리 천민의 몸으로 표현되는 모순적인 삶 속에서 받는 상처와 외로움, 무시와 배신 등을 자신 스스로 타개해 나가고자 했으며 강요되지 않은 유교적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했고,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기생시조, 유교, 신(信), 주체성, 충(忠), 열녀

I. 서론

기생은 국가의 연회를 담당하는 예인 집단으로 공적으로는 연회 후에 벌어지는 술자리나 지방의 군부대 혹은 사신의 접대를 맡았고 사적으로는 사대부들과의 술자리에서 흥을 돋우며 때로는 그들과의 잠자리를 담당했다. 또한 조선시대 八賤 중 하나의 신분으로 公物, 즉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으며 궁이나 지방의 관아에 소속되어 그 지역을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혹자들은 기생을 매음매소가 주업인 매춘 집단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생을 창기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편협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기생들은 다양한 능력, 인간적 덕성을 연마한 만큼 웬만한 사대부 못지않은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남자라도 학식이 정말 뛰어나지 않은 이상 망신당하기 십상이었다.¹⁾ 단편적인 일례로 자신을 우습게보던 벽계수를 말에서 떨어뜨리거나 30년 동안 면벽수도를 하고 나온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황진이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대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파괴한다. 그리고 오히려 기생이라는 천민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며 부림을 당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맹자도 이러한 인의예지가 없는 이들은 남에게 부림을 당할 것이라며 비판²⁾한다.

1) 이화형, 『기생:노래를 팔지언정 몸은 팔지마라』, 푸른사상, 2018, 73쪽.

이외에 도 이름난 기생들은 인의예지 즉, 도가 없는 남성들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당대 현실 속에서 직업적인 이유로 남성들과 술자리를 갖긴 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생의 정절을 사대부여성들의 윤리적 위선이나 강요된 수절과는 다른 주체적인 면을 찾아 볼 수 있고 이들은 정신적 순결을 중시했다³⁾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도를 깨우치지 못하거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남성들과는 깊은 만남을 거부하고 기생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남성을 찾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랐지만 어렵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성을 만났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신분이라는 제약과 기생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던 사회와 공간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며 사대부와 기생의 사랑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사랑’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⁴⁾ 그래서 사랑과 이별, 임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삼은 내용이 대부분인 것⁵⁾이다. 불안정한 사랑은 임과의 신뢰가 깨진 것에 준한다. 그리고 이는 대체적으로 임의 변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런 임의 태도에 대한 비난을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 시조로 나타낸다.

기생이 유교의 교조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예술에 활용했다는 것은 이능화가 『조선해어화사』에서 밝혀놓았다.⁶⁾ 기생들이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당 시대의 사조이거니와 그 시대의 지식인층과 교류를 위해서는 필수적

2) 인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남에게 부림을 당할 것이다.(『孟子』 공손추장구 상(우재호 역, 『맹자』, 을유문화사, 2007, 245쪽.))

3) 이화형, 「조선 기생의 정조관」,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화회, 2019.

4) 김지은, 「妓生時調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연구」, 『시조학논총』 48, 한국시조학회, 2018, 196쪽.

5) 성기옥, 「기녀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33쪽.

6) 안동의 기생이 대학지도(大學之道)를 외우고 관동과 도성의 기생이 관동별곡(關東別曲),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을 노래하며 함흥 기생인 可憐이 出師表를 외우고 영흥 기생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렀다.(李能和,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312~316쪽.)

인 요소라고 하겠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들이나 여성들의 유교적 인식과 차이를 두는 점은 경전을 비롯한 교리에 충실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현실에서 얻는 경험에 바탕을 두는 유교적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생들이 이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얻어진다고 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내재된 본질을 말하는 사덕이나 오상보다는 유교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오류에서 그 가치를 찾아서 논하고자 한다. 오류 중에서도 군신, 장유, 부부, 부자는 기생으로서는 가지기 힘든 관계였기에 기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는 봉우라고 할 수 있고 벗에게 요구되는 오류의 가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왕조의 교체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상황에서 충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런 기생들의 특징을 시조를 통해 살피려고 한다. 사대부들과의 여흥에 있어 사대부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헤어화나 사랑에 있어서 지나쳐가며 쉽게 꺾을 수 있는 노류장화와 같은 꽃 즉, 물건의 대접에서 벗어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존감을 드높이는 기생의 위상이 유교의 가치관을 통한 비유가 나타난 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관계 속에서 드러난 기생의 유교적 가치

1.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신(信)

기생들은 남녀간의 만남에 있어 굉장히 폐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시대에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했던 위치에 있었다. 기생이 주로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집단은 사대부 남성들이었다. 기생은 사대부들과의 유흥을 즐기며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갈구 했던 존재이다. 천민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교양 수준을 갖추고 뛰어난 예능적 소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 순히 옆에서 술을 따르며 매음매소를 일삼는 존재였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대 부들과 친우로써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 와중에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교적 가치관도 기본적인 교육과 한시와 시조를 짓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 함양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진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한 번 마음을 주어 사랑하게 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자와 맹자를 논하며 인의를 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사대부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항상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고 신의로 맺어진 관계를 함부로 깨는 것은 군자의 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를 기생들은 사람 사이의 진실된 마음과 언사에서 찾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기생을 잠시간의 유흥을 위한 수단으로 대한 일이 다반사였다. 기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과 마치 진심을 다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목적을 달성한 후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떠나가던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漢陽서 씨온 나뭇 百花叢에 들거고나
銀河月에 잠간 쉬어 松臺에 올라안져
있다감 梅花春色에 흥을 계워호노라⁷⁾

조선후기 맹산의 기생으로 알려진 송대춘의 시조로 남성들이 기생을 대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려내었다. 기생들의 시조는 감정을 직설적이고 노골적으

7) 『瓶窩歌曲集』 0551.(김홍규 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2, 1153 쪽 재인용.)

로 표현할 것만 같지만 객관적 상관물들을 이용해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도 의외로 많다.⁸⁾ 이러한 방식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런 발언이 단순히 기생의 투정이 아닌 신의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초장의 ‘한양서 떠 온 나뭇’은 한양에서 온 남성들을 지칭한다. 이 남성들은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지 못한 자들이다. 아름다운 나비의 속성이 아니라 이꽃, 저꽃 떠돌아다니는 가벼운 존재로 해석된다. 마치 한량과 같은 남성들이 ‘백화총’에 든다. ‘백화총’은 기생을 비유하는 꽃이 모여있는 곳이다. 즉, 기방을 뜻한다. 그 곳을 떠돌며 ‘은하월’이라 일컬어지는 기생 옆에서 잠깐 쉬고 자신의 이름을 투영한 상징물인 ‘송대’에 올라앉는다.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떠나 ‘매화춘색’으로 표현된 여러 기생들과 놀며 흥에 겨워한다.

이것이 당시 사대부 남성이나 돈 많은 한량들이 기생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잠깐 들러서 쉬다 가는 존재로 여겼기에 한 기생을 대함에 있어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 기생들은 지적인 측면에서 사대부들과 견줄만큼 뛰어났기에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나 자신들과 교류하는 주 인물들은 유교를 공부하는 지식층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을 것이고 그로인한 배신의 아픔 또한 비례했을 것이다. 이런 처지에 놓인 기생들이었기에 누구보다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하여 놀소기고 저리하여 놀소기니
 怨讐이 님을 밋서 니점즉 흥다마는
 원쉬야 원수 | 일시 올토다 닛칠적이 업세라⁹⁾

8) 김지은, 「기녀시조와 규방가사의 恨의 표출양상 비교연구」, 『時調學論叢』 36, 한국시조학회, 2012, 85쪽.

9) 『靑丘永言』 가람본 305. (김홍규 외, 앞의 책, 798쪽 재인용.)

위의 시조는 기생 송이(松伊)의 작품이다. 송이는 확실하게 밝혀진 시조 작품의 수만 해도 7수로 기생들 중 가장 많은 시조 작품이 남겨져 있는 작가이다.¹⁰⁾ 송이는 박준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구했다고 믿었었지만 결국 박준한은 자신을 남기고 떠난 후 소식이 끊겼다. 그로 인해 배신감이 들었고 자신이 진정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한 믿음의 부질없음에 몸서리치며 이 시조를 지어 불렀다고 본다.

초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런 저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는 남성의 위선적인 모습은 근원적인 문제이며 인의와 더불어 신(信)을 가장 큰 가치로 보고 평생을 수양하며 살아가는 사대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는다. 기생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을 쉽게 저버리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인격자인양 위선을 떠는 모습을 비판하며 원수로 취급한다. 원수라는 단어를 3장까지 이어가며 임의 배신으로 인한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임을 결국에는 잊지 못함을 노래한다. 사랑했던 임이 원수가 될 정도의 심경은 변화했지만 내가 임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은 그만큼 진정성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남자를 겪었던 기생일지라도 사랑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한 존재였기에 가능했다.

2. 국가와 개인의 관계 - 충(忠)

충(忠)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의무를 다하고, 그를 자신의 내면에서 행위의 표준으로 자각하여 실천하는 윤리원칙이다.¹¹⁾ 즉, 수양을

10) 이화형, 「時調를 통한 松伊와 黃眞伊의 同異性 비교 고찰」, 『時調學論叢』 35, 한국시조학회, 2011, 168쪽.

11)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리학적 고찰」, 『中國學報』 80, 한국

통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충인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충은 남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가치이다. 즉, 드러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간에서 요구되었고,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보여야 할 가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이 허락되었던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특별한 상황에 의해 기생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의 첩이었던 함흥 기생 김섬이 대의에 따라 죽을 결심을 한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이야기가 전한다.¹²⁾ 더불어 논개와 계월향의 유명한 일화 또한 전해진다.

論介는 우리 祖上 桂月香은 우리 先生
殺身成仁 그 忠節은 千萬年에 빛나도다
우리도 더를 模範하야 視死如歸¹³⁾

대한 매일 신보에 게재된 이 시조는 논개와 계월향의 구국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군의 장수를 꺾이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 진주 기생 논개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고 계월향은 평양의 기생으로 김응서로 하여금 왜군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 이로 인해 결국 평양성까지 탈환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한 인물이다. 이들의 정신은 조선시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근대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항일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 중에 기생이 상당했으며 승려이면서도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한용운도 계월향의 이런 모습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모습을 보이며 높은 평가를 했다.

중국학회, 2017, 323쪽.

12) 李能和, 앞의 책, 424쪽.

13) 《大韓每日申報》 제969호.(황충기,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생시조와 한시』, 푸른사상, 2015, 63쪽 재인용.)

구국활동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생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태된 유교적 가치관을 더욱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사대부 여성들에게조차 요구되지 않았던 가치인 충이 기생들에게 요구되었을지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 구국에 힘썼다. 이는 맹자가 말한 사생취의(捨生取義), 즉, 생명과 의리를 선택할 상황이 왔을 때 생명보다는 의리를 쫓겠다¹⁴⁾는 가치와도 상통한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천민계층으로 국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기생들 중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버려가며 구국에 힘을 보태는 이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기생들은 충이라는 가치관을 지킬 필요는 없었지만 주체적인 태도로 이를 지켜나가려 하였다. 거기에 국가의 위난으로 인해 제도의 혼란 속에서 기생들이 충의 가치에 따라나를 지키려 몸을 던지는 모습에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뛰어넘는 인간 본연의 진정성을 담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태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천민의 몸 양반의 머리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기생은 사대부들과 학식을 건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기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대부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 하는 우스갯소리에서도 수준을 알 수 있고, 희롱하려는 뜻이 담긴 언사에 반박하여 오히려 사대부들을 멧쩍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나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성현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 상황의 주객을 전도시켜 버리는 표현들은 기생들의 언어유희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인물들의 일화를 엮은 책인 『大東奇聞』에 수록된 설중매와 배극렴의

14) 맹자는 “생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곰발바닥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생선을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밝힌다. 삶도 소중하다고 말하며 생명존중의 사상을 나타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를 지키는 것이고 환난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孟子』 고자장구 상 (우재호 역, 앞의 책, 739쪽.))

이야기를 보면 기생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폄하하는 사대부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설중매는 송도의 이름난 기생이다. 태조가 개국하고 연회를 여니 모인 이들이 모두 조선 전(고려)의 신하들이라. 더불어 연회에 참석한 설중매는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니 정승하나가 술에 취해 “너는 아침에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서 잔다하니 오늘 밤에 나의 수청을 드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물으니 설중매가 답하기를 “동가식서가숙하는 천한 기생으로 왕씨도 섬기고 이씨도 섬기는 정승과 노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리오.” 듣는 자가 코가 찡했다.¹⁵⁾

이 글의 제목은 설중매가 개국공신들을 기롱하다¹⁶⁾이다. 개국에 대한 공을 치하하는 연회자리에서 정승이 기생을 희롱하였지만 오히려 설중매는 이에 주눅 들지 않는다. 자신을 깔보는 듯한 언사를 하는 정승을 나무라며 놀린다. 허나 직접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유교의 덕목 중 하나인 충에서 비롯되는 불사이군을 내세우며 왕씨를 섬기다 이씨를 섬기는 정승과 동가식서가숙을 하는 기생이 별다를 것이 없다 평가한다. 이는 사대부들에게 좀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힐난하는 것보다 성현의 말씀을 통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기생의 화법은 천민이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자부심을 유지한 덕에 후에 등장하는 기생들이 나라를 위한 일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고 본다.

寒松亭 들 붉은 밤의 鏡浦臺에 물결 잔제

15) 雪中梅譏開國政丞雪中梅 松都名妓也 太祖開國賜群臣宴于政府 皆前朝舊 聞汝朝從東家食 暮從西家宿 今夜亦爲老父薦枕否 妓曰以東家食西家宿之賤妓得侍事王氏事李氏之政丞則豈不宜耶聞者酸鼻(『大東奇聞』 公私謾錄)(김성언 역, 『쉽게 풀어 쓴 대동기문』, 국학자료원, 2001, 56~57쪽 재인용.)

16) 雪中梅譏開國政丞(위의 책, 56쪽.)

有信 鴻 白鷗는 오락가락 헛것만은
엇뎨타 우리의 王孫은 가고 안이 오는이¹⁷⁾

고려 말 ~ 조선 초 기생으로 알려진 홍장의 시조 〈한송정 달 밝은 밤에〉에서도 알 수 있다. 초장의 풍경묘사는 임과의 추억을 그리는 홍장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러나 떠난 임은 존재하지 않고 흰 갈매기만 오락가락한다. 여기서 오락가락하는 흰 갈매기는 유신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임과 대비되는 점이다. 동물조차 믿음이 있다면 자신을 찾으러 올 텐데 그렇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 이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 봐야 할 것이다. 왕조의 성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는데 이는 충절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다. 왕씨를 섬기다 이씨를 섬기는 충정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이다. 마치 사랑의 대상이 바뀐 남성처럼 말이다.

이는 열녀적 태도로 이어진다. 충은 당시 여성이 가질 수 없는 사상이었다. 사회에 나가 임금에게 할 수 있는 충의 가치는 사회 진출이 허락된 남성에게 요구된 사조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의 위난, 왕조의 교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잠시 드러났을 뿐이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이 가져야 할 가치는 열이다. 한 임금에게 충성하듯 한 남성에게만 사랑을 주며 지조를 지키는 열녀의 모습은 대상만 다를 뿐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기생은 충에 대한 가치를 통해 평소에도 열녀적인 태도를 지니고자 하였다.

Ⅲ. 가치에 따른 실천적 태도 - 열녀적 태도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열(烈)의 가치는 기생에게만은 예

17) 『海東歌謠』 박씨본 266.(김홍규 외, 앞의 책, 1148쪽 재인용.)

외적으로 강요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기생들이 사랑하는 임을 향해 보여줬던 태도에는 열녀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충은 남성에게, 열은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¹⁸⁾ 즉, 유교 사회에서 남성이 충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다면 여성은 열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가장 유교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배신과 위선으로 점철된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유와 억압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요구하던 사회구조의 모순¹⁹⁾ 속에서 기본적인 교육적 소양과 사대부들과의 교류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녹수 흘러 간들 청산이야 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저 우리 예어 가노고²⁰⁾

조선 최고의 명기로 알려진 황진이 시조이다. 송이의 뒤를 이어 많은 양인 6수의 시조를 남기고 기이한 행적과 호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긴 기생이다. 벽계수를 희롱하고 지죽선사를 파계시키는 등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황진이에게도 넘을 수 없는 신분과 사회구조의 한계와 남성들의 변심

18)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忠)'의 등장」, 『국학연구』 18, 한국학 연구원, 2011, 7~8쪽.

19) “관리들에게는 기생집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을 하면 법적으로 장 60대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관리가 지방 순시에 나가면 기생으로 하여금 수청을 들게 함으로서 성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갖게 하였다.”(이화형, 앞의 책, 2018, 148면.) / “우부대원 남지(南智)가 아뢰기를, 여악의 폐단은 외방에서 더욱 심합니다. 수령의 하루 사이의 정사에서 한편으로는 부녀자들로서 절의를 잃은 자를 다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기로서 사객을 거절한 자를 다스리고 하니 어찌 정사를 본다면서 이와 같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世宗實錄』 49卷, 世宗 12年 7月 28日 (<http://sillok.history.go.kr> 2019, 12, 28. 이하 실록의 내용의 위 사이트를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사이트의 주소 표기는 생략하도록 한다.))

20) 『大東風雅』 128.(김홍규 외, 앞의 책, 196쪽 재인용.)

에는 회의적인 감정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다.

위 시조에는 변하지 않는 청산의 속성을 나의 뜻으로 변화하는 물의 속성을 님의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교적 자연관을 빌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낸 부분이다. 남녀의 그리움을 말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의 가치를 가장 높게 표현한 도교적 자연관과는 다르게 유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표현한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는 자연관을 표방했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낮은 것을 두루 살필 수 있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산의 가치를 자신의 뜻에 비유하여 노래한다. 녹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님의 마음이 변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청산처럼 임을 기다리겠다는 열녀적 태도²¹⁾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임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줄지도 모르는 임의 태도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목숨을 버리며 혹은 평생을 그대만을 기다리며 수절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우회적인 비유를 통해 당신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한다. 이는 유교적인 자연관을 통해 당대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이 표현 할 수 있는 최고의 유교적 가치관인 열(烈)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長松으로 배를 무어 大同江에 띄워 두고
柳一枝 휘여다가 굿이굿이 매었는디
어디서 妄伶엿 거슨 소혜 들라 흥느니²²⁾

21) 기생들도 정절을 중요시 여겼는데 주된 정절 관념은 정신적 순결이다. 허나 그들 중에는 이를 넘어 목숨보다 정절을 소중히 했던 열녀적 태도를 갖춘 사례도 있으며 이런 이미지들은 조선 사회를 교화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이화형, 앞의 책, 2018, 131~147쪽.)

22) 『海東歌謠』 박씨본 272.(김홍규 외, 앞의 책, 892쪽 재인용.)

평양 기생 구지가 지은 〈장송으로 배를 무어〉라는 시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유일지(임)에게 구지(자신) 구지 매여 있다며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시조는 망령(다른 남성들)된 것들이 유혹하더라도 연못에는 들어가지 않겠다(소인배가 되지는 않겠다)며 말하고 있다. 자신은 큰 소나무로 만든 배고 대동강이라는 임의 품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변치 않는 소나무를 지칭하는 태도 대동강을 이야기하는 대범함 등은 자존감의 발로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잃으려 하지 않았던 열의 가치는 사대부 여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열의 가치보다 뛰어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계속 언급했듯이 주체적으로 이를 수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체적인 태도로 삶 속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홍랑은 홍원의 관기이다. 소시적에 시인인 고죽 최경창의 사랑을 받았다. 최경창이 도성으로 돌아가서 병이 깊어지자, 밤낮으로 7일을 걸어 도성에 가서 병을 간호하였다. 최경창이 죽은 뒤에는 몸을 단장하는 일 없이 파주에서 무덤을 지켰다. (후략)……23)

……(전략) 만향은 이름이 비록 기적에 올랐고 나이 많았어도 오히려 정조를 지키고 그 부모를 효도로 섬겼다. 고 승지 황규하가 함흥 객사에 머물렀을 때에 비로써 천침하였다. 황공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 지아비를 고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홀로 있으면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자가 날로달로 꼬리를 물었다. 날이 오래가면 횡포를 면치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후략)24)

23) 李能和, 앞의 책, 426쪽.

24) 위의 책, 426~427쪽.

위의 두 일화는 인물의 명칭을 지우고 본다면 사대부여성들의 일화로 여길 수도 혹은 『三綱行實圖』나 『烈女傳』에 실려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여길 수도 있다. 실록에 기록된 인동현 중랑장 고성언의 처 최씨나 곡주 초계군사 이태경의 처 강씨의 이야기는 위의 일화와 비슷하다.²⁵⁾ 여염집 여성들의 일화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 행위의 주체는 다름 아닌 기생들이었다. 시조에서 드러낸 열의 가치를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줬다.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권장하던 행동강령이었으나 기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생들은 스스로 이를 따르고자 했었다. 기생들에게 열녀적 태도는 진정성의 문제였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 태도가 당시 사

25) “인동현(仁同縣)에 중랑장(中郎將) 고성언(高成彦)의 처(妻) 최씨(崔氏)가 있는데, 나이 28세에 성언(成彦)이 죽으니, 3년상을 눈물로 울며 그 도리를 다하였고, 과부(寡婦)로 홀로 산 지 여러 해 만에 그의 형(兄) 임(琳)이 뜻을 빼앗아 시집을 보내려 하니, 스스로 죽기를 맹세하여, 임(琳)도 또한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맏이는 중랑장(中郎將) 이진우(李珍祐)에게 출가하고, 다음 딸은 군기 주부(軍器注簿) 정후(鄭厚)에게 출가하였다가, 진우와 정후가 또한 모두 일찍 죽으니, 두 딸이 모두 어미의 절개와 같으므로, 향당(鄉黨)이 그의 사는 곳을 칭하여 ‘정부리(貞婦里)’라고 합니다. 산원(散員) 장윤(張倫)의 처(妻) 유씨(俞氏)라는 자가 있는데, 나이 33세에 윤(倫)이 전사(戰死)하니, 그 아버지 경(景)이 개가시키려고 하여 백방으로 달랬으나, 유씨가 말하기를, ‘양인(良人)이 자리에서 편안히 죽지도 못하였고, 나와 영결(永訣)도 하지 않았으니, 어찌 차마 버리겠습니까? 다행히 젖먹이 자식이 있으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면 내 생(生)을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아버지도 그 정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풍해도 관찰사(豐海道觀察使)가 보고하였다.

“곡주(谷州)에 고(故) 초계 군사(草溪郡事) 이태경(李台慶)의 처(妻) 강씨(姜氏)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관직을 수행하다가 죽고 아들 한 명은 아직 어렸습니다. 강씨가 힘이 모자란데도 그 남편을 경산(慶山)에 귀장(歸葬)하여 마침내 3년 동안 무덤 옆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상이 마칠 때에 서울에 있는 거실(巨室)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맞이하려고 하였으나 강씨가 울면서 거절하여 곡주(谷州)로 피하였습다. 곡주(谷州)의 대가(大家)가 또 혼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씨가 단발하고 스스로 맹서하니 절의가 더욱 견고하였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모두 그 문(門)을 정표(旌表)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하였다. (『太宗實錄』 10卷, 太宗 5年 12月 29日)

회의 가치와 어긋나지 않음에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런 기생들의 모습은 춘향전이나 낙화암 설화와 관련된 강계기생 불관의 이야기로도 등장하며 널리 알려지고 기생들은 사대부여성들 못지않은 태도를 추구했으며 이는 사대부들의 기생을 대하는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IV. 유교적 가치를 통해 본 기생의 가치 - 주체성

기생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들에게 요구되었던 의무가 아님에도 남성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려 노력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기생들을 바라볼 때 기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춰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주체적인 태도로 삶 속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술이 술이라 헛니 므슨 술만 너이는다.

千尋絕壁에 落落長松 내 괴로다.

길 앞에 樵童의 접냇이야 거러볼 쫓 이시랴.²⁶⁾

송이는 자신의 이름인 소나무를 사용하여 시조에 담아내었다. 소나무는 사시 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사대부들이 선비의 모습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한다. 송이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나무를 자신과 동일시하였다. 이는 송이의 자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기생이라는 천민의 신분이지만 어느 사대부보다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천심절벽에 있는 낙락장송이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고고한 이미지를 증폭시켜 이 가치를 심화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대부 여성 시인의 대표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허

26) 『海東歌謠』 박씨본 273. (김홍규 외, 앞의 책, 583쪽 재인용.)

난설현이 자신의 이름에 쓰인 난초를 시어에 삽입하며 세상풍파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표현한 시의 맥락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는다. 유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사대부와 동일한 위치로까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려 놓는다. 거기에 풀베는 아이의 작은 낫과 같은 소인배들은 자신에게는 다가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종장의 비유적인 표현은 그 가치를 절정으로 끌어올린다. 주체적 태도를 갖추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태도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맹자에서 찾을 수 있다.

맹자는 “대체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들이 그를 업신여긴다.”²⁷⁾고 하였다.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고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맹자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스스로 만든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네”²⁸⁾라는 『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태도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오냐 말 아니짜나 실커니 아니 말라
하늘 아래 너뿐이면 아마 내야 흐려니와
하늘이 다 삼겟스니 날 쥔 이들 업스랴²⁹⁾

위 시조는 성천의 기생 문향의 작품이다. 이는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발산되는 주체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선조 37년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송포 정곡과의 만남을 배경으로 지어 붙렸다. 정곡의 허락은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데

27) 『孟子』 이루장구 상(우재호 역, 앞의 책, 478쪽.)

28) 『孟子』 이루장구 상(위의 책, 479쪽.)

29) 전사본 1.(김홍규 외, 앞의 책, 714쪽 재인용.)

결림돌이 될 수 없다. 내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나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사람이 오직 입만 존재할 때인데 세상에 사람은 많으니 나를 사랑해 줄 이를 찾겠다며 입을 밀어낸다. 배신에 의한 감정적인 표현일지라도 한탄이나 회의감에 젖어 슬픔을 노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정해 줄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표현이 녹아있는 것이다. 기생이 자신의 사회가 요구한 신분적 제약에 순응하고 수동적으로만 입을 대했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나의 길을 찾고자 했기에 그 가치가 올라가고 사대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인해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 사신이 연로의 각 고을에 수청 기생을 요구하였을 때 기생들이 죽음으로 항거한 바 있었고³⁰⁾, 용강의 기생 한 명은 목을 매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였다. 얼마 뒤 청나라는 조선을 협조자로 계속 묶어 두기 위한 현실적 목적으로 조선에 끼친 여러 가지 폐해를 쇄신하였다. 이 때 사신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청 기생 문제도 혁파의 대상이 되었³¹⁾다는 사례들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되었던 자신들의 일 조차도 부당하다 생각하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거나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까지 거부하고자 하는 모습은 기생들이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던 주체적인 태도를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30) 청나라 사신과 정명수(鄭命壽)가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 방기(房妓) 바치기를 요구하였는데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묘당이 아뢰기를, “그 뜻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仁祖實錄』 35券, 仁祖 15年 11月 8日.)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천민예인의 삶과 예술의 궤적』, 두산동아, 2007, 45~46쪽.

IV. 결론

기생은 조선시대 예술과 문학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사대부들의 술시중을 들고 변방의 군인 사신의 접대를 맡으며 매음매소를 한다는 성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단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면을 살펴 그들이 가치를 찾아보고자 했다.

천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유교적 이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기생들은 이를 함양하고 따르고자 했다.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위해 기초적인 교양이 필요하여 배우기는 했을 것이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치 평가나 자신들의 삶의 태도에 유교 이념을 적용시켰고 이를 시조를 통해 표현하였다. 그리고 기생들은 단순히 교조적인 유교 사상을 습득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경험들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함유했던 유교적 가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생의 주변은 대부분이 사대부 남성들이었기에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더불어 기생의 시조는 주로 사랑을 논의 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대부들과의 만남의 장에서 불렀던 시조와 사랑을 나눈 후의 감정을 노래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기생들이 얻은 것은 대부분 상처였다.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던 기생들은 사랑했던 임이 떠날 때 동행할 수 없었고 임을 기다리는 그리움이 주된 정서였다.

마음을 얻기 위해 기생들에게 향했던 사대부들의 연사는 거짓된 것임을 깨닫는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임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대부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던 믿음 즉, 신에 관한 문제는 기생들을 대함에 있어 깨지게 된다. 그래서 송이는 그런 임을 원수라 부른다. 자신을 속여

약속을 깨버린 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입에 대한 마음을 체념하기보다는 유교적인 틀에 맞춰 믿음을 갠 입을 문제 삼는다.

충은 다분히 남성의 실천방식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음은 설중매의 일화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도와 사상 등 많은 것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던 전란이 있을 때 목숨을 버려가면서 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논개와 계월향 모습을 통해 그 속에 내재된 그들의 가치관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가치들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지속되어 근대기생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 남성 독립운동가들 마저도 이들의 정신을 칭송하기에 이른다. 그렇기에 기생들의 열녀적 태도를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충은 특수한 상황에 기생들에 의해 드러났을 뿐 주로 남성이 지녀야 했던 가치였다. 그래서 다른 일상 속에서는 열녀적 태도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들은 시대적으로 절대 강요되지 않았던 열녀의 태도를 보여준다. 황진이이는 시조에서 나타나듯이 변치 않는 산의 모습을 자신과 일치시킨다. 유교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자연물인 산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물의 변하는 속성을 사대부 남성들에 대입시켜 누가 더 유교적 가치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거기에 더 붙여 평양기생 구지는 자신이 마음을 주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조를 통해 드러낸다. 유혹과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정신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홍랑과 만향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실록에 실린 열녀의 보상을 받은 여염집 여성들과 상동한 이야기는 기생들의 존재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배신으로 돌려준 사대부들과 자신들은 다르다. 기생들은 위선적인 남성들을 거부하겠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런 주체적인 태도의 기반에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부터 요구된다. 장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존재가치를 격상시킨다. 송이가 자신의 이름을 차용하여 지은 시조는 사대부여성작가였던 허난설헌의 〈난초〉와 비견되는 자존감의 발로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주체적 태도를 나타낸다. 사실 위의 열녀적 가치를 함양한 것 또한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신들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향은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원하지 않는 남성은 나도 원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맘에드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시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사신으로 온 이들의 접대를 거부하며 죽음으로 맞서는 모습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주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생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기 위한 용모만이 화려했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재주를 익히고 학문을 닦았다. 그렇기에 이들의 지적수준은 사대부들과 대등하게 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였고 이에 필수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수반되었다. 이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었던 기생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위선, 자신들을 향한 잘못된 시선들을 사회에 반하지 않는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 스스로가 증명하며 가치를 알렸다.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생들은 우리 예술, 문화의 한축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자료】

- 『大東風雅』
- 《大韓每日申報》
- 『孟子』
- 『瓶窩歌曲集』
- 『世宗實錄』
- 『仁祖實錄』
- 『靑丘永言』

『太宗實錄』

『海東歌謠』

【논저】

국사편찬위원회 편, 『천민예인의 삶과 예술의 궤적』, 두산동아, 2007.

김성언 역, 『쉽게 풀어 쓴 대동기문』, 국학자료원, 2001.

김지은, 「妓生時調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연구」, 『시조학논총』 48, 한국시조학회, 2018.

_____, 「기녀시조와 규방가사의 표출양상 비교연구 - 개방적 표출과 폐쇄적 표출-」, 『시조학논총』 36, 한국시조학회, 2012.

김혜수, 「주자철학의 충서(忠恕) 개념 분석과 그 윤리학적 고찰」, 『中國學報』 80, 한국중국학회, 2017.

김흥규 외,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2.

성기옥, 「기녀시조의 감정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학회, 2000.

우재호 역, 『맹자』, 을유문화사, 2007.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이화형, 『기생:노래를 팔지언정 몸은 팔지마라』, 푸른사상, 2018.

_____, 「時調를 통한 松伊와 黃眞伊의 同異性 비교 고찰」, 『時調學論叢』 35, 한국시조학회, 2011.

_____, 「기생시조에 나타난 윤리의식 고찰」, 『時調學論叢』 39, 한국시조학회, 2013.

_____, 「조선 기생의 정조관」, 『우리문학연구』 63, 우리문화회, 2019.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忠)’의 등장」, 『국학연구』 18, 한국학연구원, 2011.

황충기,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생시조와 한시』, 푸른사상, 2015.

<http://sillok.history.go.kr>

〈Abstract〉

Study on Confucian values of Gisaeng

- Focusing on sijo-

Lee, Kyoung-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nfucian values that were adopted by Korean Gisaeng an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Gisaeng through those values. In doing so, Korean Sijo created by Gisaeng will be employed for explanation. Though very few works created by Gisaeng are passed down, Gisaeng definitely formed part of Sijo writers in Joseon Dynasty. Sijo is a form of literature which is written in Korean language and is considered to show well the sentiments and ideas of the time. Therefore, Gisaeng's Sijo works were studied in this paper to examine their values and sincerity through their living circumstances and experience therefrom.

It would have been essential for Gisaeng to have Confucian values because Confucianism was the mainstream ideology at the time and they had to interact with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However, their values seem to differ from those of men and women in the gentry society in that their values were not firmly grounded in doctrines and scriptures. Rather, their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wa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real life. Their Confucian values were not found in four virtues (Sadeog) or five constant virtues (Ogang) that address intrinsic qualities of human being but could be found from Faith, one of the Five Moral Disciplines (Samgang Oryun) for basic human relations that is required between friends. It is shown that Gisaeng stood up to betrayals and hypocrisy among the gentry-class males.

In addition, Gisaeng's spirit of self-sacrifice at moments of national crisis or ruling power transition could be viewed as Loyalty (Chung). Their stories of loyalty were intermingled with noblemen's change of mind and their Confucian values were manifested in the attitude of virtuous women (Yeolnyeo) on some occasions. Gisaeng showed in action the determination to take a path away from noblemen who were no different from gentry-class women and who poured out nothing but hypocritical and untrue words. They showed that they were dissimilar to the people in the gentry society through their independent behaviors. They also rejected men who were not up to their standards and refused to get involved in

activities deemed indecent to highlight Gisaeng's subjectivity in searching for their own value.

Key Words : Gisaengsijo, Confucianism, Faith, Subjectivity, Loyalty, Yeolneo

이 논문은 2020년 1월 4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근대 매체를 통해 본 고시조 선별 방식과 특성(2)*

- 『별건곤』 소재 고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

김태웅**

〈국문초록〉

근대독자의 확산이라는 배경 아래 천도교가 설립한 개벽사에서 발간한 잡지가 『별건곤』이다. 이 잡지는 1926년 11월 ‘취미와 실익’을 슬로건으로 1934년 6월 폐간 될 때까지 『삼천리』와 함께 가장 인기가 많던 잡지였다. 『별건곤』에는 40수 그 중에서 반복되는 작품을 제외하면 35수 내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앤솔로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작품의 구성을 분석해보니 단순히 아무 작품이나 수록한 것이 아닌 그 당대의 시의성을 함의하고 있다.

『별건곤』의 시조 편집자는 시조부흥운동의 주체가 남자인 것을 감안하여 여성의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무신들의 작품은 주로 남성독자들에게 적합한 주제이기에 남성 독자를 배려하기 위한 일환이었거나 시조장르를 남성중심의 장르로 인식해서 남자 작가들의 작품만 수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대 잡지 소재 고시조 연구는 매우 소략하기에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별건곤, 고시조, 앤솔로지, 편집의식, 근대독자

I. 머리말

1905년에서 1910년까지를 주로 애국계몽기로 파악한다. 이때는 많은 일간지

* 이 논문은 2018년 12월에 발표한 「근대 잡지를 통해 본 고시조 선별 방식과 특성-〈매일신보〉 고시조 작품을 대상으로」(『반교어문연구』50, 반교어문학회)의 후속연구로 〈매일신보〉는 잡지가 아닌 신문이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제목을 ‘근대 잡지’가 아닌 ‘근대 매체’로 바로잡고자 한다.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들이 활발하게 발행되었는데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조선인의 출판은 일본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을 받아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폐간되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을 문화정치를 시행하고 이를 계기로 신문지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신문, 잡지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1920년대의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더욱이 근대교육의 확산으로 인한 근대독자가 많이 나옴으로써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늘리는데 일조하였다. 근대 조선인의 문맹률이 낮아진 것은 도서관 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920~1935년 사이에 도서관 이용수가 10배나 증가했다.¹⁾ 이것은 근대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대 읽기가 지배층의 특권이었다면 근대에는 사람들의 취미이자 오락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알려준다.²⁾

이러한 배경 아래 천도교가 설립한 개벽사에서 발간한 잡지가 『별건곤』이다. 이 잡지는 1926년 11월 ‘취미와 실익’을 슬로건으로 1934년 6월 폐간될 때까지 『삼천리』와 함께 가장 인기가 많던 잡지였다.

기존 선행 연구는 주로 서사장르에 연구방향이 집중되어 있다.³⁾ ①젠더의식을 분석한 경우, ②‘취미’를 매체의 담론과 관련지어 분석한 경우, ③서사전략을 파악하는 경우, ④간행배경을 논의하는 경우 등이 『별건곤』의 서사장르를 연구한 것이다. 이에 반해 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데 유행가가사 공모에 대한 연구, ‘시’인식과 활용방식을 연구한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별건곤』에 나오는 시조 및 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나 고시조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

1)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 한국독서학회, 2005, 221~222쪽.

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8쪽.

3) 『별건곤』의 연구사 검토는 김영주(「1920~1930년대 매체의 ‘시’ 인식과 활용방식- 『別乾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에 의해 자세하게 다뤄진 바 있기에 이 글에서는 김영주의 검토를 요약하기로 한다.

렇듯 『별건곤』에 수록되어 있는 고시조 전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할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별건곤』 수록되어 있는 고시조 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별건곤』 고시조의 선별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⁴⁾

II. 『별건곤』 소재 고시조

1. 『별건곤』 소재 고시조 작품 현황

『별건곤』에는 고시조를 수록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명을 사용한다. 그 제명은 ‘시조(詩調)’, ‘화시조(花時調)’의 제명을 사용했으며 모두 40수이다.

회	날짜	작가	작품(초장)	작품 수	제명 (題名)
1	1926.11. 01. (창간호)	李鼎輔	瀟湘江 달 밝은 밤에 도라오는 저 기억아	6	詩調 - 목차에는 古時調六章
		失名氏	大棗 불 붙은 가자에 후루어 홀터 따담고		
		柳自新	秋山이 夕陽을 띄고 江心에 잠겼는데		
		同(柳自新) ⁵⁾	白沙江 紅蓼邊에 구벽이는 저 白鷗야		
		金光煜	秋江에 月白키를 一葉舟를 흘너져어		
		同(金光煜)	蘆花 피는 곳에 落霞를 빗기띄고		
2	1926.12. 02	無名氏	靑山에눈이오니 蜂마다玉이로다	6	무제 - 목차에는 時調六章-古人
		李牧隱	백설이자사진골에 구름이 메흐레라		
		金宗端	朔風은나무쑈에불고 明月은눈속에찬데		

4) 주지하듯 『별건곤』은 취미담론을 전면에 내세운 근대매체이다. 그렇다면 이 잡지에 수록된 고시조 역시 취미담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시기 고시조는 시조놀이로 취미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별건곤』에 수록된 ‘시조’ 역시 취미담론의 자장 안에서 보면 시조놀이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별건곤』에 수록된 시조는 시조놀이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金裕器	춘풍도리화들아 고흔樣子자랑마라		
		無名氏	白頭山에 눕히안저 압릿쓸굽어보니		
		楊蓬萊	泰山이높다하되 하날아래되이로다		
3	1927.02.01	無名氏	매화 넷 등걸에 春節이 도라오니	6	제명 없음 목차에도 없음
		李廷蓋	雪月이 滿庭한데 바람아 부지마라		
		安玟英	東閣에 숨은꽃이 躑躅인가 杜鵑인가		
		無名氏	松林에 눈이오니 가지마다 꽃이로다		
		安玟英	저건너 羅浮山 눈속에 검어웃득		
		元天錫	눈마저 휘여진대를 뒤라져 굽다턴고		
4	1929.01.01	無名氏	二十四稿月明한데 佳節은 正月上元이라	5	제명 없음 목차에도 없음
		無名氏	龍樓에우는목은 太簇律을 應하였고		
		朴孝寬	지난해오늘밤에발빛출보왔더니		
		無名氏	白雪이 滿乾坤하니 千山이 玉이로다		
		安玟英	바람이 눈올모라 山窓에부드치니		
5	1929.12.01	金宗瑞	朔風이나 무춧해불고 明月은 눈속에 찬데	6	제명 없음 목차에도 없음
		金宗瑞	長白山에 旗를 쫓고 豆滿江에 말쫓기니		
		李舜臣	閑山섬달밝은밤에 戌樓에 온자안저		
		金壽長	赤鬼馬살지게먹여 豆滿江에 씻겨세고		
		金壽長	十年갈든칼이 匣裏에우노메라		
		金斗性	韓門變將이 氣雄豪하니 七尺長身에 佩刀라		
6	1930.05.01	花編	모란은 花中王이오	4	花時調 목차에는 花編(時調)
		春宵	春宵가 苦短키로 日商에이러나서		
		桃花流水	頭流山兩端水를 냇듯고이제보니		
		나비들아	小院百花叢에 ■날으는나비들아		
7	1930.06.01		閑山섬 달 밝은 밤에戌樓에 혼자 안저	1	李忠武公時調
8	1931.10.01	李浣	群山을 削平턴들 洞庭湖 넓을났다	6	古調六章 -목차에는 없음
		金裕器	泰山에 올라안저 大海를 굽어보니		
		金宗瑞	長白山에 旗를 쫓고 豆滿江에 말 쫓기니		
		李舜臣	閑山섬 달 밝은 밤에 戌樓에 혼자 안저		
		無名氏	天下 七首劍을 한대 모화 뱌를 매며		
		李鼎輔	菊花야 너는 어이 三月 東風 다 지나고		

『별건곤』의 고시조는 1926년 11월 1일 창간호부터 1931년 10월 1일 44호까지 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1~2회는 한 달 간격으로 6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고 3회는 두 달 뒤인 1927년 2월에도 6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4회는 2년 뒤인 1929년 1월 1일 5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5회는 같은 해 12월에 6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6회는 다음 해인 1930년 5월에 4수의 작품을 7회는 한 달 뒤인 6월에 1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 8회는 그 다음 해 10월 1일 6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별건곤』 소재 고시조는 총 40수이다. 6수 수록이 5번(1, 2, 3, 5, 8회), 5수 수록이 1번(4회), 4수 수록이 1번(6회), 1수 수록이 1번(7회) 있다. 이를 통해 『별건곤』의 고시조 편집자는 4~6수를 수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4~6수를 수록한 것은 『별건곤』에서 고시조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편찬자는 고시조를 수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후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2. 『별건곤』 소재 고시조 작가 현황

『별건곤』 소재 고시조의 작가가 표기된 작품은 총 36수 중 유명씨 작가의 작품은 27수, 실명씨(失名氏) 1수, 무명씨(無名氏) 8수이다.

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작가	李鼎輔 失名氏 柳自新 柳自新 金光煜 金光煜	無名氏 李牧隱 金宗端 金裕器 無名氏 楊蓬萊	無名氏 李廷璽 安玟英 無名氏 安玟英 元天錫	無名氏 無名氏 朴孝寬 無名氏 安玟英	金宗瑞 金宗瑞 李舜臣 金壽長 金壽長 金斗性	작가 표기 없음	李忠 武公	李浣 金裕器 金宗瑞 李舜臣 無名氏 李鼎輔

유명씨 27수의 작품 중 이정보, 류자신, 김광욱, 김유기, 김수장의 작품은 2

5) 원문에는 '同'자만 쓰여 있다.

수씩, 김종서, 안민영, 이순신의 작품은 3수씩, 나머지는 1수씩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별건곤』소재 고시조 역시 원천석 등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인물까지 나타나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가집과 고시조엔솔로지에는 열성어제나 기녀시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별건곤』에는 조선의 왕이 지은 작품은 등장하지 않으며 왕족인 이정보의 작품이 맨처음과 맨끝을 장식하고 있다.⁶⁾

Ⅲ. 『별건곤』 소재 고시조의 선별방식과 특성

1. 권두언을 대신하여⁷⁾

창간호(1926년 11월)에 고시조가 ‘시조(詩調)’라는 제명으로 수록된 후 대여섯 편의 시조들이 수록된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수록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권두언을 대신하여 한 페이지에 묶여서 발표된다. 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두언을 대신하여 첫 페이지에 시조작품이 수록되는 경우가 있다. 1926년 12월호, 1927년 2월호, 1929년 1월호가 이러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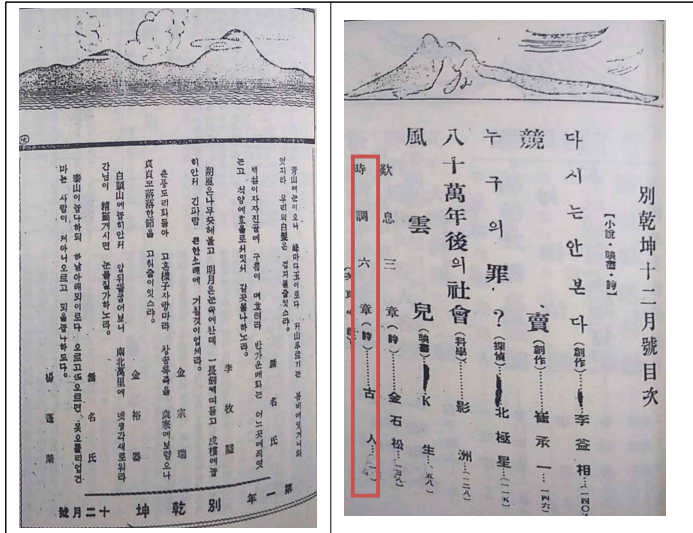
1) 1926년 12월호

『별건곤』 창간호의 시작은 시조와 함께 시작한다. 목차에는 ‘時調六章-古人’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7) 김영주는 “권두언을 대신하여 첫 페이지를 여러 편의 시조가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잡지가 발간된 해당 계절의 감각을 살리는 작품들로 선정되어서 특별하게 뜻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수사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배치로 보인다.”(『1920~1930년대 매체의 ‘시’ 인식과 활용방식- 別乾坤 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5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435쪽.) 하지만 단순히 수사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배치가 아니라 고시조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시가 장르였기에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권두언에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6년 12월호의 작품은 총 6수로 다음과 같다.⁸⁾



- ① 靑山에눈이오니 蜂마다玉이로다 저山푸르기는 봄비에잇거니와 엇지타 우리
의 白髮은 검거불줄잇스랴. 無名氏
- ② 백설이자자진골에 구름이 메흐레라 반가운매화는 어느곳에 피엿는고 석양에
호을로서잇서 갈곳몰나하노라. 李牧隱
- ③ 朔風은나무쑈에불고 明月은눈속에찬데 一長劒예들고 戍樓에놓히안저 긴과
람 큰한소래에 거칠것이업세라. 金宗端
- ④ 춘풍도리화들아 고흔樣子자랑마라 창송묵죽을 歲寒에보렘으나 貞貞코落落한
節을 고칠줄이잇스랴. 金裕器
- ⑤ 白頭山에 놓히안저 압뒤뜰굽어보니 南北萬里에 넷생각새로워라 간님이 精靈
게시면 눈물질가하노라. 無名氏
- ⑥ 泰山이놓다하되 하날아래뫼이로다 오르고또오르면 못오를리업건마는 사람이

8) 앞으로 나오는 작품의 띄어쓰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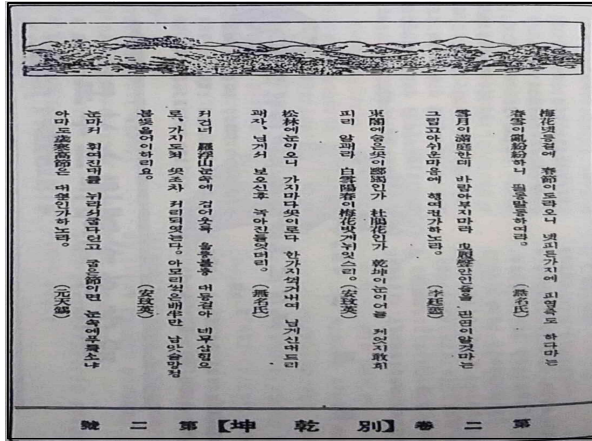
제아니오르고 피을놉나하도다. 楊蓬萊

①~④ 작품의 경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과 관련이 있다. ①번 작품의 경우 주제는 탄로지만 초장에서 ‘청산에 눈이 오니 봉우리마다 옥같다.’라고 노래하거나 ‘봄비’라는 시어를 활용하였다. ②번 작품은 우국지정을 노래하고 있지만 백설이 자자든 후에 피는 매화에 대해 노래하고 있고, ③번 작품은 장수의 기상이 주제지만 ‘눈속’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번 작품은 송죽의 절개를 찬양하고 있지만 ‘세한’을 통해 겨울이 계절적 배경을 춘풍에 피는 도리화도 노래하고 있어 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주제는 다르나 계절적 배경을 통해 『별건곤』 12월호가 발간된 계절과 비슷한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⑤~⑥번 작품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⑤번 작품의 경우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⑥번 작품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는 다르나 두 작품 모두 ‘산이 높다’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듯 12월호의 작품들은 계절감을 알려주는 시어가 있거나, 동일한 시어를 사용하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927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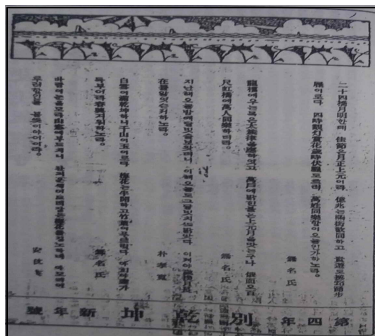


1927년 2월호의 작품은 총 6수로 다음과 같다.

- ① 매화넋등걸에 春節이 도라오니 넷피든가지에 피엄죽도 하다마는 春雪이 亂紛紛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無名氏)
- ② 雪月이滿庭한데 바람아부지마라 曳履聲안인줄을 판연이알것마는 그림고아쉬운마음에 행여 근가하노라 (李廷薰)
- ③ 東閣에숨은꽃이 躑躅인가 杜鵑花인가 乾坤이눈이어늘 제엇지 敢히피리 알과라 白雪陽春이 梅花 밧게늑잇스리 (安致英)
- ④ 松林에눈이오니 가지마다꽃이로다 한가지씩거내여 넘게신대드리쾌자 넘게서보오신후 녹아진들엇더리 (無名氏)
- ⑤ 저건너 羅浮山눈속에 검어웃дук 울통불통 대등걸아 네무삼힘으로 가지도쳐 쏏조차 저리되였는다 아모리씩은배쑈만 남앗슬망정 봄뜻을어이하리요 (安致英)
- ⑥ 눈마져 휘여진대를 누라서굽다던고 굽은筍이면 눈속에푸를소냐 아마도 歲寒高節은 대뽀인가 하노라 (元天錫)

①~⑤ 작품의 경우 봄과 관련이 있다. ①번 작품의 경우 ‘매화’, ‘춘절’, ‘춘설’ 등의 시어를 통해, ②번 작품은 ‘설월’을 통해, ③번 작품은 ‘척촉’(철쭉), ‘두견화’(진달래) 등 봄에 피는 꽃 그리고 ‘백설양춘’을 통해 ④번 작품은 ‘눈이 녹는다’를 통해 ⑤번의 경우 ‘봄꽃’을 통해 작품이 ‘봄’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⑥번 작품의 경우는 봄과는 관련이 없고 ‘세한고절’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2월호의 시조는 앞의 12월호의 시조와 마찬가지로 잡지가 간행된 계절과 연관되는 작품을 권두언 대신에 수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계절감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⁹⁾

3) 1929년 1월호



1929년 1월호의 작품은 총 5수로 다음과 같다.

9) 1927년 2월호에 선정된 작품들(1-5)이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나, ①은 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②는 ‘설월’이 등장하기 때문에 배경이 겨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④는 눈 내린 소나무 숲을 꽃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시간적 배경은 겨울로 볼 수 있다. 작품 분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러한 관점도 존재함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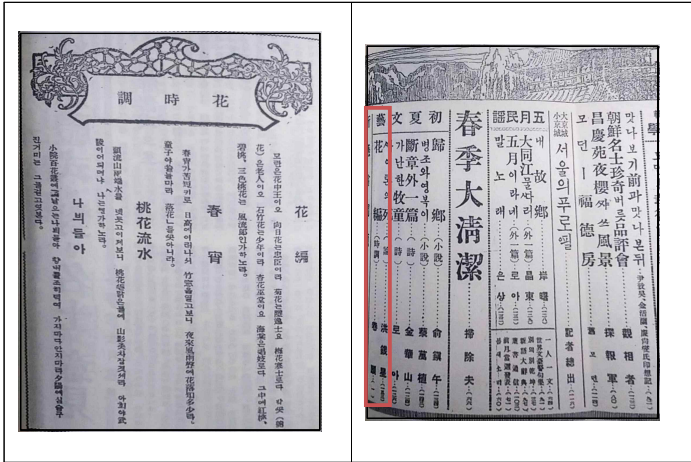
- ①二十四稿月明한데 佳節은月正上元이라 億兆는欄街歡同하고 貴遊도携筇踊步屨이로다 四時觀灯賞花歲時伏臘도트러 萬姓同樂함이 오늘인가하노라 無名氏
- ②龍樓에우는목은太簇律을應하였고 萬戶에밝힌불은上元月을맞는구나 俄而오百尺虹橋萬人同樂하더라 無名氏
- ③지난해오늘밤에달빛출보았더니 이해오늘도그달빛치또밝았다 이제야 換月長在를알엇슨저하노라 朴孝寬
- ④白雪이滿乾坤하니千山이玉이로다 梅花는半開하고竹葉이푸르렀다 아희야췌가득부어리春興겨워하노라 無名氏
- ⑤바람이눈을모라山窓에부드치니 찬괴운새어드러잠든梅花를침노하네 아모리어루려함인들 봄뜻이야어이라 安玟英

①~③ 작품은 정월 대보름과 관련이 있다. ①, ②번 작품 모두 ‘상원’이라는 시어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신년호에 대한 절기를 확실히 알려준다. ③번의 경우도 ‘상원’에 일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그 달빛을 올해는 보지만 내년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을 노래하고 있어, 달빛이 단순한 달빛이 아닌 상원의 달빛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편집자가 작품을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④~⑤의 경우 ‘눈’이라는 시어를 통해 겨울을 보내고 ‘춘흥’, ‘봄뜻’을 통해 봄이 오기를 기대함을 노래한다고 할 수 있다.

2. 주제별 분류

1) 주제어를 제시한 경우

1930년 5월 1일자 시조는 ‘花時調’라는 제명아래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호의 경우 모든 작품에 작가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조들에는 작가 대신에 주제가 기록되어 있다.



①花編

모란은花中王이요 向日花는忠臣이라 菊花는隱逸士요 梅花寒士로다 박꽃(匏花)은老人이요 石竹花는少年이라 杏花巫堂이요 海棠은娼妓로다 그中에紅桃 碧桃 三色桃花는 風流郎인가하노라

②春宵

春宵가苦短키로 日高에이러나서 竹窓을열고보니 夜來風雨聲에花落知多少
라 童子아솔들마라 落花느들꽃아니라

③桃花流水

頭流山兩端水を 넷듯고이제보니 桃花쏟맑은물에 山影쫓차잠것세라 아뢰야
武陵이어디메나 나는옌가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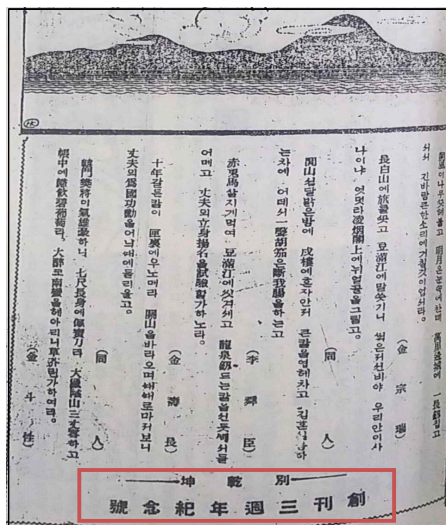
④나비들아

小院百花叢에 ■날으는나비들아 향내를조히녀여 가지마다안지마라夕陽에심
술구진거미는 그물걸고엮는다

위 작품들은 꽃과 관련된 시조이다. ①번 작품은 '화편'이라는 주제에 따라 '모란'(목단), '향일화'(해바라기), '국화', '매화', '박꽃', '석죽화'(패랭이꽃), '행화',

‘해당화’ 등의 속성을 부여하는 시조이고 ②번 작품은 봄밤의 정취를 가리키는 ‘춘소’라는 주제에 따라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③번 작품의 경우 지리산의 선경을 읊은 시조로 ‘도화유수’라는 주제에 따라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다고 노래하고 있다. ④번 작품의 경우 ‘나비들아’라는 주제에 따라 꽃과 가장 가까운 나비들에게 거미를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위 네 작품은 ‘花編’이라는 제명 아래 다시 주제어를 달고 꽃과 관련된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주제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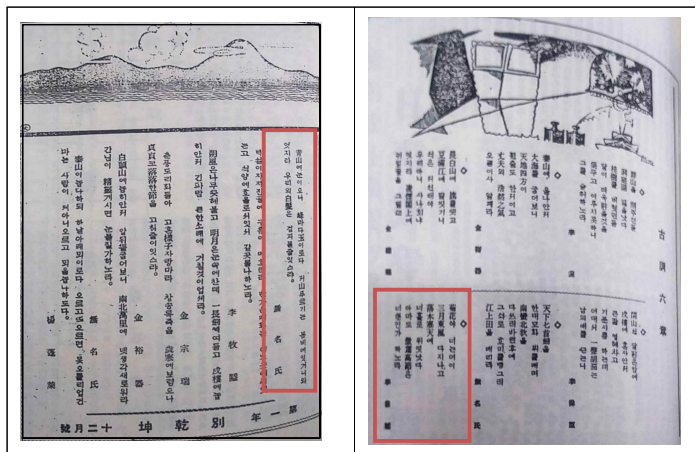
1929년 12월호는 창간 삼주년 기념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두언 대신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①朔風이나무꽃해불고 明月은눈속에찬데 萬里邊城에 一長劔집고서서 긴바람
큰한소리에서칠것이업서라 (金宗瑞)
- ②長白山에旗를꽃고 豆滿江에말쫓기니 썩은저선비아 우리안이사나이나 엇덜타
凌烟閣上에누리얼골을그릴고 (同人)
- ③間山섬달밝은밤에 戌樓혼자안저 큰칼을엽헤차고 김흔실음하는차에 어데서—
聲胡笳은斷我腸을하는고(李舜臣)
- ④赤鬼馬살지게먹여 豆滿江에씻겨세고 龍泉劔드는칼을선듯써서들어메고 丈夫
의立身揚名을試驗할가하노라 (金壽長)
- ⑤十年갈든칼이 匣裏에우노메라 關山을 바라오며새새로마져보니 丈夫의爲國
功勳을어느새에들리올고(同人)
- ⑥轅門樊將이氣雄豪하니 七尺長身에 佩寶刀라 大獵陰山三丈雪하고 帳中에
歸飲碧葡萄라 大醉코南蠻을 헤아리니草芥런가하여라 (金斗性)

위 작품들은 ‘일장검’, ‘말’, ‘사나이’, ‘큰칼’, ‘적토마’, ‘용천검’, ‘장부’, ‘입신양명’, ‘위국공훈’, ‘기웅호’, ‘패보도’ 등 장부와 관련된 시어들이며 김중서나 이순신 같은 무신의 작품이기에 그 주제가 동일하다. 김수장의 작품은 대다수 가집에서 남이장군이나 이순신 등으로 나타나 장부의 입신양명이나 위국공훈이 주제이기에 무신의 작품과 궤를 같이하며 김두성 작품 역시 장수의 기상을 노래하고 있다. ‘화시조’처럼 주제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같은 주제의 작품을 모아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권두언의 역할을 하는 작품이 계절감이나 상원이라는 절기와 관련된 작품을 수록했다면 위 작품들은 겨울이라는 계절감과 첫 작품은 관련이 있으나 그것보다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수록한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10월 1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고시조 작품은 『별건곤』에 수록되지 않는다. 1931년 10월호에는 ‘古調六章’이라는 제명에 6수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고조’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신조’라는 말의 대비어로 음악적 용어이다. 이는 이 시기에도 『별건곤』의 고시조 편집자는 시조를 음악으로 이해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¹⁰⁾



‘고조육장’의 경우 기존의 편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1~7회까지의 고시조 편집은 왼쪽 사진처럼 일반 ‘가집’에서 작품을 수록하는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면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새로운 방식으로 고시조를 수록하고 있다. ‘고조’라는 것 자체가 가창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편집방식은 ‘가곡창’인 5장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시조창’인 3장 구성도 아니다. 따라서 ‘고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옛날 노래라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별건곤』의 편집자는 시조를 가창이 아닌 읽을거리로 파악해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10) 김영주는 『별건곤』의 시에 대한 인식을 창간호부터 3주년까지는 ‘읽는 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반면 노래로서의 시가로서 인식이 컸다면 1930~1931년의 시에 대한 인식은 ‘읽는 시’에 주력했음을 논의한 바 있다. (『1920~1930년대 매체의 ‘시’ 인식과 활용방식- 別乾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51,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群山을 削平턴들 洞庭湖 넓을났다. 桂樹를 버렸턴들 달이 더욱 밝을 것을 뜻 두고 이루지 못하니 그를 슬허하노라. 李洸	泰山에 올라안저 大海를 굽어보니 天地四方이 흰줄도 한저이고 丈夫의 浩然之氣 오늘이사 알페라. 金裕器	長白山에 旗를 꽂고 豆滿江에 말 씻기니 석은 저선배야 우리 아니 사나희나 엇지타 凌煙閣上에 뉘 얼굴을 그럴꼬 金宗璘
閑山섬 달 밝은 밤에 戍樓에 혼자 안저 큰갈 엽헤 차고 기쁜 시름 하는데 어대서 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끈느니 李舜臣	天下 七首劍을 한 대 모화 뷔를 매며 南蠻 北狄을 다 쓰러바린 후에 그 석로 호미를 맹그려 江上田을 매리라. 無名氏	菊花야 너는 어이 三月 東風 다 지나고 落木寒天에 너 홀로 꺾었났다. 아마도 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李鼎輔

그렇다면 6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6장이라는 새로운 가창방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6장이라는 표기는 6편의 작품을 뜻한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도 주제가 일치한다. 1-5수까지는 장부의 기상 등 무인에 의해 작성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작품은 국화의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절개도 장부에게 중요한 덕목이었기에 위에 6수의 작품은 장부와 관련된 주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별건곤』 소재 고시조의 작자와 편집자

1. 작자 기록을 통해 본 편집자의 성격

『별건곤 소재』 고시조의 작가는 이정보, 류자신, 김광옥, 이목은, 김종서¹¹⁾, 김유기, 양봉래, 이정신, 안민영, 원천석, 박효관, 이순신, 김수장, 김두성, 이완

11) 김종리의 작품은 대다수의 가집에 김종서로 기록되어 있어 단순오기로 파악된다.

등 15명이다.

①白沙汀 紅蓼邊에 구벽이는저白鷗야 口腹을못매워 저대토록굽니는다 一身이
閑暇할진딩 살찌 무삼하리오

①번 작품은 『고시조대전』에 수록된 대다수의 가집에 무명씨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고, 『동국명현가사집록』(『청구영언』 계명대본)에만 박팽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류자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별건곤』이 유일하다. 신희의 작품을 장서각본 『청구영언』에서는 주로 류자신의 작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 앞에 대다수의 가집에 류자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별건곤』에도 류자신으로 기록된 작품이 있다.

秋山이 夕陽을 띄고 江心에 잠겼는데 一竿竹 돌너메고 小艇에 안젓스니 天公
이 閑暇히 녀어 달을 조차 보내도다

이 작품은 김천택본 『청구영언』에 수록된 이후로 『증보 가곡원류』시대에 이르기까지 100여개 이상의 가집에 수록된 매우 인기가 높았던 시조이다.

위의 시조는 강호의 한가한 생활을 읊고 있는데 초장은 서늘하게 가라앉은 느낌을 주는 가을 산, 석양, 강물 등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침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강호의 고요하고 그윽한 환경을 거꾸로 비쳐 보여준다. 중장에는 주인 공이 등장하여 조각배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다. 한 폭의 동양 산수화를 보는 듯 여운이 감돈다. 종장에서 이러한 그림을 하느님도 한가하다고 생각하여 달을 보내서 극치를 이루게 하였다고 감탄하고 있다. 그가 비록 세력을 믿고 탐혹과 교만을 일삼았다고 하나 강호한정의 운치를 알았고 수준 높은 기법으로 그 정취를 표현할 줄도 알았다. ①번 작품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 즉, 먹고 살기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먹이를 찾기 위하여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백로의 모습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류자신(柳自新)은 광해군의 장인으로 한성판윤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세자 광해군을 따라 평안북도 강계(江界)에 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국구(國舅)로서 부원군에 봉해졌으나, 인조반정으로 다시 쫓여 버렸다. 결국 ①번 작품은 류자신 자신의 삶을 빗대어 볼 때 임금의 장인으로 부원군에 봉해졌다가 인조반정으로 부원군에서 내려오게 되는 등 작품과 삶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번 작품의 작가를 류자신으로 표기한 것은 『별건곤』의 시조 편집자는 ①번 작품이 류자신의 삶과 유사한 혹은 그의 작품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작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저본으로 삼은 가집에 작가가 류자신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따랐을 가능성도 있다.¹²⁾

②蘆花피는곳에 落霞를 빗기쳐고 三三五五히 석겨나는 저白鷗야 우리도 江湖
舊邊을 차저 불가 하노라

②번 작품의 경우도 대다수의 가집에 김천택, 김인후, 정철, 김명원 등으로 작가가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별건곤』에만 김광옥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하서속집(河西續集)〉에 한역시(漢譯詩)와 함께 실려 있다. 흰 갈매기를 벗삼아 강호에서 노니는 생활을 읊은 것이다. 초장은 갈대꽃 핀 곳에 지는 노을이 비껴있다는 배경 설정이다. 중장은 삼삼오오 짝지어 노는 흰 갈매기를 제시

12) 문화류씨 서울권중친회는 『별건곤』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①번 작품을 류자신의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http://www.mhryucforum.net/bbs/view.php?id=sub44&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_arrange=headnum&desc=asc&no=53)

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투사했다. 매인 데 없이 자유롭게 자연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종장에서 갈매기와 시인이 강호에서 살아가기를 기약했던 바를 찾아보자고 하여 자신의 지향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랑하던 임금이 죽고 험난한 벼슬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갈매기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별건곤』 창간호(1926년 11월 1일)에는 김광옥의 작품이 2수 수록되어 있다. ②번 작품 위에 ‘추강에 월백커늘’¹³⁾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가집에 김광옥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편집방식은 ①번 작품 앞에 실제 류자신의 작품인 ‘추산이 석양을 띠고’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편집자는 단순히 저본을 보고 베낀 것보다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秋江에 月白커늘 一葉舟를 흘녀저어 막대를 떨쳐드니 자든 白鷗 다 놀내جت다
저희도 사람의 흥을 겨워 오락가락하더라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감성이 나타나 있다. 가을밤 달은 밝은데 일엽편주에 혼자 노를 저어 낚시 대를 들고 찾아가니 물속에 놓고 있던 흰 갈매기가 놀라서 퍼드덕 날아오른다. 백구야 놀라지 말라.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낚시 대를 들고 고기나 잡을 까했는데 네가 왜 놀라느냐? 사람에 흥에 따라 너희들도 오락가락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②번 작품의 경우 낙서 김인후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광옥의 작품으로 표기한 것은 ①번 작품과 마찬가지로 ‘추강에 월백~’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왜 『별건곤』의 편집자가 김광옥의 삶,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다른 작가가 있음

13) 秋江에 月白커늘 一葉舟를 흘녀저어 막대를 떨쳐드니 자든 白鷗 다 놀내جت다 저희도 사람의 흥을 겨워 오락가락하더라

에도 불구하고 김광옥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③雪月이滿庭한데 바람아부지마라 曳履聲안인줄을 판연이알것마는 그림고아쉬
운마음에 행여 권가하노라

③번 작품의 경우 70여종 이상의 가집에 수록된 인기곡으로 수록된 모든 가집에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곤』에는 이정신으로 작가가 기록되어 있다. 이정신은 영조 때의 문신이자 가객으로 영조 때 현감을 지냈다. 시조 창작과 창(唱)에 뛰어났다. 시조 15수가 전한다.

銀瓶에 찬물 썩라 玉鬢을 다스리고 / 金爐에 찻을 띄며 暗祝하여 비는말이 /
아무나 傳히리 잇시면 님도 슬허 히리라(육당본 『가곡원류』652번 작품)

이 작품은 이정신이 지은 작품으로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준다. 은으로 만든 병의 물을 따라 옥 같은 뺨을 다스리고 금 화로에 찻을 띄우며 가만히 축원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전해 줄 사람이 있다면 님도 그 마음을 알고 감동할 것이라고 했다. 님에게 바치는 애뜻한 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③번 작품 초장은 입을 그리는 정을 더욱더 간절하게 유발하는 배경 구실을 하며, 중장과 종장에서 바람 소리를 입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한다. 입을 기다리는 여인에게 밤은 고통의 지새움이다. 흰 눈빛을 받아 더욱 밝은 달빛이 창문에 가득한데, 바람은 어인 일로 분다는 말인가? 입의 발자국 소리가 아닌 줄은 너무나 환하게 아는 일이건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는 심정은 그리움에 응어리진 마음 때문이리라. 지극한 연모의 정을 보여 주는 이 노래는 더욱 간절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안타까운 심정이 잘 묘사되었다.

이렇듯 『별건곤』에 이정신의 작품으로 기록된 이유는 ③번 작품과 ‘은병에 찬

물~' 두 작품이 님에 대한 애뜻한 감정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대다수 가집에서 무명씨로 기록된 작품을 이정신이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시조를 부흥하고자 했던 문인들은 시조에 대한 오해가 많으면서 음풍농월하거나 애정시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개, 지조, 애국 등 교훈이 되는 작품이 많으며 옹호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가집에는 다른 작가로 기록되어 있는 작품을 류자신, 김광옥, 이정신으로 기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④지해오늘밤에달빛출보왔더니 이해오늘도그달빛치또밝았다 이제야 換月長在
를알엇슨저하노라

⑤龍樓에우는목은太簇律을應하였고 萬戶에밝힌불은上元月을맞는구나 俄而오
百尺虹橋萬人同樂하더라

④번 작품은 박효관으로 작가가 기록되어 있다. 『금옥총부』에 수록된 안민영의 작품이다. 『고시조대전』을 확인해 보면 수록된 가집에 작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민영으로 작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별건곤』의 편집자는 안민영의 작품을 박효관의 작품으로 기록했을까? <지난해 오늘밤에>의 경우 1929년 3월 간행된 『신생』6호에 작가를 『별건곤』과 마찬가지로 박효관으로 표기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잡지에 안민영이 아닌 박효관으로 작자를 표기한 것은 이 시기는 이 작품을 박효관의 작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창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안민영이 지었으나 박효관이 더 잘 불렀기에 사람들이 이 곡을 박효관의 곡으로 알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번 작품의 경우도 『금옥총부』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민영이 작가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데 『별건곤』에는 작가가 무명씨로 기록되어 있다.

⑦赤鬼馬살지게먹여 豆滿江에씻겨세고 龍泉劔드는칼을선듯써서들어메고 丈夫
의立身揚名을試驗할가하노라

⑧十年갈든칼이 匣裏에우노메라 關山을 바라오며새제로마져보니 丈夫의爲國功
勳을어느새에들리울고

⑦번 작품은 대다수의 가집에 남이장군으로, ⑧번 작품은 대다수의 가집에 김응하, 이순신, 남이장군으로 작가를 기록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를 장부의 기상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 등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문신보다는 무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남이장군이나 이순신장군을 작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데 왜 『별건곤』의 편집자는 이 작품들을 김수장의 작품으로 이해한 것일까? 김수장은 김천택의 『청구영언』을 본받아 『해동가요』를 편찬한 가객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안민영의 작품을 박효관이나 무명씨로 기록하고 무신의 작품을 가객인 김수장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때 편집자의 신분은 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장군보다는 김수장이라는 가객(중인)을 작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⁴⁾

2. 작자 기록과 시조 편집자의 의식

『별건곤』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이 젠더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식의 성장과 별건곤이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시조에서는 여성작가가 등장하지 않는다.

매화넷등결에 春節이 도라오니 넷피든가지에 피염죽도 하다미는 春雪이 亂紛

14) 홍선대원군에게는 천하장안이라 불리는 네 명의 심복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안필주이고 그의 손자가 자산 안화이다. 이러한 중인 집안이었기에 자산은 〈모범의 고시조〉에서 정철이 지은 작품을 그의 아버지인 안윤기로 기록하기도 한다. 안화의 아버지인 안윤기는 중인 신분이었다(김태웅, 「고시조 앤솔로지 편찬방법 연구」, 『시조학논총』 43, 한국시조학회, 2015).

紛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無名氏)

이 작품은 김천택본 『청구영언』에 수록된 이후로 대다수의 가집에 매화로 기록되어 있고 『교주 가곡집』에만 ‘구지’로 작가가 기록되어 있다. 작가가 ‘매화’든 ‘구지’든 기생으로 여성의 시조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 작품은 평양 기생 매화가 같은 기생 춘설에게 사랑하는 입을 빼앗기고 탄식하며 불렀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 작품이 여성이 창작하고 부른 작품임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별건곤』에서는 왜 무명씨로 작가를 기록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조부흥운동의 주체나 이 시기 지식인들이 주로 남자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조부흥운동은 육당, 가람 등에 의해 주도되었기에 여성의식은 매우 많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대 초기 1900-1920년대 시조는 주로 창으로 향유되었다. 이 시기에 시조창은 기생들이 주로 가창하였고 이에 따라 시조창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그래서 시조부흥론이 일어났을 때 일부 문인들은 이를 근거로 시조를 배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조를 부흥하고자 했던 문인들은 시조에 대한 오해가 많으면서 음풍농월하거나 애정시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개, 지조, 애국 등 교훈이 되는 작품이 많다고 옹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별건곤』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무신들의 작품을 많이 수록하고 있고 이순신의 ‘한산도가’는 세 번이나 수록하고 있다거나 한번은 아예 오직 ‘한산도가’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고시조의 편집자가 남성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조를 선별해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별건곤』의 시조 편집자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여성의 작품을 무명씨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대는 유성기음반이라는 매체로 시조가 영역을 확장해 갔고 그 시기 기생들이 노래를 취입했기에 기생에 대한 인

식이 그전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기생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작가를 무명씨로 바꿨다는 것은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별건곤』의 여성 독물에서는 여성을 허영과 사치의 아이콘, 또는 정조 문란과 타락의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배제되고 징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담론은 ‘정탐기’나 ‘탐방기’ 형식을 차용해 당대 여성의 부정성을 직접 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다. 이런 기사 형식들은 독자의 호기심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면서 잡지의 구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가부장론’과 ‘양처현모’ 담론에 위배되는 ‘신여성’ 담론과 ‘모던 걸’ 담론은 여성들을 정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엿보는 방식을 통해 별건곤은 부정적 여성 담론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상업적 잡지로 부상하게 된다.¹⁵⁾ (밀줄-논자)

이 논의대로라면 『별건곤』의 성공은 부정적 여성담론의 양상에 있다. 그런데, 기녀의 작품들도 단순히 애정이 아닌 사랑하는 입에 대한 정조를 담고 있다. 이것은 『별건곤』이 성공하는 취지하는 다른 방향이기에 편집자는 과감하게 여성의 시조 작품을 수록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무명씨 작품 중에는 여성적 어조를 띠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그것들은 작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작품만을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다수의 가집의 경우 여성작가(기생)의 작품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세기 초 독서물로써 편찬된 앤솔로지의 경우 여성작가의 작품을 빼거나 작가를 사대부로 바꾸거나 혹은 무명씨로 작품을 옮겨 수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별건곤』의 편찬자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⁶⁾

15) 김경미, 「여성 담론의 장르 간 변별성과 『별건곤』의 정체성」,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536~537쪽.

16) 물론 적은 수의 작품을 통해 일반화 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근대 신문이나 잡지 등

3. 고시조 편집의 의의

『별건곤』의 시조의 시작은 이정보의 ‘瀟湘江 달 밝은 밤에 도라오는 저 기럭 아’이고 마지막 작품 역시 이정보의 ‘菊花야 너는 어이 三月 東風 다 지나고 落木寒天에 너 홀로 휘엇났다. 아마도 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이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정보의 작품을 맨 처음과 맨 끝에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의 근대 고시조앤솔로지에는 〈열성어제〉 항목을 따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임금이 지은 작품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별건곤』에는 왕족 이정보 작품 외에는 조선의 왕이 지은 어떠한 작품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기에 더 이상 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또한 『별건곤』이 대표적인 상업적 잡지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미라고 무책임한 讀物만을 느러놓는다든지 혹은 방탕한 오락물만을 기사로 쓴다든지--등 비열한 정서를 조장해서는 안이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미는 할 수 있는 대로 박멸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취미 잡지를 시작하였다.¹⁷⁾

창간호에 실린 이 잡지의 발간 취지는 무책임한 독물, 방탕한 오락물을 박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별건곤』8호에서부터 이러한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흥미위주의 독물이나 방탕한 오락물이 가득하게 되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한다.¹⁸⁾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잡지의 발간 취지를 지킨 부분이 고시조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시조의 작품에 사설시조가 없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평시조의 경우도 대다수 사대부의 작품을 수록해 비열한 정서를 조장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결국 이정보의 작품과 함께

매체에 있는 여성작가의 작품 현황을 조사하면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17) 〈여언〉, 『별건곤』 1, 1926.11, 153쪽.

18)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김정미(앞의 논문)에 의해 자세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잡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근대 잡지 · 신문에서 고시조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시기 고시조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시기 자체가 고전과 현대의 경계에 있어 서로 미루는 실정일 수도 있고 필사본 가집이나 활자본 가집에 비하면 매우 적은 작품만 수록하고 있어 연구를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광복 후 매우 많은 수의 고시조 앤솔로지가 편찬되어 유통된다. 이러한 고시조 앤솔로지의 시작점이 근대 잡지에 수록된 고시조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분석을 해야 고시조 앤솔로지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현시대에 적합한 고시조 앤솔로지를 편찬할 수 있게 한다.

고시조 앤솔로지는 시의성이나 유행성을 통해 편집자가 작품을 선별한 것이기에 그 당대의 미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점을 잘 분석하여 현시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조작품들을 선별해 앤솔로지를 편찬할 수 있다.

『별건곤』에는 40수 그 중에서 반복되는 작품을 제외하면 35수 이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앤솔로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그 작품의 구성을 분석해보니 단순히 아무 작품이나 수록한 것이 아닌 그 당대의 시의성을 함의하고 있다.

『별건곤』의 시조 편집자는 시조부흥운동의 주체가 남자인 것을 감안하여 여성의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또한 무신들의 작품은 주로 남성독자들에게

적합한 주제이기에 남성과 여성 독자 모두를 배려하기 위한 일환이었거나 천도교는 남녀평등¹⁹⁾이 핵심이었기에 조선시대 대표 문학장르인 시조와 차별화를 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시조장르를 남성중심의 장르로 인식해서 남자 작가들의 작품만 수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근대 이후의 매체에서 고시조들은 상당한 분량으로 수록되었으나, 대부분 여러 매체에서 반복 수록되었으며 사실상 ‘전통 작품 다시 알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 시기는 근대계몽기 시조 등 다양한 시조들이 창작되는 한편, 고시조 가곡창 가집, 시조창 가집 등도 함께 발간된다. 또한 잡지나 신문에 실리는 고시조 등도 반복해서 수록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동일한 작품이 수록되는 이유는 시조라는 것이 ‘時節歌調’의 줄임말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 당대에 가장 널리 부르던 노래를 수록했기에 겹치는 것이지, 단순히 ‘전통 작품 다시 알기’를 위해 수록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에게 시각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 신문이나 잡지의 고시조를 면밀하게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전통 작품 다시 알기’ 이상의 것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된다. 아직 모든 신문과 잡지의 작품을 분석한 것은 아니기에 그 실체를 찾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근대 매체(잡지 · 신문 등)에 수록된 고시조 앤솔러지의 실체를 찾도록 노력하겠다.

19) 현재의 남녀평등과는 결이 다르다. 1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교주는 남자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별건곤의 특성을 모두 살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별건곤』(역락 편집부, 2003)

김홍규 외, 古時調大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구인모, 「시인의 길과 직인(職人)의 길 사이에서 - 『別乾坤』 지 ‘新流行小曲大懸賞募集’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4, 한국근대문학회, 2011.

권채린, 「『산책』을 둘러싼 대중담화의 지형도: 대중잡지 『별건곤』의 경우」, 『어문연구』 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김경미, 「『別乾坤』 서사독물의 대중성에 대한 매체 전략연구」, 『어문학』 1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_____, 「여성 담론의 장르 간 변별성과 『별건곤』의 정체성」,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김도경, 「식민지 검열과 대중잡지 『별건곤』의 불온성」, 『어문학』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김복순, 「별학(別學)의 탄생과 다원적 시민사회의 구상- 『別乾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대중서사학회, 2014.

김영주, 「1920~1930년대 매체의 ‘시’ 인식과 활용방식- 『別乾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김은규, 「1920/30년대 근대 취미독물 잡지 《別乾坤》을 통한 개벽사의 매체발행 전략에 대한 연구: 발행 주체, 편집 방향, 발행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65, 한국출판학회, 2013.

김진량, 「근대 잡지 『별건곤』의 “취미 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8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7, 한국근대문학회, 2006.

안희정, 「일제강점기 別乾坤에 나타난 신여성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오선영, 「『별건곤』 게재소설의 변화양상과 서사적 특성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경돈, 「별건곤 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 대동문화연구원, 2004.

이승윤,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국문

- 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0.
- 이용희,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과 탐보적 주체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9.
-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 신여성 과 별건곤 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9, 한민족문화학회, 2009.
- 전은경, 「쓰이는 텍스트’로서의 『別乾坤』과 대중문학 독자의 형성」, 『어문학』 125,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14.
- 전지은, 「『별건곤』의 영화담론 연구」, 『한국언어문화』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전혜진, 「『별건곤』에서 드러난 도시 부르주아 문화와 휴양지 표상」, 『한국언어문화』 41,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정가람, 「1920~30년대 대중잡지 『別乾坤』의 역사 담론 연구-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 대중서사학회, 2014.
- 정용서, 「개벽사의 잡지 발행과 편집진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 한국독서학회, 2005.
- 최배은, 「『別乾坤』 게재 ‘탐사 기사’의 ‘재미’를 창출하는 서술 방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20, 대중서사학회, 2014.

〈Abstract〉

Selection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Sijo(古時調) through Modern Media(2)

- the Works of Gosijo in Byeolgeongon -

Kim, Tai-Woong

Byeolgeongon is a magazine published by Gaebyeoksa and founded by Cheondogyo under the backdrop of the expansion of modern readers. The magazine enjoyed its highest level of popularity with SamCheonRi until it was closed in June 1934 under the slogan of "Hobby and Sam-Cheon-Ri" in November 1926.

Byeolgeongon contains 35 or more works, not including those works that were repeated from the 40th number of Gosijo, so it is very difficult to play the role of Anthology. However, analyzing the composition of the work implies the timeliness of the time, not just the collection of any work.

The editor of Byeolgeongon, Gosijo, intentionally excluded women's work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main body of the Sijo revival movement, the representative literary genre of the Joseon dynasty, was written by men. Additionally, the work of soldiers was mainly suitable for male readers, so this, too, was part of the consideration of both male and female readers. Equity between men and women was the key to the Cheondogyo.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ng this from Sijo;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he recognized the Sijo genre as a male-oriented genre and thus included only works by male artists.

The Gosijo study in modern magazines is very simple, and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actively continue.

Key Words : Byeolgeongon, Gosijo, Anthology, Editing Consciousness, Modern Readers

이 논문은 2020년 1월 4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彙 報

한국시조학회 이사회 자료

1. 한국시조학회 2019년도 하반기 이사회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11:30 ~ 12:30

장소 : 경희대 앞 짜마차이나 음식점

참석자 : 이화형, 김성문, 김용기, 박수밀, 진애라, 김세림, 강명주, 고승관, 이정민,
하품경

주요내용 :

- 1) 인사말 및 총회 안건 검토
- 2) 시조학회 저자 표기 관련 규정 개정 관련 논의
- 3) 신임 임원진에 대한 인수인계 일정 논의
- 4) 기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 대비 등

한국시조학회 제67차 전국학술발표대회

- 주제 : 한국시조가 나아갈 길의 모색4 : 시조와 언어
-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어국어대학관 321호
- 일시 : 2019. 12. 14.(토) 13:00~18:00
- 주최 : 한국시조학회 · 국어사학회 · 경희대 한국어학과 ·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3:00~13:20 등록 사회 : 박수밀(한양대)

13:20~13:30 개회사 이화형(경희대 · 한국시조학회장)
축사 백운식(경희대 · 국제캠퍼스 부총장)

제1부 자유발표 사회 : 김용기(중앙대)

13:30~14:00 물명(物名)으로 본 한국 근대계몽기 시조
발표 : 김형태(연세대) / 토론 : 조은별(고려대)

14:00~14:30 기생이 지닌 유교적 가치관
발표 : 이경민(경희대) / 토론 : 김지은(중앙대)

14:30~14:50 단체사진 촬영 및 휴식

제2부 기획발표 사회 : 신영명(상지대)

14:50~15:20 《양춘집》을 통해 본 1910년대 시조 향유의 양상
발표 : 강혜정(고려대) / 토론 : 배은희(인천대)

15:20~15:50 시조의 초중종 삼장 형식에 대하여
발표 : 김양진(경희대) / 토론 : 장향실(상지대)

15:50~16:20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문법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
발표 : 장요한(계명대) / 토론 : 서형국(전북대)

16:20~16:40 장내 정돈 및 휴식

제3부 종합토론(16:40~17:30)

좌장 : 김준형(부산교대)

제4부 총회(17:30~18:00)

진행 : 김성문(중앙대)

한국시조학회 편집회의

1. 제1차 편집회의

일시 : 2020. 1. 8(수) 18시 30분

장소 : 사당역 '시골 보쌈'

참석자 : 김상진(편집위원장), 배은희(편집이사), 김용기(편집이사), 김성문(편집위원, 총무이사), 김세림(편집간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52집 심사위원 배정 및 발간 건.

1) 총 투고논문 : 9편

2) 심사위원 선정

3) 발간 일정 논의

4) 기타

- 발간일정 :

2020. 1. 4. 원고마감(총 9편)

2020. 1. 16 1차 심사완료 및 심사서 취합

2020. 1. 17 제2차 편집회의(온라인편집회의) - 심사 결과 판정 및 심사 결과 메일 공지 및 1편 수정후재심 심사 의뢰(1.20일까지 수정 후게재 논문 수정본 취합)

2020. 1. 20 제3차 편집회의(온라인) - 수정후게재 수정 사항 확인 및 재심 논문 판정(수정후게재 3편 게재 판정, 재심 논문 1편 게재 불가 판정)

2020. 1. 18~22 필자교정 완료 및 출판사 인계

2020. 1.23~1.31 제3차 편집회의 및 최종교정(책사량)

2020. 2.1~2.8 한국연구재단 탑재

2. 제2차 편집회의

일시 : 2020. 1.17(금) 온라인 편집회의

참석인원 : 김상진(편집위원장), 박수밀(편집이사), 배은희(편집이사), 김용기
(편집이사), 김성문(편집위원, 총무이사), 김세림(편집간사)

주요내용 : 『시조학논총』 52집 발간 건

1) 투고논문 심사결과 논의 및 게재 편수 결정

- 9편의 투고논문 중 '게재' 2편, '수정 후 게재' 3편 수정후재심 1편(1편 재심 후 게재 불가), '게재불가' 3편

2) 발간 일정 논의.

- 발간일정 :

2020. 1. 17 제2차 편집회의(온라인편집회의) - 심사 결과 판정 및 심사결과
메일 공지 및 1편 수정후재심 심사 의뢰(1.20일까지 수정 후게재 논문
수정본 취합)

2020. 1. 20 제3차 편집회의(온라인) - 수정후게재 수정 사항 확인 및 재
심 논문 판정(수정후게재 3편 게재 판정, 재심 논문 1편 게재 불가 판
정)

2020. 1. 18~1.22 필자교정 완료 및 출판사 인계

2020. 1.23~1.31 제3차 편집회의 및 최종교정(책사랑)

2020. 2.1~2.8 한국연구재단 단 탑재

3. 제3차 편집회의

일시 : 2019. 1. 23(목)

장소 : 온라인 편집회의

참석인원 : 김상진(편집위원장), 박수밀(편집이사), 배은희(편집이사), 김용기
(편집이사), 김성문(편집위원, 총무이사), 김세림(편집간사)

주요내용 :

- 1) 최종 편집 및 교정
- 2) 『시조학논총』 발송자 명단 및 발송부수 확정
- 3) 2월 8일 전후로 편집이사(편집간사)가 한국연구재단에 탑재하기로 함.
- 4) 총 투고논문 9편 중 5편 게재로 게재율 55.6%)
- 5) 목차 논의

『시조학논총』 52집 논문 심사 경위

이번 『시조학논총』 52집에 투고된 논문은 모두 9편이었습니다. 회칙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투고 논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3명씩 총 2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통과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심사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① 1차 심사 취합 결과 : 게재 논문 2편, 게재불가 논문 3편
수정후게재 3편, 수정후재심 1편
- ② 2차 심사 결과 : 수정후게재 3편 ‘게재’ 결정, 수정후재심 1편 재심 후 ‘게재불가’ 결정
- ③ 총 투고 논문 9편 가운데 5편 최종 ‘게재’ 결정
- ④ 제52집 논문 게재율 : 55.6%
(제52집 게재 논문 5편 / 제52집 투고 논문 9편)

엄정한 심사로 인해 탈락하게 된 논문 중에는 아쉬운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시조학회가 한 단계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진통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韓國時調學會 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 이 학회는 韓國時調學會라 칭한다.

제2조 이 학회는 시조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계발, 자료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회원간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시조가 지니고 있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창달하고, 현대 사회에도 독창성을 지닌 현대시조가 계속 창작되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개최
2. 학회 논문집 『時調學論叢』 발간
3. 연구 자료 및 연구 논저 발행
4. 시조에 대한 교육 기관과 문화 기관의 자문과 건의
5. 시조에 대한 유공자의 현창 사업
6. 해외 학술 교류
7. 2년 1회(회장 임기중 시조학논총 게재 논문 대상) 시조학술상 시상
 - 회장은 학술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회장, 부회장, 평의원,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총무이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회 별도 구성)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이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재직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로써 시조 연구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1. 시조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시조문학이나 한국문학에 대한 저서 1권 이상, 또는 논문 2편 이상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이사회에서 그 회원임을 인정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이 학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부회장 중 과반수이상을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거주자로 한다.)
3. 이사(실무이사 및 지역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5.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평의회 회원이 되다.

제7조 이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추대하고,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과 평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 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 중 연장자가 수석 부회장이 되어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의결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경리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6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실천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대 및 개선
4. 회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안건

제12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학회지 『時調學論叢』의 발간과 연구논저의 발행을 위해 출판편집규정과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진행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1985년 4월 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개정 회칙은 198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개정 회칙은 1991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개정 회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 개정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6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6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시조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정 2007. 07. 21 (규정 제3호)

개 정 2017. 06. 17

개 정 2018. 12.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조학논총』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및 준수를 위하여 세부 평가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심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아래에 연구윤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소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심의를 맡은 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로 한다.

4.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예비조사

나. 자료 검토와 보완 요청

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라. 본 조사에 상정할 지에 관한 여부 결정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 판단의 기준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4조(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저술에 관련된 쏘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논문 분할 행위, 연구 윤리 관련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

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③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자기 표절)"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전체 또는 일부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논문 분할 행위 :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8. 그 밖에 국문학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저자는 본문에서 인용 표시한 것을 참고문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5.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6.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 반드시 해당 원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7.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문헌이라면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8. 선행연구 검토 시, 선행 연구의 초록을 사용했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이나 미출간된 자료를 참고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유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상식화된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조(아이디어 표절)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예시,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3.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또는 기고된 원고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내용 표절)

'내용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표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내용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중복게재)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학위 논문 포함)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에서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2. 다만,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학위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장 또는 학위 수여 기관의 장)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나 학위논문도 이에 해당한다.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주장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 침해 유의)

1. 논문이 학술지인 『時調學論叢』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인용 표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인용의 분량이 지나친 경우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위조, 변조, 표절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4조(비공개 심사 원칙)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이 심사과정에서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 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대외비로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도 대외비로 하고, 논문을 탈락시킬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제15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①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②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③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④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 ⑤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 평가하는 행위

제16조(회피•제척에 관련된 윤리적 행위)

논문을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 •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시 주의사항)

- 1. 논문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 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 2.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평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제18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결과에 대해 강한 지지나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피심사자의 논문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자로서의 타

당성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3절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9조(기본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제20조(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의뢰하되, 회피 ● 제척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회피, 제척 사유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 논문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22조(회피, 제척)

논문 투고자와 사제 관계이거나 동일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 또한 투고자와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시에 학위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분야의 전문가가 회소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논문 비공개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사

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심사 결과의 전달)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결과를 논문 게재 여부 판정과 함께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별도의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제25조(투고자 이의제기의 처리)

논문 투고자가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편집위원장이 재심사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의 제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투고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제26조(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논문 심사자
- ② 실명의 제보
- ③ 실명의 신고

④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저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일주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 부정 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국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국문학계의 관행과 특수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국문학계 전반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1.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예비조사
 - ② 본조사
 - ③ 판정
2. 예비조사는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4.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5.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제보자, 피조사자 보호)

1. 제보자는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실명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본조사)

1.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 전체에서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조사위원이 5명인 경우 외부인은 1명도 가능)

②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학회 소속이 아닌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3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자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실명의 경우)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저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전달하도록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대한 실행 여부를 조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5조(판정)

1.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위원회에서 피조사자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면, 조사위원회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윤리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에게 보고하며, 학회장은 관련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사실 전달 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유형 등의 조치가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기록보관)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한다.

제39조(문서 등의 공개)

관련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명단은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 참여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제40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서약서 제출)

학회 회원은 논문 투고 시, 투고한 논문이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 및 세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時調學論叢』 第50輯 (2019년 1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한국시조학회 출판·편집 규정

(2019년 12월 14일 개정)

제1조 총칙

1. (발간 목적) 시조 작품, 이론, 교육 및 상호 학제적 연구와 비평을 진작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2. (원고의 성격) 1항의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으로써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한다.
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한국시조학회 회원으로 정한다. 단, 기획 특집에 한하여 한국시조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4. (간행) 『시조학논총』은 2003년도부터 1월 31일과 7월 31일 연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02년 12월 30일에 『시조학논총』 제18집이 발간 되었으므로, 『시조학논총』 제19집은 2003년 7월 31일에 발간하기로 한다).

제2조 연구 윤리 활동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7.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
 -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접수한다.
 - 2) 제보 접수 후 40일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한다.

- 3) 제보자와 동의자의 신원은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만 공개될 수 있다.
8. (예비심의회) 제보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예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1) 심의회장: 부위원장이 예비심의회를 관장한다.
 - 2) 심의위원: 위원 중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 3) 특별위원: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4) 심의위원과 특별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9. (예비 심의)
 - 1)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로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2) 심의와 판명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3) 부정행위에 대한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판명은 예비심의회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 4) 예비 심의의 판명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어느 쪽으로도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명불가'로 결과 보고한다.
 - 5)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자, 혹은 제보자를 예비 심의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함께 직접 면담할 수 있다.
10. (본 심의 및 판명 결정)
 -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본 심의

- 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을 결정한다.
- 2) 예비 심의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어 결과 보고된 사안에 대한 추인 결정과 ‘판명 불가’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판명 결정은 본 심의 참석, 위임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 3)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에 대한 추인이 부결되는 경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 (들)가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각각의 판명에 의해 책임을 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 한다.
- 1) ‘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on-line 출판과 DB의 탑재 파일을 삭제한다.
 - 2) ‘부정행위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제명한다.
 - 3)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 의에 의해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자 의견, 조치 사항을 포함한 ‘공시’ 를 발표한다.
 -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는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이 사회의 결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
 -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및 기관에 심의결과를 이 사회의 결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원고의 전체 형식

12.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의 경우 국한문 혼용으로 표기하고,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안에 외국어를 넣는다.
13.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14. (저자)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저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명 또는 교신저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앞부분에 기재하고 참여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랫부분에 기재하여 제1저자와 참여저자, 교신저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하며,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15.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다만 영문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16. (주제어) 각 논문마다 5~6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17. (참고문헌) 본문에 이어서 ‘참고문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제4조 논문의 편집 형식

18. (전체 편집)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1) 용지 설정 :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 2) 용지 여백 :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 3) 문단 모양 : 여백은 왼쪽 0ch, 오른쪽 0ch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 4) 글자 모양 :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19. (목차) 목차의 장 절 항의 표기 형식은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아라비아 숫자-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I ……

1 ……

1) ……

(1) ……

① ……
20.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의 분량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어서 기술하며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한다.
21. (각주) 자료의 출처나 원문 및 참고문헌을 밝히고자 할 때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 1) 각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위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각주의 내용은 해당 쪽의 아래에 싣는다.
- 2) 각주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 3) 각주의 인용 문헌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국문도서 예) 임종찬, 『시조문학의 본질』, 대방출판사, 1986, 19쪽.

영문도서 예) Groothuis, Douglas R., Unmasking the New Age, Downer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p.23(영문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함)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필자명, 「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예) 류준필, 「안민영의 매화사론」, 간행위원회,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2』, 집문당, 1995, 570쪽.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4) 학위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수.

예) 최동국, 「조선조 산수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5쪽.

(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 ○, 발행처(또는 발행주체)명, 출판년도, 쪽수.

예) 김상진, 「'시조와 여성'을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시조학 논총』 50, 한국시조학회, 2019, 7쪽.

- (6) 신문의 경우
「기사제목」, 『신문명』, 연월일, 면수
- (7)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 － 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 － 인용한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 22. (참고문헌표기)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을 원칙으로 하며 각 주의 인용 문헌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영문 저서의 저자명은 First Name, 2nd Name의 이니셜로 한다.
- 23.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4. (기타)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 25.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제5조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 26. (기고) 원고는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신청에 접수하거나 편집이사에게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7. (논문 게재 신청서)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

상 명세는 투고 당시 작성한 '논문 게재 신청서'에만 명시한다.

- 1) 신청서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 필자의 소속 직장, 우편과 이메일 주소, 전화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28.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상반기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하반기의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논문 게재 횟수는 회원당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 게재는 2회까지 허용한다.**

29. (심사)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마감일 경과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투고논문 심사조서 양식을 사용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조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0.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조서의 10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당 5단계(A:아주 우수 1~0.9, B:우수 0.8~0.7, C:보통 0.6~0.5, D:미흡 0.4~0.3, F:아주 미흡 0.2~0.1)로 평가한 뒤 점수 합계를 산출한다.
- 2) 심사위원의 산출점수가 8점 이상은 (1)게재, 7.9~7.0점은 (2)수정후 게재, 6.9~6.0점은 (3)수정후 재심사, 6.0점 미만은 (4)게재 불가이다.

- 3) (2)수정후 게재, (3)수정후 재심사, (4)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4)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8점 이상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점 미만이면 수정후 게재
 - 5) ‘수정후 게재’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7.9~7.0점 사이
 - (2) 단 심사위원 1인의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수정후 재심사
 - 6) ‘수정후 재심사’ 최종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게재불가’는 다음의 경우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1) 심사위원 3인의 합계 평균이 6.0점 미만
 - (2) 단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
3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편집위원회와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학회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편집 및 발간

3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제 1저자와 제 2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3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투고한 필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소

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34. (저작권) 『시조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한국시조학회는 저작권을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편집 위원회의 구성

35.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36.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편집위원장 1인과 최소 7명 이상 최대 2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한다.
38.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성과가 높은 원로 학자를 선임하고, 편집위원은 시조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이 뛰어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 부 칙

39. 본 규정의 시행과 수정은 한국시조학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0.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부터 적용된다.(본 규정의 시행으로 이전의 논문 심사규정과 논문투고규정은 폐기한다.)
41. 본 개정된 규정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적용한다.
42. 본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43. 본 개정된 규정은 2017년 6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4. 본 개정된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5. 본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시조학논총』 () 논문 평가 심사서

소속 대학(), 심사자 성명()

논문 제목										
평가	평가지표 \ 평가등급		A 0.9~1	B 0.7~0.8	C 0.5~0.6	D 0.3~0.4	F 0.1~0.2			
	1	본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제인가?								
	2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인가?								
	3	기존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검토가 적절한가?								
	4	논리적 전개(서론, 본론, 결론)가 타당한가?								
	5	논문의 전개에 통일성과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가?								
	6	어휘, 문장 및 문단의 구조가 분명하고 적절한가?								
	7	체제 및 형식이 원고 작성 요령에 맞는가?								
	8	사실의 정확성과 근거가 명확한가?								
	9	정확한 인용을 하고 있는가?								
	10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의 내용이 적절한가?								
총괄 판정	◎ 총점 : ____점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위의 평가 항목에 의거해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 및 형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을 기입해 주시고, 해당 결과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총평										
수정 요구 사항										

* 총평 및 수정사항 난이 부족한 경우 다음 면을 이용하십시오.

한국시조학회 회원 주소록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지택			
1	강경훈	성결대학교		(031) 702-71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APT 109-2301		123
2	강관진	증양대학교		010) 3709-129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증양대 국어국문학과		222
3	강구윤	동양대학교	(054) 630-1204	(054) 637-2259	(직장) 경북 영주시 풍가읍 교촌동 1번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 (주택) 750-754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5 1동 610호 현대강변타운 bongamm@dawn.net	윤리위원	154
4	강명주	증양대		010) 3620-1041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30 청담신원아침도시마인 413호	총무간사	247
5	강명혜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250-8120	(033) 253-6265	강원도 춘천시 교동 148-18 019-367-5735 MYONGHYE@chollian.net	지역이사	54
6	강영미	서경대학교		016) 273-4539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한국학관 A동 106호		237
7	강진구	증양대학교	(02) 820-5903	010) 2109-5904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증양대 국어국문학과		224
8	강해숙	민족사관 고등학교		(02) 226-3838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APT 106-201		92
9	강호정	한성대		010) 2423-0863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42길 301호		240
10	고경식	경희대학교 국문과	(02) 961-0019	422-1968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26
11	고미숙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주강7단지APT 704-1102		80
12	고순희	부경대 국문과	(051) 620-6619	(051) 621-9410	부산시 남구 대연동 399-1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kosh@pknu.ac.kr		139
13	고승관	제주대		010) 4612-7854	제주시 금월길 66(아라2차마다움) 202동 401호	총무간사	248
14	공종원	중앙일보사 논설위원	(02) 7515-253	(02) 353-1830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논설위원실		17
15	곽지영	증양대학교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221 증양대 국어국문학과		214
16	구사회	선문대학교			336-708 출산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이사	84
17	구수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042)822- 0101~11		대전시 동구 삼설2동 345-2		11
18	국윤주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지택			
19	국효문	호남대학교 국문과	(02) 371-8211	(02) 232-2929	광주시 동구 학1동 612-24		82
20	권두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80-6048	(031) 423-3089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우성아파트 201-1502		147
21	권성훈	경기대		(010) 5305-497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신현대아파트 1동 901호	편집이사	242
22	권순희	고려대학교	(02) 3290-2501		서울시 성북구 안양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6
23	권오경	부산외국어대 학교	(053) 850-7761	(053) 763-7355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55-1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37
24	권용주	새종대학교 평생교육원	(02) 3408-3463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새종대학교 평생교육원		87
25	김 종	조선대학교 문리대국문과	(062) 222-8151	(062) 222-5669	광주 서구 화정3동 우미APT 102-210		12
26	김갑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2260-3146	(02) 412-8712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우성APT 283-105		32
27	김금남	남서울대학교		(010) 3669-655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410-304		210
28	김기현	경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53) 950-5118	(053) 741-699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 gihyun@knu.ac.kr		42
29	김난주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02) 732-5574	(02) 886-2713	서울 관악구 봉천1동 181-6 현대APT 101-1408		79
30	김대행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02) 362-0151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9-96		28
31	김동준	동국대학교	(02) 260-3391	(010- 2017-0719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삼성(아) 107동 1801호 kdjoon@hananet.net	평의원	1
32	김명순	대구한의대학 교	(053) 819-1315		경북 경산시 칠촌동 산 75번지 대구한의대 한문학과		152
33	김명준	한림대학교	(033) 248-3423	(010) 6526-1302	충천시 한림대학길 39, 연암관 4층 2430호 국어국문학과	부회장	111
34	김명희	강남대학교 국문과	(031) 2803-677	(031) 263-617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 6-2 강남대학교 kmh@kns.kangnam.ac.kr		50
35	김문기	경북대학교		(053) 950-5825	대구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67
36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02) 2243-8282	(011) 9586-008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6동 304호		180
37	김병국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산 30 건양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31
38	김상선	중앙대학교	(02) 829-5031	(02) 589-219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419-50 (우) 156-091	평의원	5
39	김상진	한양대학교		(010) 4824-5313	경기도 군포시 공내동 금강아파트 910동 1602호	평의원	16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40	김석배	금오공대	(054) 467-4359		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금오공대 인문사회과학부		185
41	김선풍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02) 812-0944		서울 중구 신당2동 432-13 창충그린빌라 102		83
42	김선희	대전 중리초등학교	(042) 633-7684	(042) 635-5837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동 보람APT 114-502		126
43	김성기	조선대학교 국문과	(062) 230-6515	(062) 265-8190	광주 북구 각화동 471 금호타운 12-202		72
44	김성동	선아고등학교		(018) 351-5660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팬터APT 4-1306		213
45	김성면	전북대학교	(041) 956-6612	(063) 245-0056	전주시 덕진구 우이2가 롯데아파트 108동 603호		161
46	김성문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6476	(010) 7727-7538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총무이사	204
47	김세림	한양대		(010) 4652-2852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301호 국어교육과 사무실	편집간사	250
48	김시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02) 290-0089	(02) 557-6905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31
49	김신중	전남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62) 530-3137	(062) 373-8383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 국문과 skim@chonnam.ac.kr	지역이사	64
50	김영돈	제주도청 문화체육부	(064) 23-6141 교)306	22-8856 53-1838	제주시 일도2동 162-31 신산미화APT 다-107		35
51	김영운	한국학중앙연구 원 인문연구실	(031) 709-81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708-7 정문연사택 101-4		104
52	김용기	중앙대		(010) 6207-7741	(215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금호타운아파트 105동 1801호	편집이사	245
53	김용찬	한중대학교 국문과	(033) 520-9203	(033) 535-2650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 119 한중대학교 국문과		93
54	김원태	(주)MODA 대표이사	86)216-11 3-5233	86)139-16 60-0701	3/Floor, 3B Panish Bldg No.158, Guyang Rd, Shanghai, China.		227
55	김은미		(031)371- 6211~4	(031) 92-088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비구 379-2501		74
56	김의숙	강원대학교 국문과	(033) 50-6114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57
57	김인구	춘천간호보건 전문대학	(033) 240-9024	(033) 261-577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45 금호APT 201-201		39
58	김정민	수원대학교	(032) 552-9407	(010) 5272-9407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074-7 대양나이스빌자 1011호		209
59	김정오	중앙대학교		(011) 630-600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문과		186
60	김정화	동국대학교		(032) 438-4709	인천시 남구 관교동 성지APT 102-703		94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지택			
61	김정화	영남대학교		(053) 986-6262	대구시 동구 둔산동 214-1번지		165
62	김종규	대불대학교		(061) 273-5770	전북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307-304		146
63	김종환	육군3사관학교	(054) 330-4611	(010) 3337-3826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하리 사서함 135-9호		150
64	김좌기	전교장		(033) 652-5279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40-23 대림맨션 1003		53
65	김주석	강원대학교	(02) 956-4256	(010) 3243-4253	(우)132-758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서원아파트 104동 706호 juserk2@naver.com		237
66	김준옥	여수대학교 국문과	(062) 659-3556	(062) 262-8401	광주 북구 각화동 금호타운 12-501		97
67	김중열	군산대학교 국문과	(063) 60-1315	(02) 336-284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6-38		71
68	김지용	전교장	(031) 88-530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88-6 초원(大元)APT 309-1303		30
69	김지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915-2731	(010) 3686-7734	서울시 성북구 상원곡동 동아아파트 105동 1303호	총무이사	225
70	김진희	인천대학교		(016) 466-4435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6
71	김창원	경기대학교 국문과	(031) 249-9131	(010) 2266-9703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19-49		112
72	김태웅	경기대		(010) 3928-043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지리 산호아파트 103-803		244
73	김태웅	상군관대		(010) 3928-043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행복마을아파트 113동 304호		238
74	김태준	동국대학교 국문과	(02) 260-3147	(02) 815-8988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36
75	김풍기	강원대학교 국교과	(033) 250-661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7
76	김학성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02) 760-0238	(02) 704-2903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삼성APT 111-502		70
77	김원선	경기대학교		(018) 356-9108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60
78	나정순	한남대학교		(011) 768-394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4 트윈타워 B동 1405호		156
79	남동걸	인천대학교	(032) 441-5073	(010) 4326-2933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산명3차APT 302동 1004호	홍보이사	99
80	남상득		(042) 863-7173	(042) 489-5731	대전 광역시 서구 월평 3동 황실타운 아파트 106- 607		132
81	노규호	한중대학교	(033) 520-9204	(010) 2557-9353	강원 동해시 지흥동 한중대 한국어문학부		219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자택			
82	노인숙	교원대학교	(043) 230-338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교원대 부속고등학교 noirsook@hanmail.net		133
83	瀬尾文子			(052) 751-1788	日本國 名古屋市 昭和區 元宮町 6-17		49
84	류경환	천안 북일고등학교		(032) 341-1639	경기 부천 소사구 범박동 33-2 2/7 연립 가-204		78
85	류수열	한양대학교		(053) 220-2320	서울시 성북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윤리위원	170
86	류재순	(주)미창석유 대표이사		(051) 403-6441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주식회사 미창석유		228
87	류찬열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02) 820-5905	(010) 6566-288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부회장	215
88	류해춘	성결대학교 국문과	(031) 467-8153	(016) 343-32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교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rhc@sungkyul.edu		58
89	문무학	영남일보	(053) 757-5113	(053) 985-7524	대구 영남일보 논설위원실		56
90	문영오	동덕여자대학 교 국문과	(02) 913-2001 ~5	(02) 391-8063	서울 종로구 홍자동 63-5		19
91	문주석	영남대학교			대구시 동구 방촌동 1113-284 대천빌라 101호		162
92	민병관	부산대학교 국문과		(010) 8581-5493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국문과		205
93	박규홍	경일대학교	(053) 850-7105	(053) 792-2933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601번지 시지보상타운 263-903 khpark@bearkyungil.ac.kr		68
94	박기호	신구전문대학 출판학 강사		(02) 782-98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은하APT C-903		63
95	박길남	한남대학교	(042) 629-7311	(042) 226-5080	대전시 중구 대사동 계룡APT 2-1501 Yu5080@kornet.net		95
96	박명희	전남대학교 국문과 강사	(062) 520-6631	(061) 333-2095	전남 장성군 영천리 944-12		66
97	박미영	백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 550-0511	(010) 7448-6511	충남 천안시 안서동 천안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감사	145
98	박상영	대구가톨릭대 학교 국어교육과	(053) 850-3114	(010) 8817-4153	경상북도 경산시 허양읍 금락로 13-13 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총무이사	201
99	박애경	연세대학교	(02) 909-4389	(010) 3248-4389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92-175 vivelavie@hanmail.net	섭외이사	142
100	박연호	충북대학교	(043) 261-26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충북대 국문과	지역이사	184
101	박영준	중앙대학교 국문과	(02) 820-5905	(010) 8389-9091	서울시 도봉구 방학4동 우성1차 아파트 104동 604호	업무이사	194
102	박영환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10) 8999-9833	서울 중구 필동3가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218
103	박요순	한남대학교 국문과	(042) 672-6410		대전시 동구 삼설2동 345-2		34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04	박용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053) 950-781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198
105	박을수	순천향대학교 국문학과	(041) 542-4755	(02) 355-5885	(우) 336-912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56	평의원	4
106	박종수	용인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산 117-6 용인대학교		125
107	박준규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20-6632	(062) 55-5205	광주 북구 중흥동 329-12		61
108	박지애	경북대		(010) 8011-9804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소		239
109	박철희	서강대학교 국문과	(02) 715-0141	(02) 723-8093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20
110	박현숙	숙명여자대학 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현대아파트 201동 2303호		172
111	배은희	인천대학교	(032) 770-8110	(010) 4365-1989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편집이사	144
112	백순철	대구대학교 국문과			경기 파주시 아동동 산98 대방아파트 107동 401호		109
113	변성환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
114	변종현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bhyun@kyungnam.ac.kr		143
115	서영숙	한남대학교	(02) 708-4950	(02) 396-2574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4-2 효동빌라 B동 101호		171
116	서종남	성신여자대학 교 국문과		(02) 469-3686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 목동신시가지APT 903-401		102
117	성무경	성균관대학교		(032) 505-8137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49
118	성호영	인천대학교	(032) 460-3464	(032) 469-2722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번지 인천대 국문과		100
119	손대현	경북대학교 국문과	(053) 950-5106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
120	손영화	전북대학교		(063) 451-2351	전북 군산시 대야면 자종리 875-4		178
121	손오규	제주대학교	(064) 754-3216	(010) 3090-27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1	지역이사	220
122	손찬식	충남대학교 국문과	(042) 821-6501	(042) 863-6302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 국문과		128
123	송원호	고려대학교		(02) 930-7428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33-15 30/1		148
124	송정란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내동 대학로 119 건양대 건양회관 419호		193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25	송종관	영남대학교		(03) 742-2489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85-11 5/2 chang992@chollan.net		69
126	신경숙	한성대학교 국문과	(02) 760-4014	(010) 3099-4014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국문과 diaz@hansung.ac.kr		130
127	신상성	용인대학교	(031) 417-5258		경기도 안산시 사동 요진APT 205동 204호		124
128	신연우	서울산업대학 문예창작과	(02) 970-6294	(02) 2644-2669	서울시 양천구 목6동 목동APT 613-1904		105
129	신영명	상지대학교 국문과	(033) 730-0217	(033) 761-0196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감사	88
130	신용대	충북대학교 인문대국문과	(043) 261-2029	(043) 262-34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32-4		14
131	신용순	증부대	(041) 750-6682	(010) 4572-9654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증부대학교 인문학부		153
132	신은경	우석대학교 국문과		(010) 8944-489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52
133	신장섭	경민대학교	(031) 828-7143	(010) 4188-7143	경기 의정부시 가흥동 562-1		217
134	신현규	중앙대학교		(010) 2299-888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교양학부대학	윤리위원	223
135	안동주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91-8211	(062) 227-2450	광주 동구 용산동 290-6		76
136	안민정	신문대		(010- 8880-030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41
137	안영길	성결대학교	(031) 467-88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3
138	안지영	서강대학교	(031) 901-3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극동APT 202-702		118
139	오동춘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문예창작	(02) 734-5048	(02) 2902-4234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61-114 ODC@post.or.kr	평의원	62
140	오민필	울산 남고등학교	(052) 72-7896	(052) 73-3016	울산시 남구 신강3동 491-20		41
141	오선주	전북대학교	(063) 270-3167		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종리 875-4 전북대 국문과		190
142	오승희	동백문화재단 출판 문화국	(051) 643-6268	(051) 56-8795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4-5 7/4		51
143	오영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02) 434-5195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21-16		179
144	오종각	강동구 상일동 삼일공고	(02) 428-0732	(031) 577-397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우성APT 114-1002		77
145	우용순	고려대학교	(02) 3290-196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 국문과		181
146	원용문	한국교원대학 교	(043) 230-3511	(02) 452-6786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1-53	평의원	6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47	유옥래	조선대	(02) 230-7628	010- 9730-2630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기조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239
148	유지화	서울고대	(02)918-396 3	010- 5267-3963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19번지 동산아파트 101동 1402호		238
149	윤승준	민족문화추진 회	(02) 389-5563	(02) 239-2334	서울 성동구 옥수2동 70 22/4		60
150	윤여송	호남대학교 국문과	(062) 371-8211	(062) 371-4196	광주 서구 쌍촌동 96 광명하이츠 101-911		75
151	윤희현	동국대학교	(02) 260-3146	(02) 442-4838	서울시 강동구 상내동 미주APT 5-1102		120
152	이격주	경기 미금시 금곡중학교	(031) 592-7087	(031) 64-1702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 626-2 주공APT 105-104		73
153	이경민	경희대		010) 7196-19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보라매경남아너스빌) 108동 703호	총무간사	249
154	이경영	경기대학교	(02)390-51 14	011) 603-317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1	부회장	221
155	이경철	중앙일보	(02) 751-5589		고양시 주엽2동 문촌마을 대원APT 1805-301		122
156	이계홍	문화일보	(02) 3701-5290	(02) 445-0148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APT 114-602		121
157	이노형	울산대학교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9
158	이대구	장학사	(042) 580-7441	(042) 525-9795	대전시 중구 문화1동 279-2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del@cnoe.or.kr		106
159	이동연	이화여자대학 교 장사	(02) 360-2139	(02) 333-281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104동 110호		89
160	이명현	중앙대학교	(02) 820-5904	010) 7346-2654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208
161	이민홍	성균관대 사범대 한문과	(02) 760-0114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APT 200-102		43
162	이병기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063) 220-217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북대학교		21
163	이병용	중앙대학교	(02) 820-5084	(02) 423-6701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43-33 태종아트빌 B동 302호		189
164	이병주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02) 267-3131	(02) 392-0916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22		24
165	이상보	국민대학교 국문과	(02) 914-3141 ~5	(02) 286-8774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186-1 미성맨션 5-1002		18
166	이상원	조선대학교	(062)230-6 500	(062) 653-285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7
167	이수곤	서강대학교	(02) 242-9022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56-19		114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68	이순희	경북대학교		(010) 8218-5253	(41462)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4길 61 이지예아파트 102동 302호		236
169	이승남	동국대학교	(02) 260-3146	(02) 834-24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5동 1702호		119
170	이승돈	대원고등학교	(02) 447-9352	(02) 424-7536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APT 452-105		13
171	이영지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02) 300-1469	(02) 307-7484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18 영지출판사/ HP. 019-306-7484 Lyji@korea.com		8
172	이영태	인하대학교	(032) 860-8717	(011) 264-9472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88
173	이완형	배재대학교		(010) 4467-2779	대전시 서구 연지길 14번지 배재대학교 국문과		206
174	이완희	중앙대학교	(02) 6247-5321	(011) 9968-2845	서울 서초구 반포1동 30-20 삼호가든4차아파트 나-903		226
175	이은성	성균관대학교	(02) 744-8447	(011) 9917-8447	서울시 중구 동승동 50-36번지 202호		191
176	이임수	동국대학교 국문과(경주)	(054) 770-2120	(054) 743-4380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동국대 경주캠퍼스 lis@dongguk.ac.kr		33
177	이정선	한양대학교		(02) 335-1418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동진빌라 2동 102호		173
178	이정옥	위덕대학교		(054) 760-1692	경북 경주시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8
179	이종건	수원대학교	(031) 220-2389	(02) 2602-4615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4-6 43/4 017-255-4615 jglee43@chollan.net		48
180	이종출	충부대학교	(041) 750-6782	(02) 581-1690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6-1 현대APT 10동 505호	평의원	15
181	이진령	인천대학교		(031) 203-7235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55-1 화광 주공APT 148-403		101
182	이찬옥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820-5086	(017) 235-2734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3-5 lcwchungang@hanmail.net	평의원	85
183	이창식	세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267-81 31 교)3132	(02) 591-0323	충북 제천시 신원동 산 21-1 세명대학교		45
184	이창환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	(062) 520-6631	(062) 529-2124	광주 북구 중흥1동 716-25		65
185	이재영	동국대학교		(010) 2362-8822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효관 2층 의사소통교육부 사무실	지역이사	211
186	이충희	麗水港 導船士		(010) 8207-1409	전남 순천시 상사면 마륜리 461-13		235
187	이태희	인천대학교	(032) 770-8646	(019) 375-5627	인천시 남구 도화동 177 인천대 국문과	지역이사	192
188	이택동	카톨릭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마구 역곡2동 산43-1		135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189	이원자	경희대학교			양천구 신정6동 목동 아파트 1405-403		129
190	이형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 3290-2491	(010) 6275-5070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leehd@korea.ac.kr	지역이사	141
191	이홍식	한양대		010- 7587-7703	서울시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40
192	이화형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031) 201-2270	(041) 632-622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학교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회장	90
193	임기중	동국대학교	(02) 260-3054	(02) 543-54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20-1203		22
194	임미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063) 270-3736	(010) 3885-7202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234
195	임유경				미국		136
196	임재욱	경북대		(010) 4139-3638	대구시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신관 416호 국어교육과		241
197	임종환	부산대학교 국문과	(051) 512-0311	(051) 755-4602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501-43 금정빌라 501호	평의원	37
198	임주탁	부산대학교	(051) 510-2601	(011) 9509-416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지역이사	232
199	林懿道	공주사립대학 교	(041) 850-5114	(041) 852-3338	충남 공주시 중학동 173-1		10
200	장성진	창원대학교		(055) 279-7207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5
201	장정수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8
202	전규태	전주대학교 국문학과			서울 마포구 상수동 86-32		9
203	전원범	광주교육대학 국어교육과	(062) 520-4020 ~1	(062) 262-4816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 국어교육과		107
204	전재강	안동대학교	(054) 820-5358	(011) 9597-7622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윤리위원	151
205	전준걸	동국대학교	(02) 260-3114	(02) 802-2296	서울 금천구 시흥5동 253-5		55
206	정기철	한남대학교	(042) 629-7800	(010) 2408-8253	대전시 서구 도마2동 대야APT 106-902		96
207	정영신	명지대학교 (사진작가)	(02) 375-8926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77-12 HP. 017-256-8926		116
208	정우락	영산대학교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국문확산공		169
209	정재호	고려대학교 국문과	(02) 94-4381~ 9	(02) 92-270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8-17		23
210	정종진	서강대학교	(02) 635-4505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3가 한양APT 3-804		115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11	조규익	승실대학교 국문과	(02) 820-0326	(02) 533-8442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05번지 우성아파트 302-1103호 kicho@saint.soongsil.ac.kr		59
212	조명숙	명지대학교 (시인)	(02) 3151-0622		서울시 은평구 응암4동 263-171호		117
213	조완호	도서출판 해진서과 대표	(02) 324-7313	(02) 483-0719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13-701		86
214	조유영	경북대학교		010 3293-3069	대구시 경북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212
215	조태성	전남대학교 국문과	(062) 530-3130	(010) 2614-383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2
216	조태흠	부산대학교	(051) 510-2082	(010) 2202-2082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6
217	조평환	건국대학교	(043) 840-3322	(011) 9919-9603	충북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230
218	조희경	성결대학교	(031) 467-8922	(010) 2354-05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성결대 국문과		182
219	주강식	부산교육대학 교	(051) 500-7215	(051) 528-6894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APT 502-105		38
220	진애라	경희대		010 5671-6842	화성시 동탄반석로 41 나루마을 신도브레이크 619-301	충무이사	246
221	진재식	단국대학교 (천안)	(041) 550-3252	(041) 573-70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법대 교학과		98
222	차주원	광문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02) 426-6642	(02) 442-6669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APT 331-206		91
223	차혜원	강남대학교	(031) 2803-871	011-235- 6479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신6-2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134
224	최 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02) 392-0131	(02) 923-8748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25
225	최 웅	강원대학교	(033) 250-8122	(011) 365-908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229
226	최강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02) 880-7662	(02) 584-7423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27
227	최규수	명지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대림APT 201-101 cha63@dreamwiz.com		140
228	최동국	인천대학교 국문과	(032) 770-8116	(032) 505-7878	인천 북평구 산곡동 142-3 경남APT 106-1007	평의원	16
229	최영희			(02) 545-00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APT 나-505		103
230	최용수	경상대학교		(055) 751-5843	경남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74
231	최은숙	경북대학교	(053) 850-7763	(053) 383-1180	대구시 북구 복현동 서한타운 106동 903호 olive707@dau.ac.kr	홍보이사	138
232	최재남	이화여자대학 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47

순번	이름	직장	전화		주소	비고	회원 번호
			직장	주택			
233	최재선	한국산업기술대	(031) 496-834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번지 한국산업기술대 교양학과		197
234	최철호	경북대학교		(053) 761-7326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613번지 신세계아파트 3동 305호		155
235	최한선	전남도립대학	(061) 380-8531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산 262 전남도립대학 문화예술학부		233
236	최호석	부경대학교	(051) 629-5418	(010) 2485-603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1
237	최홍렬	증양대학교		(010) 6390-361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3-5		187
238	하경숙	선문대		(010) 3169-211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 112동 1503호	정보이사	243
239	하품경	경희대		(010) 6295-903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1 305호	편집장사	251
240	한창훈	전북대학교 국교과	(063) 270-2714	(02) 917-83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assi431@harmail.net		110
241	한춘섭		(031) 741-0489	(031) 749-133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신흥주공APT 106-304		2
242	함복희	강원대학교	(02) 954-2891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662-10		113
243	허만옥	남서울대학교		(010) 9879-4287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43번지 삼성래미안2차A 104동1001호		196
244	허미자	성신여자대학 교	(02) 714-1076	(02) 3272-2797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51 신촌 삼익APT 103-1803		29
245	허영진	증양대학교 국문과		(010) 9999-089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증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5
246	허왕옥	충남 연기 조치원중학교	(041) 863-0773	(041) 866-91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신흥리 주공 연립 6-305		108
247	홍원기			(02) 535-1989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885 한신상가APT B-402		67
248	황순구	동국대학교 한문학과	(010) 6397-2018	(031) 829-4277	(11456)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봉우마을 5단지 508동 1803호	평의원	3
249	황인환	고려대학교	(011) 287-0115	(02) 897-8103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925-3 금진청송빌라 다동403호		177
250	황재국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033) 250-6640	(02) 900-3983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0-1 현대빌라 2-302		127
251	황충기	중경고교	(02) 793-2540	(031) 712-8940	(우) 121-764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APT 113-1402		44

한국시조학회 단체회원 주소록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1	동국대학교 도서관	02)260-3452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02)94-4381~9 교)488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
3	단국대학교 중앙도서관	031)8005-2359	448-70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4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031)612-9711~2 예광복스(02-336-0267)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래구 역곡2동 산 43-1
5	세종대학교 도서관	02)3408-3072	143-747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6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02)713-9391~7 교)414	140-742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7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02)2290-1374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8	한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42)629-7689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9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50-3264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10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조직원도서관	041)2-4180~4190 교)300	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808
11	순천향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41)530-1106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 53-1
12	중앙대학교 도서관	02)829-5031~7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13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50-5445, 6114, 7114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14	성신여자 대학교 중앙도서관	02)920-7318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15	경상대학교 도서관	055)751-5115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16	충남대학교 부속도서관	042)822-6320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17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02)902-9151 교)252	132-030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18	신라대학교 도서관	051)999-5000	617-736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산 1-1
19	울산대학교 중앙도서관	052)73-6101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
20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	02)940-4214	136-714 서울 성북구 월곡동 23-1
21	부경대학교 도서관	051)620-6998	608-737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2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02)760-1181	110-745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23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도서관	031)400-5114	425-791 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순번	단체명	전화	주 소
24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043)53-9165 교)3359	363-840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1호
25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02)362-6161 교)649	120-750 서울 서대문구 대학동 11-1
26	경북대학교 도서관	053)950-4715 교)3039, 3021	702-701 대구 북구 대학로80(산격동) 경북대학교 도서관 연속간행물실
27	동아대학교 중앙도서관	051)200-6342~3	604-714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840
28	서울대학교 도서관	02)886-0101 교)3705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29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63)80-2191~9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30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02)970-5030	151-74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26
31	국회도서관	02)788-4211	150-703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 국회도서관 협력과
32	성결대학교 도서관	031)467-8284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산147-2
33	국립중앙도서관	02)535-4142	137-702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34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032)770-8082	402-749 인천시 남구 도화동 117번지 인천대학교
35	대진대학교 도서관	031)539-1114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도서관
3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053)810-1675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37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055)279-7810	641-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소나무5길 65
38	경주대학교 중앙도서관	054)770-5052	780-712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39	백석대학교 도서관	02)336-0267	121-837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4-4 백석대학교 도서관(예광복스)
40	경희대학교 도서관	031)201-3217, 3222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참고열람과
41	국립중앙도서관	02)3483-8813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처
42	국회도서관	02-360-0040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국회도서관(잡지회관 지하1층 납본실)

제17대 임원명단

평 의 원 : 김동준(동국대 명예교수) 황순구(동국대 명예교수)
박을수(순천향대 명예교수) 원용문(교원대 명예교수)
이종출(중부대 명예교수) 최동국(인천대 명예교수)
임종찬(부산대 명예교수) 이찬욱(중앙대)
김상진(한양대)

作故 : 심재완(고문), 김상선(평의원), 최진원(평의원)

회 장 : 이화형(경희대)

부 회 장 : 김명준(한림대) 이경영(경기대) 이선이(경희대) 류찬열(중앙대)

총무이사 : 김성문(중앙대) 박상영(대구가톨릭대) 김지은(중앙대) 진애라(평택대)

편집이사 : 김용기(중앙대) 박수밀(한양대) 배은희(인천대) 권성훈(경기대)

기획이사 : 안영훈(경희대) 정소연(이화여대) 박선애(성균관대) 김성철(목포해양대)

연구이사 : 박진임(평택대) 김윤희(한서대) 구봉곤(홍익대) 김준형(부산교대)

정보이사 : 권혁래(용인대) 하경숙(선문대) 김현정(삼육대) 최홍원(상명대)

섭외이사 : 맹문재(안양대) 박애경(연세대) 남정희(성균관대) 송영은(평택대)

업무이사 : 심호남(중앙대) 조동범(한서대) 윤지훈(동북아재단) 박영준(중앙대)

홍보이사 : 김형준(경희대) 남동걸(인천대) 최은숙(경북대) 공진치우(하얼빈이공대학)

국제이사 : 순첸(천진 외대) 박송희(요녕대) 리옌(천진재경대) 서보경(하노이대)

편집위원 : 김상진(위원장, 한양대)

김용기(중앙대) 박수밀(한양대) 배은희(인천대) 권성훈(경기대)

김성문(중앙대) 박상영(대가대) 김지은(중앙대) 진애라(평택대)

윤리위원 : 이찬욱(위원장, 중앙대)

강구윌(동양대) 류수열(한양대)

신현규(중앙대) 이경영(경기대) 전재강(안동대)

지역이사 : 서울지역 — 이형대(고려대)

경기인천 — 이태희(인천대)

대구경북 — 이체영(동국대)

부산경남 — 임주탁(부산대)

강원지역 — 강명혜(강원대)

충북지역 — 박연호(충북대)

충남대전 — 구사희(선문대)

전북지역 — 최현재(군산대)

전남광주 — 김신중(전남대)

제주지역 — 손오규(제주대)

감 사 : 신영명(상지대) 박미영(백석대)

	일반회원	기관회원
입회비	30,000원	50,000원
연회비	30,000원	50,000원
심사료	60,000원	
게재료	일반 : 150,000원	연구비지원논문 : 300,000원
입금은행(예금주)	(한국시조학회 김성문) 우리은행 1002-055-613567	

<논문투고일 안내>

상반기 5월 31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하반기 11월 30일까지 논문 투고 마감

연속 게재는 2회까지만 허용

논문 투고 홈페이지(<http://www.koreasijo.net>) 온라인 논문 투고란

메일(sijomunhak-@naver.com)

時調學論叢 第52輯

2020년 1월 28일 인쇄

2020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이화형

발행처 韓國時調學會

인쇄·보급처 도서출판 책사랑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47 동남빌딩 401호

전화 : (02)929-4547 팩스 : (02)929-4548

E-mail : ided-yeol@hanmail.net

등록 : 제307-36호

ISSN 1226-2838

정가 15,000원
